

COVER STORY

부산오페라하우스 성공건립기원
2021 부산오페라WEEK

COLUMN

문화의 힘은 미소(微笑)다

골목에서 만나다. 생활 속 문화공간
요산문화관

2021
BUSAN
OPERA
WEEK



BUSAN WORLD PHILHARMONIC ORCHESTRA


The Classic 아시아의 창(창) 부산

수민 피아노 협주곡 / Schumann Piano Concerto in a minor, Op. 54
라흐마니노프 교향곡 2번 / Rachmaninov Symphony No. 2 in e minor, Op. 27

2021. 10. 21 | Thu | 7:30pm

부산시민회관 대극장

본 공연은 유튜브  KNN 클래식  채널에서 실시간 방송으로 진행됩니다


| 주 최 | 부산광역시 대표방송 

| 후 원 |  부산광역시  문화재단

| 협 찬 |  부산은행  조광페인트 부산도시가스 

| 문 의 | 051-850-9568

| 입장권 | 전석 무료(초대권 소지자, 인터넷 신청자에 한해 입장)

| 초대권 신청 |  홈페이지 www.knn.co.kr

* 부산월드필하모닉오케스트라 공연은 부산광역시 보조금을 지원받아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 시민을 위한 초대권은 KNN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지휘 정치용
Conductor Chiyong Chung

피아니스트 문지영
Pianist Chloe Jiyeong Mun

연주 부산월드필하모닉오케스트라
Busan World Philharmonic Orchestra



Changing

Connected moments

이어지는 순간,
변화하는

Changing,
Connected
moments



제20회
유니세프와 함께하는
2021 부산국제아트페어

2021.12.02(THU)-
06(MON)
BEXCO/BUSAN

주최/주관
Host : Managed by



주관홍신사
Host News Agency



Choral Busan
Festival &
Competition

NOTHING CAN STOP US FROM
SINGING TOGETHER

결코 멈출 수 없는 우리의 노래

2021 부산국제합창제

VIRTUAL CHOIR COMPETITION

2021.10.21-24

금정문화회관, 영화의전당

GEUMJEONG CULTURAL CENTER, BUSAN CINEMA CENTER

www.busanchoral.org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를 참조 바랍니다.

COMPETITION : OCT 21 2PM KST LIVE ON
AWARD CEREMONY : OCT 23 5PM KST LIVE ON



Busanchoral



주최 부산광역시 주관 (재)한국합창조직위원회 공영문화재단 후원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부산일보사 국제신문 KBS 부산방송총국 부산 MBC KNN
 협찬 대동대학교 동성모터스 반도건설 BNK 부산은행 SARATOGA 양정 도도상장기업 LET'S GO 2025 스티카동력 황산병원 YOUNSAN METAL 유엔통과가맹관
 후원 온산세운광공회 CHANGCHANG ICT ㈜유비스 LED

티켓예매 인터파크 www.interpark.com 공연문의 070-4172-0682 busanchoral@gmail.com

* 부산국제합창제는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문예진흥기금과 부산광역시의 보조금 지원 사업입니다.



도자와 바이토벤

예술감독 오충근 (지휘)
특별출연 최진석 (철학자)
협연 이강현 (첼로)
연주 부산심포니오케스트라 (BSO)

2021.
11.04. Thu
7:30pm

을숙도문화회관 대공연장

드보르자크 교향곡 제9번 e단조, 작품95 '신세계로부터' 2악장
A. Dvořák Symphony No.9 e minor, Op.95 'From the New World' II. Largo

브루흐 신의 날 작품47
M. Bruch Kol Nidrei, Op.47

엘가 위풍당당 행진곡 제1번 작품39
E. Elgar Pomp and Circumstance March No.1 Op.39

베토벤 교향곡 제5번 c단조, 작품67 '운명' 4악장
L. v. Beethoven Symphony No.5 in c minor, Op.67 'Fate' IV. Allegro

제80회 을숙도명품콘서트
코로나 극복을 위한 미래의 희망

Busan Chamber Orchestra



예술총감독 임병원

John Rutter (1945-)
Suite for string orchestra, based on British folk tunes (1971)

Benjamin Britten (1913- 1976)
Simple Symphony for string orchestra Op.4

Wolfgang Amadeus Mozart(1756-1791)
Piano Concerto No.12 in A Major, K.414(385p)

Gustav Holst (1874-1934)
A Moorside Suite for String Orchestra H.173



피아노 협연 최윤희

바이올린1



김은정

비올라



김나영



이기모



진혜빈

첼로



김언정



서영희



조혜란

베이스



박문경

기 획



김민경



권덕진



조우태



이동열



이유진



윤성민



구본룡



이형훈

2021.10.16.(토) pm17:00

을숙도문화회관 대공연장

거리두기 좌석제

주최 | 을숙도문화회관 주관 | 부산체임버오케스트라 예매 | 을숙도문화회관 홈페이지 YES24.COM (예매시 20%할인)

티켓 | 1층 2만원, 2층 1만원 관람연령 | 초등학교 이상 공연문의 220-5811

서부산권 문화의전당
을숙도문화회관

을숙도문화회관 특별 기획공연

가을석양 열린음악회

코로나 테라피 콘서트

가수 김연자

사회 남상일


지휘 홍희철

2021.10.23.

|토| 오후 2시, 6시

을숙도문화회관 대공연장

주최·주관

 을숙도문화회관

예매 을숙도문화회관 <http://eulsukdo.saha.go.kr/> YES24.COM 티켓 1544-6399 관람료 1층 1만원, 2층 5천원 입장연령 초등학교 이상 문의 051.220.5811

제32회 글로벌 전국음악콩쿨

무대경연 또는 온라인경연 (택일)

부문	대회일	접수마감
성악 중창 관악 현악 실내악	2021. 10. 09 (토)	10. 04 (월)
피아노 작곡 국악	2021. 10. 16 (토)	10. 11 (월)
시상식 및 수상자음악회	2021. 10. 23 (토)	10. 18 (월)
신예음악회	2021. 10. 30 (토)	10. 25 (월)

장 소 글로벌아트홀

부 문 피아노 / 관현악 / 실내악 / 성악 / 중창 / 작곡 / 국악

대 상 유 / 초 / 중 / 고 / 대 / 일반 / 일반비전공

접수처 글로벌 홈페이지 www.glovarthall.modoo.at / 콘테스트 www.contest.co.kr

참가비 유초등부 10만원 / 중·고·대학·일반 12만원 / 실내악·중창 1인당 6만원 / 곡 추가 6만원

국민은행 99776600054 글로벌아트홀 참가자 이름으로 입금, 참가비 환불 불가

***사전접수자 할인 혜택 : 9/20(월)까지 접수신청 및 입금완료시 참가비 2만원 할인**

과제곡 전 부문 자유곡 1곡 (곡 추가시 1곡당 6만원 추가)

작곡과제곡 : 중등부 2도막, 고등부 3도막 피아노곡(당일 동기제시) / 대학일반부 : 실내악작품(음원 및 악보 이메일첨부)

온라인경연 영상제출 방법 및 규정

1. 이메일제출 : glovarthall@hanmail.net

이메일제목 기재사항 : 참가자명,악기명,학년 예) 홍길동,피아노,초3

2. 3개월이내 촬영한 영상, 본인확인 가능하게 얼굴 손 발이 보이도록 스마트폰으로만 촬영하고 편집 불가
촬영시간 : 유초등부 1분~3분 / 중고대일반 1분~5분, 접수마감일 내 제출해야 함

시 상 신영순상(The Best Excellent Performer)

*** 상금 300만원 및 글로벌 초청연주**

전체대상(시장상) / 특별상(구청장상) / 부문별 최우수상 / 부문별·학년별 1위 2위 3위

*심사기준 : 각 부문별 및 각 학년별 절대평가로 체점

수상자 혜택 : 홈페이지 또는 전단지 이면 참조

*심사위원 : 분야별 한국 최고의 교수진으로 구성 / 무대경연, 온라인경연 모두 동등하게 심사

*대회 상세일정표는 각 부문 접수마감 후 글로벌아트홀 홈페이지(www.glovarthall.modoo.at)에 공지

GloVil Art Hall 47849 부산광역시 동래구 사직북로 48번길 162(온천동, 글로벌아트홀)

Tel : 051-505-5995 / Email : glovarthall@hanmail.net / Website : www.glovarthall.modoo.at

CONTENTS

10

월간문화예술정보지



부산문화회관의 정보를 담은
QR코드입니다.

예술의 초대 October 2021 Vol.358

2021년 10월호 통권 358호

발행처 (재)부산문화회관
48534 부산광역시 남구 유엔평화로76번길 1
Tel. 051 607 6000

발행인 이용관

편집인 최용부

편집위원 동길산(위원장), 권은영, 이상현, 정두환, 정봉석, 채영희, 홍동식

홍보팀장 서정환

편집장 정복엽

발행일 2021년 9월 25일

디자인·제작 효민디앤피

10 Cover Story

부산오페라하우스 성공건립기원
2021 부산오페라WEEK

16 Column

문화의 힘은 미소(微笑)다

18 거꾸로 보는 미술사 ③

중세에 그린 메타버스

22 골목에서 만나다_생활 속 문화공간

부산사람 김정환의 삶을 담다
요산문화관

25 Preview

40 Issue

2021 부산국제영화제
2021 바다미술제
2021 부산국제합창제
2021 부산예술제

46 Review

52 Program Guide

70 New Book

71 BSCC News

SUN	MON	TUE	W
<p>1</p> <p>한민</p> <p><i>'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예정되었던 공연이 취소, 혹은 연기되고 있습니다. 공연관람 전 반드시 공연 주최 측에 문의 하시거나 (재)부산문화회관 홈페이지 (www.bscc.or.kr)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i></p>	<p>부산문화회관 사랑채극장</p> <p>부산시립극단 특별공연 미운오리새끼 9월 28일(화)-10월 23일(토) 관람시간 : 오전 11:00(평일 단체공연, 일요일 공연없음) 입 장 료 : 전석 1만원 문 의 : (재)부산문화회관(607-6000)</p>	<p>부산문화회관 전시실</p> <p>(재)부산문화회관 기획전 매그넘 인 파리 6월 28일(월)-10월 10일(일) 관람시간 : 오전 10:00-오후 6:00 (입장 마감 오후 5:00) 입 장 료 : 일반 1만5천원, 청소년 1만3천원, 어린이 1만원 문 의 : 가우디움어소시에이츠 (070-7779-8990)</p>	
<p>3</p> <p>뮤지컬 '번개맨' 11:00, 14:00, 16:30 대 6만6천원-5만5천원 (주)하늘이엔티(1688-6675) 국악창작실내악 기획공연 '거짓된 소문' 19:00 중 초대/국악그룹 트락(010-3591-0861) 스트링 아테소 정기연주회 18:00 참 전석 1만원/스트링 아테소(010-4006-0059)</p>	<p>4</p>	<p>5</p> <p>부산시립청소년교향악단 '재밌는 클래식 맛있는 클래식' 10:30 대 부산시립예술단 공연사업팀(607-3113) 부산페스티벌오케스트라 제27회 정기연주회 'Two Triple Concertos' 19:30 중 전석 1만원/부산페스티벌오케스트라(010-3376-2246) 테너 박재화 리사이틀 19:30 참 전석 1만원/박재화(010-7152-7657)</p>	<p>부산시립청소년교향악단 클래식 10:30 대 부산시립예술단 공연사업팀(607-3113) 부산시립청소년교향악단 특별연주회 19:30 대 전석 2천원/(재)부산문화회관(607-6000) 부산국악작곡가회 제20회 연주회 19:30 중 초대/부산국악작곡가회(010-5015-5015) 피아니시모 제14회 정기연주회 19:30 참 전석 1만원/피아니시모(010-5015-5015)</p>
<p>10</p> <p>위커톤군 추모 제1회 유엔평화음악회 19:00 중 5만원-3만원-2만원 유엔PEC사회적협동조합(611-1002) 정애라 플루트 독주회 16:00 참 초대/정애라(010-2580-1112)</p>	<p>11</p>	<p>2021년 향신회 제58회 정기 작곡발표회 '한국의 전래동화와 현대음악' 19:30 중 초대/향신회(010-4550-1299)</p>	<p>제52회 부산피아노연주회 '김미성 독주회' 19:30 중 초대/부산피아노연주회(010-5015-5015)</p>
<p>17</p> <p>2021 부산오페라위크 '피카로의 결혼' 17:00 대 9만원-7만원-5만원-3만원 (재)부산문화회관(607-6000) 이서림 귀국 타악 독주회 17:00 참 이서림(010-9678-0130)</p>	<p>18</p>	<p>구스타프 말러 서거 110주년 기념 음악회 '대지의 노래' 19:30 중 지광윤(010-4313-7113)</p>	<p>소프라노 신민원 독창회 중 전석 2만원/아트뱅크(010-5015-5015) 소프라노 김유진 독창회 참 김유진(010-5015-5015)</p>
<p>24</p> <p>해운대구립 청소년 오케스트라 2021 정기연주회 18:00 중 무료/해운대구청(749-6044)</p>	<p>25</p>	<p>26</p>	<p>27</p> <p>부산시립무용단 스타즈 Stage and Master 대 (재)부산문화회관(607-6000)</p>
31			
<p>부산메트로폴리탄오케스트라 '프랑스 로맨틱 콘서트' 19:30 대 10만원-7만원-5만원/BMPO(070-7727-0188)</p>	<p>제59회 부산예술제 '부산무용예술제' 18:00 중 (사)부산무용협회(632-5116) 부산클라리넷과르넷 제22회 정기연주회 18:00 참 전석 1만원/부산클라리넷과르넷(010-3146-8434)</p>		

Busan Cultural Center & Busan Citizen's Hall Schedule of Performances

WED	THU	FRI	SAT
		1	2
	7	8	9
3	14	15	16
10	21	22	23
17	28	29	30

• (재)부산문화회관 홈페이지에서 예매하십시오.
 • 위 공연 전시일정은 주최 측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자세한 공연정보는 www.bscc.or.kr에 접속하세요.
 • 초대(무료)공연은 반드시 주최 측에 문의 바랍니다.

SUN	MON	TUE	WED
<p>‘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예정되었던 공연이 취소, 혹은 연기되고 있습니다. 공연관람 전 반드시 공연 주최 측에 문의 하시거나 (재)부산문화회관 홈페이지 (www.bscc.or.kr)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p>	<p>한국 현대사진 거장 임응식 작품展 ‘부산에서 서울로’ 9월 10일(금)~10월 24일(일) 1, 2층 전시실 관람시간: 오전 10:00~오후 6:00 (매주 월요일, 9월 21일 휴관) 입장료: 무료 ※ 홈페이지(www.bscc.or.kr)를 통해 사전예약 필수 문의: (재)부산문화회관 (607-6000)</p>		
<p>3</p> <p>제3회 부산발레페스티벌 18:00 대 3만원 2만원/부산발레시어터(010-4016-7477) 2021년 제3회 백결 영남총관 ‘한국현대사에서 본 부산총의 맥(脈)을 찾아’ 17:00 소 영남총학회(010-3869-1530)</p>	<p>4</p>	<p>5</p>	<p>임응식 사진작가 특별전 ‘전후(戰後) 부산의 문화’ 소 무료(홈페이지 사전예약 필수) (재)부산문화회관(607-6000)</p>
<p>10</p> <p>제8회 창작오케스트라의 밤 17:00 대 (사)부산음악협회(634-1295)</p>	<p>11</p>	<p>12</p> <p>6대 광역시 및 제주특별자치도 무용예술교류 19:30 대 (사)부산무용협회(632-5116)</p>	<p>1</p> <p>부산시립교향악단 기획음악회5’ 19:30 대 전석 5천원/(재)부산문화회관 부산시립합창단 ‘교실 밖’ 소 부산시립예술단 공연 임응식 사진작가 특별전 연계 기록사진(Historical photo) 소 무료(홈페이지 사전예약 필수) (재)부산문화회관(607-6000)</p>
<p>17</p> <p>그 시절 부산의 노래 6 ‘전쟁과 평화’ 19:00 대 초대/(사)빛을나누는사람들(761-4736)</p>	<p>18</p>	<p>19</p> <p>부산시립합창단 ‘교실 밖 합창여행’ 10:30 대 부산시립예술단 공연사업팀(607-3113)</p>	<p>2</p>
<p>24</p> <p>(재)부산문화회관 기획공연 ‘흑백다방’ 15:00 소 4만원·3만원·2만원 (재)부산문화회관(607-6000)</p>	<p>25</p>	<p>26</p> <p>부산CBS음악FM 창립10주년 기념 CBS DJ 콘서트 ‘원더풀 라디오’ 19:30 대 부산CBS(636-0050) 부산 사회복지사대회 16:00 소 부산사회복지사협회(507-1285)</p>	<p>2</p>
<p>31</p> <p>(사)밀레니엄심포니오케스트라 콘서트 ‘Uprising’ 17:00 대 (사)밀레니엄심포니오케스트라(02-6292-9373)</p>			<p>부산시민회관 문화가 있는 ‘정크, 클라운’ 19:00 소 무료(초등학생 이상 관람 가능) (재)부산문화회관(607-6000)</p>

Busan Cultural Center & Busan Citizen's Hall Schedule of Performances

ED	THU	FRI	SAT
		1	2
		다니엘 하리토노프&윤아인 피아노 듀오 리사이틀 20:00 대 6만원·4만원·2만원/아트뱅크코리아(442-1941)	제3회 부산발레페스티벌 18:00 대 전석 1만원/부산발레시어터(010-4016-7477) 부산시립예술단과 함께하는 기술입은 문화예술교육 'ART Project A to Z' 09:30 소 부산시립예술단 공연사업팀(607-3113)
6	7	8	9
연계특강 '임응식 사진 속 16:00 (약 필수) (07-6000)	재향군인의 날 기념식 15:00 소 부산광역시 재향군인회(010-5003-9469)		부산시립예술단과 함께하는 기술입은 문화예술교육 'ART Project A to Z' 09:30 소 부산시립예술단 공연사업팀(607-3113)
3	14	15	16
음악회 '부산시향의 미완성 문화회관(607-6000) 합창여행' 10:30 사업팀(607-3113) 특강 '도시의 기억재생 장치, (topography)' 15:30 (약 필수) (07-6000)	부산시립교향악단 제579회 정기연주회 아침음악회 '스키' 11:00 대 전석 1만원/(재)부산문화회관(607-6000)	부산시립교향악단 제579회 정기연주회 '스키' 19:30 대 2만원·1만5천원·1만원·5천원 (재)부산문화회관(607-6000)	부산콘서트라이어 송년음악회 '하이든 천지창조' 17:00 대 전석 2만원/부산콘서트라이어(010-5468-4658) 부산시립예술단과 함께하는 기술입은 문화예술교육 'ART Project A to Z' 09:30 소 부산시립예술단 공연사업팀(607-3113)
0	21	22	23
	2021 제13회 부산월드필하모닉오케스트라 '아시아의 창 부산' 19:30 대 무료(인터넷 신청자에 한해 입장) (휴)KNN(850-9568)	제20회 한마음경로대잔치 18:00 대 부산시노인복지협회(502-6661)	2021 김창욱 토크 콘서트 시즌2-부산 14:00, 18:00 대 7만7천원·6만6천원 (휴)하늘이엔티(1688-6675) *(재)부산문화회관 기획공연 '흑백다방' 15:00 소 4만원·3만원·2만원 (재)부산문화회관(607-6000)
7	28	29	30
날_배서시 명품극장 관람, 사전예매 필수) (07-6000)		제59회 부산예술제 개막식 및 가곡과 아리아의 밤 19:00 대 (사)부산음악협회(634-1295)	제59회 부산예술제 전통음악한마당 18:30 대 (사)부산국악협회(644-5211) 제3회 전국 장애인 행복나눔 詩낭송 경연대회 14:00 소 (사)부산국제장애인협회의(051-988-2427)

- (재)부산문화회관 홈페이지에서 예매하십시오.
- 위 공연 전시일정은 주최 측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자세한 공연정보는 www.bscc.or.kr에 접속하세요.
- 초대(무료)공연은 반드시 주최 측에 문의 바랍니다.



BUSAN OPERA WEEK

부산오페라하우스 성공건립기원
2021 부산오페라WEEK

21세기 부산의 새로운 랜드마크가 될 부산오페라하우스가 2023년 완공된다. 북항 해양문화지구 내에 건립되는 부산오페라하우스는 해양수도 부산의 상징적 문화공간이자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문화예술의 아이콘으로 자리매김할 예정이다.

부산시에서는 지난 2016년부터 부산오페라하우스의 성공적인 건립을 지원하고 지역 오페라 육성과 오페라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을 높이기 위해 매년 ‘부산오페라WEEK’를 개최해왔다. 2021년 올해도 오페라 명작에서부터 창작 오페라, 갈라 콘서트 등 다양한 무대로 관객들과 함께 즐길 수 있는 오페라 축제의 장이 펼쳐진다. 특히 올해는 관객들이 보다 다양한 장소에서 오페라를 즐길 수 있도록 기존 부산문화회관, 부산시민회관뿐 아니라 금정문화회관, 영화의전당 등 지역의 대표적인 공연장이 함께 참여하여 축제의 분위기를 더욱 북돋운다.

국내 최고의
출연진과 제작진이 선사하는

모차르트 오페라
피가로의 결혼

10월 15일 금요일 오후 7:30
16일-17일 토-일요일 오후 5:00
부산문화회관 대극장
V석 9만원, R석 7만원
S석 5만원, A석 3만원
(재)부산문화회관 607-6000

2021년 부산오페라WEEK의 화려한 막을 여는 주인공은 (재)부산문화회관이 올해 의욕적으로 제작한 오페라 ‘피가로의 결혼’. (재)부산문화회관은 지난 2019년에도 베르디 오페라 ‘리골레토’를 자체 제작, 국내 최정상급 출연진들과 제작진이 최고의 무대를 선사하여 큰 호평을 받은 바 있다.

오페라 ‘돈 조반니’, ‘마술피리’와 함께 모차르트 3대 오페라로 꼽히는 ‘피가로의 결혼’은 풍자의 미학과 유쾌한 희극적 요소가 결합된 18세기의 대표적인 오페라 부파로, 스페인 세비야를 배경으로 알마비바 백작의 시종인 피가로와 백작 부인의 하녀 수잔나의 결혼식을 둘러싸고 벌어지는 하루 동안의 해프닝을 그리고 있다. 특히 이 작품은 ‘보마르세 3부작’으로 잘 알려진 프랑스 작가 보마르세의 희곡 중 제2부를 원작으로, 그 당시 귀족사회와 신분제도를 통렬하게 풍자하는 요소들이 등장하면서 계급 사회에서 시민 사회로 전환되는 18세기 유럽 사회의 변화를 담고 있다.

(재)부산문화회관은 이번 무대를 위해 각 분야 최고의 실력자들을 한 자리에 모았



다. 한국인 최초 이탈리아 베르디극장 연출가 이의주, 부산시립교향악단 부지휘자, 부산시립청소년교향악단 수석지휘자, 진주시립교향악단 상임지휘자를 역임하고 현재 동의대학교 교수로 있는 지휘자 윤상운, 그리고 유럽을 중심으로 다양한 오페라 무대에서 활동해오다 현재 부산대학교 교수로 있는 바리톤 이광

근을 비롯해 안세범, 소프라노 박하나, 박현진, 바리톤 윤오건, 이태영 등 최고의 기량을 뽐내는 성악가들이 출연, '죽기 전에 꼭 봐야 할 오페라'로 꼽히는 '피가로의 결혼' 속으로 관객들을 이끈다. 연주는 카메라타 부산, 합창은 부산오페라합창단이 맡아 보다 풍성한 무대를 선사한다.

지휘 윤상운 **연출** 이의주 **음악코치** 이소영 **합창지휘** 전진
출연 이광근, 안세범, 박하나, 박현진, 윤오건, 이태영, 정혜민, 장은영, 이지영, 김지수, 박상진, 김정대, 이유진, 김현정, 임찬우, 백예훈, 김경한, 곽동민, 박해미, 김민정
연주 카메라타 부산 **합창** 부산오페라합창단

부산 출신의 독립운동가
한형석 선생을 기리는

2021 창작오페라
그 이름 먼구름

10월 22일 금요일 오후 7:30
 23일 토요일 오후 5:00
 부산문화회관 대극장
 R석 7만원, S석 5만원, A석 3만원
 루체테음악극연구소 513-1009



부산 출신의 독립군이자 음악가, 문화운동가인 먼구름 한형석 선생(1910~1996)을 기리는 창작오페라 '그 이름 먼구름'도 이번 부산오페라WEEK 기간에 만날 수 있다. 루체테음악극연구소가 제작한 창작오페라 '그 이름 먼구름'은 지난해 한형석 선생 탄생 110주년을 맞아 기념사업의 일환으로 초연무대를 가진 바 있다.

한형석 선생은 일제강점기 독립운동가뿐만 아니라 한국 최초 오페라 '아리랑'을 작곡한 음악가이자 서예, 연극, 영화 등 예술창작자이며 교육자였다. 부친의 영향을 받아 항일운동에 투신한 선생은 항일정신을 고취시키기 위해 항일가곡 100여 곡을 작곡하기도 했는데, 특히 그가 독립군 자금마련을 위하여 1940년 서안에서 선보인 가극 '아리랑'은 우리나라 최초의 오페라로 알려진 현제명의 오페라 '춘향전'보다 11년 먼저 작곡된 오페라로 근대음악사에 큰 족적을 남긴 바 있다. '그 이름 먼구름'에서는 이런 한형석 선생의 이야기를 토대로, 가극 '아리랑' 공연과 선생이 우리나라 최초로 세운 아동전용극장인 자유아동극장 설립이라는 두가지 중요한 사건을 중심으로 극을 전개해나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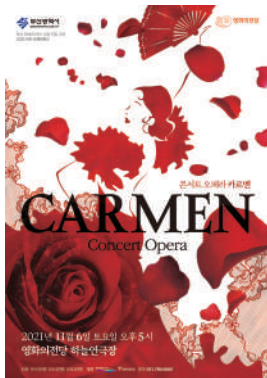
이번 무대는 루체테음악극연구소 대표이자 작곡가로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는 백현주가 작곡, 부산시립합창단 부지휘자를 역임한 전진이 지휘 및 음악감독을 맡고 부산시립극단 김지용 예술감독이 연출가로 이름을 올렸다. 주인공 한형석 역으로는 뛰어난 가창력과 연기력을 자랑하는 바리톤 김종표가 맡아 한형석 선생의 치열했던 삶을 노래하며, 소프라노 구민영, 권소라, 박나래, 이주민, 베이스 박상진, 테너 이태흠, 그리고 J Choir, 햇살나무어린이예술단, 부산콘서트 오케스트라가 무대에 함께 선다.

제작·작곡 백현주 **연출** 김지용 **대본** 박춘근 **지휘·음악감독** 전진
출연 김종표, 구민영, 박상진, 권소라, 박나래, 이태흠, 이주민
연주 부산콘서트 오케스트라 **합창** J Choir, 햇살나무어린이예술단

주옥같은 아리아로
전 세계가 사랑하는

콘서트 오페라
카르멘

11월 6일 토요일 오후 5:00
영화의전당 하늘연극장
R석 5만원, S석 4만원, A석 2만원
(재)영화의전당 780-6000



올해 부산오페라WEEK에서는 치명적인 팜므파탈의 세계로 안내하는 비제 오페라 '카르멘'을 콘서트 오페라를 통해 만나볼 수 있다.

집시 여인 카르멘과 돈 호세의 비극적인 사랑을 다룬 오페라 '카르멘'은 베리스모 오페라(사실주의 오페라)의 효시라 불릴 만큼 하층민의 어두운 삶을 사실적으로 그렸을 뿐 아니라 전통적인 여성 이미지와 도덕관념을 뛰어넘는, 이전에는 볼 수 없던 여성 캐릭터로 유명한 작품이다. 초연 당시 '음표 하나도 버릴 것이 없다'라는 전문가들의 찬사에도 불구하고 가족 단위의 관객들에게 비난과 외면을 받아 흥행에 실패하기도 했으나 점차 시간이 흐를수록 작품의 음악적 완성도와 더불어 '투우사의 노래', '하바네라', '당신이 던져준 이 꽃' 등 주옥같은 아리아들로 관객들을 사로잡으며 오늘날 세계인이 가장 사랑하는 오페라로 자리잡게 되었다.

특히 오페라 '카르멘'에서는 남성을 파멸시키는 팜므파탈의 매력을 되살리기 위해 주인공 카르멘 역을 메조소프라노가 맡아왔는데, 이번 무대에서는 한국의 메조소프라노로서는 최초로 세계 3대 오페라 하우스 중 하나인 빈 국립극장에서 데뷔한 메조소프라노 양송미가 카르멘 역을 맡아 치명적인 매력을 선사한다. 이밖에 카르멘의 유혹에 넘어가는 돈 호세 역의 테너 양승엽을 비롯해 우주호, 왕기현, 손혜은, 박나래, 채범석, 이우정, 강도호가 출연하며 경북도립교향악단, 마산시립교향악단 상임지휘자를 역임한 지휘자 이동신이 지휘하는 두레라움심포니오케스트라와 두레라움오페라합창단이 무대에 선다.

예술감독 정두환 **지휘** 이동신 **음악코치** 김경미 **합창지휘** 김성복
출연 양송미, 양승엽, 우주호, 왕기현, 손혜은, 박나래, 채범석, 이우정, 강도호
연주 두레라움심포니오케스트라 **합창** 두레라움오페라합창단



완벽한 기교를 요구하는
벨칸토 아리아의 정수

콘서트 오페라
청교도(I Puritani)

11월 10일 수요일 오후 7:30
부산시민회관 대극장
R석 7만원, S석 5만원, A석 3만원
(재)부산문화회관 607-6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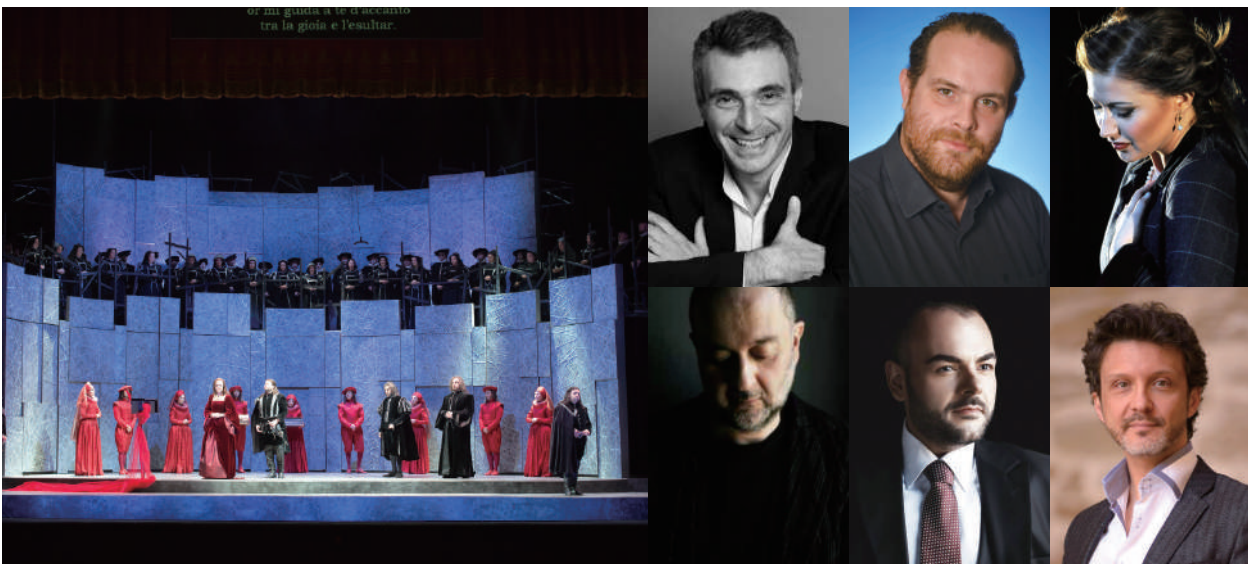


아름다운 선율과 넓은 음역대, 고난도의 기교가 특징인 벨리니의 벨칸토 오페라 ‘청교도’. 완벽에 가까운 기교를 요구하는 난이도 높은 오페라 중 하나이기에 자주 공연 되지 못하는 오페라 ‘청교도’를 이번 콘서트 오페라를 통해 만날 수 있다.

기품과 우아함을 간직한 아름다운 선율로 벨칸토 오페라의 거장으로 자리잡은 벨리니의 마지막 오페라인 ‘청교도’는 특히 ‘청교도 혁명’이라는 역사적인 사실에 픽션을 가미한 작품으로, 17세기 영국 왕당파와 청교도가 지지하는 의회파의 대립이라는 혼란스러운 상황 속에서 청교도 요새 성주의 딸 엘비라와 왕당파 기사 아르투로의 가슴 시린 사랑과 청교도 장교 리카르도의 질투, 그리고 그들을 지켜보는 엘비라의 숙부 조르지오까지 4명의 등장인물을 중심으로 극이 진행된다. 그러기에 이 작품은 성악가 4명의 완벽한 조화가 요구되는데, 벨칸토 오페라답게 가장 높은 음역대의 콜로라투라 소프라노가 맡는 엘비라 역은 물론이고 테너 아르투로, 바리톤 리카르도, 베이스 조르지오까지 콜로라투라의 테크닉과 극적인 표현력을 동시에 요구한다.

특히 이번 작품은 이탈리아 모데나교무날레극장의 2017년 작으로, 지휘는 크로아티아 자그레브 국립극장 오페라 감독으로 있는 마에스트로 마르첼로 모타델리가, 연출은 프란체스코 에스포지토가 맡았으며, 눈부신 색채감과 놀라운 음악성으로 오늘날 벨칸토 레퍼토리의 기준이 되고 있다는 호평을 받는 소프라노 데지레 란카토레(엘비라)와 최고의 리릭 테너 줄리오 펠리그라(아르투로), 그리고 유럽 전역을 누비며 활동하고 있는 엘리아 파비안(리카르도), 우고 팔리알도(조르지오)가 출연해 정통 이탈리아 오페라의 감동을 전해준다. 연주는 디오오케스트라, 합창은 위너오페라합창단.

지휘 마르첼로 모타델리 **연출** 프란체스코 에스포지토 **안무** 도메니코 이안노네
출연 줄리오 펠리그라, 데지레 란카토레, 엘리아 파비안, 우고 팔리알도, 주세피나 피운티
연주 디오오케스트라 **합창** 위너오페라합창단





가장 빛나는 장면,
잊을 수 없는 감동의 순간

부산오페라갈라

11월 17일 수요일 오후 7:30
 금정문화회관 금빛누리홀
 R석 5만원, S석 4만원, A석 2만원
 금정문화회관 519-5661~4



2021 부산오페라WEEK의 대미를 장식하는 ‘부산오페라갈라’에서는 오페라 속 가장 빛나는 장면, 잊을 수 없는 감동의 순간을 갈라 콘서트를 통해 관객들에게 전한다. 특히 긴 시간 동안 하나의 이야기로 진행되는 오페라 전막 무대가 아닌 익숙하고 흥미로운 대목만을 선보이는 무대인만큼 오페라 마니아는 물론 오페라가 낯선 관객들에게는 더욱 친숙하게 다가갈 수 있다.

이번 무대에서는 부산오페라하우스의 성공적인 건립을 기원하기 위해 국내외 최고 무대에서 활동하고 있는 최정상급 성악가들과 부산 출신 유망 성악가들이 한 무대에 선다. 한국 오페라계를 이끌어온 소프라노 김영미, 테너 김남두를 비롯해 부산을 대표하는 소프라노 김유섭, 바리톤 박대용과 국내외 오페라 무대에서 활약하고 있는 소프라노 서선영, 테너 신상근, 최원휘가 출연하며, 세계 주요 무대에서 부산을 빛내고 있는 부산 출신 소프라노 박소영, 테너 박승주, 베이스바리톤 우경식이 이번 무대를 통해 부산 관객과 첫 만남을 갖는다.

특히 이번 무대에서는 세계 오페라 무대에서 사랑 받는 다양한 오페라 아리아를 비롯해 100년 역사를 지닌 한국 가곡의 아름다움을 들려준다. 오페라 전문 지휘자 양진모가 지휘하는 부산로얄필하모니오케스트라 연주로 더욱 풍성한 무대를 선사한다.

지휘 양진모 **연주** 부산로얄필하모니오케스트라

출연 김영미, 김유섭, 서선영, 박소영, 김남두, 신상근, 최원휘, 박승주, 박대용, 우경식

문화의 힘은 미소(微笑)다

정두환 문화유목민, 음악평론가



가을이다. 늘 변화하는 계절이지만, 지난해부터 이어지는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인하여 주변 많은 것들이 긍정의 힘보다는 부정의 힘이 작용하는 듯하다. 무기력함으로 빠져드는 주변을 바라보며 유독 생각이 많아지는 가을을 맞이하고 있다. ‘코로나는 과연 극복될 수는 있을까?’, ‘코로나가 해결되면 또 다른 일들이 우리를 무기력한 일상으로 만들지 않을까?’ 등 막연한 불안감이 삶의 주변을 비롯하여 공연계를 강타하고 있기 때문이다.

계절이 변화하는 시기는 많은 예술가들이 새로운 일들을 계

획하며 많은 꿈과 희망에 부풀어 준비하고 발표하는 계절이지만, 절망이나 포기의 길로 점점 빠져드는 주변 예술인들이 많아지는 현실을 바라보면 필자라도 더욱 예술 동료들과 더불어 앞으로 나아가기를 희망하면서 더 많은 일을 꾸려가고 있다.

‘과연 우리에게 문화란 무엇이며, 왜 예술을 하는 것일까?’ 이 문제를 평생 가슴에 품고 예술 행위를 하는 필자는 ‘예술은 사람을 미소(微笑) 짓게 하는 행위다’라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예술은 앞으로 나아가는 자연스러움과 자유로운 속성을

가지고 있다. 우리는 과거의 소재와 현재를 바탕으로 미래를 고민하는 것이며, 지금의 상황을 기반으로 더 좋은 세상을 만들기 위한 것이기 때문이다. 때론 비판적이고 비판적인 소재를 사용할지라도 이는 더 좋은 세상을 위함이며, 긍정의 에너지를 만들기 위한 비판적 시각에서 일어나는 일인 것이다. 때문에 수 세기가 지난 예술을 현대에서는 새로운 각도로 분석하고 재조명하며 미래를 향한 걸음을 재촉한다. 예술가가 치열하게 자신과 투쟁하는 이유는 삶의 근본을 이야기한 결과물이 예술 행위로 표현되기에 어쩌면 예술문화는 사회의 물과 공기 같은 존재라고 필자는 생각한다.

모두가 힘들고 어려운 때 사람들의 얼굴을 미소짓게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 한 줄의 아름다운 글귀, 순간을 포착한 행복한 사진, 아이의 웃음, 아름다운 한 소설의 선율 등등... 다양한 것들이 있을 수 있다. 이러한 것들을 조합해 보면 현재의 시간을 이야기하기보단 과거의 추억을 떠올리며 미소짓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사람은 과거를 회상하며 현재를 살아가고, 이 현재를 바탕으로 미래를 설계하는 것이다. 결과적으로 현재의 긍정적 에너지는 과거의 힘과 미래의 희망에서 오는 것인데, 과거의 다양한 행복함이 미소의 바탕이 된다. 예술은 다양한 행복함을 만들어주는 힘이 있다. 이는 예술이 근본적으로 품고 있는 생각의 힘, 실천의 힘이다.

과거 필자의 학생 시절에는 음악회 가는 것이 아주 특별한 경험이었다. 그때 여학생들은 버스에 빈 의자가 있어도 자리에 앉지를 않고 음악회 프로그램을 팔에 끼고 서 있는 경우가 많았다. 어렴풋하지만 필자 생각에 여학생은 '적어도 나는 이러한 음악회를 다니는 사람'임을 자랑하듯 서 있었을 것이다. 시간이 흘러 어른이 된 지금 가끔 그때의 일들을 생각하면 필자도 모르게 입가에 미소가 지어진다. 이처럼 많은 사람들의 모습들이 모여 예술문화가 자라는 것이다.

코로나19의 상황은 언젠가는 어떤 모양으로든지 종결될 것이다. 하지만, 나의 행복은 미룰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늘 내

삶 곁에 나와 동행하는 것이다. 이러하기에 모든 예술인들과 시민들은 서로를 위하여 함께 적극적으로 예술의 향기를 나누었으면 한다. 혼자만 힘든 세상이 아니다 서로를 향해 나눌 수 있는 힘은 우리의 몸과 마음을 더욱 건강하게 만들어준다. 여기엔 생각하며 실천하는 조금의 여유만 있으면 가능하다. 서로를 동행자로 인정하여 주변을 한 번 돌아보고, 살펴보고, 어깨를 내밀 때 혼자만의 웃음이 아니라 함께 웃는 웃음이 피어난다. 혼자서 웃으면 한 송이의 행복이지만, 함께 웃으면 한 다발의 행복 에너지가 퍼진다. 서로의 얼굴에 미소를 찾을 수 있는 문화 활성화를 이번 가을에는 기대해보며, 다양한 장르의 예술 현장에 애호가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모두의 입가에서 미소가 피어나는 계절이 되길 희망한다.

행복은 강도(強度)가 아니라 빈도(頻度)에 의해서 이루어진다.



중세에 그린 메타버스

히나영 한국연구재단 연구교수

1 히에로니무스 보쉬, <쾌락의 동산>
1490-1510년 경, 패널에 유채, 384×205cm,
스페인 마드리드 프라도 미술관 소장

최근 가상의 세계의 의미로 ‘메타버스(Metaverse)’가 주목받고 있다. 일차적으로는 온라인상에 있는 가상적 공간을 의미하며, 각기 다른 세계관이 구현된 온라인 게임이나 SNS서비스 등의 형태를 가리킨다. 하지만 그저 가상 세계 속 규칙하에서 경쟁하거나 정보를 교류하는 것만이 아니라, 그 속에서 불특정 다수의 만남을 통한 제3의 가치가 형성되고 있다. 그것은 가상화폐를 기반으로 한 경제적 가치가 형성되기도 하고, 유명 팝스타들이 자신들의 팬들과 소통을 하기 위한 독특한 마케팅 방식이 되기도 하며 미술 전시나 음악 발표 등 문화적 장이 되기도 한다.

특별한 이벤트 외에도 많은 유저가 방문하는 몇몇 메타버스 안에는, 누구든 직접 자신의 건물을 짓거나 게임을 구성하고 옷을 디자인하고 음악을 올리는 등의 다양한 창작적 행위를 할 수 있다. 가령 자신이 원하는 공간을 만들기 위해 돌을 나르거나 건축을 배울 필요 없이도 PC나 모바일 기기만 있으면 쉽게 가상의 성을 만들 수 있다. 이러한 메타버스 세계는 온라인 공간에 있기에 오프라인의 현실 공간보다 더 손쉽고 적은 비용으로 자신을 표현하는 새로운 장이 된다. 그리고 자신을 표현하고 사람들과 교류하며,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고자 하는 인간의 욕망을 실현할 수 있는 또 하나의 세계인 것이다. 무엇보다 사회적 거리두기를 해야 하는 현실 점에서 현실을 극복할 수 있는 좋은 대안으로서 급부상하고 있다. 어쩌면 예상치 못한 많은 제약이 생긴 지금의 현실이 메타버스에 더 많은 사





1-1



1-2



1-3

- 1-1 왼쪽 패널 중, 아담과 이브
- 1-2 중간 패널 중
- 1-3 오른쪽 패널 중

람이 유입하게 하고 이전보다 활발한 교류가 이루어지게 된 원동력이 되었을지 모른다.

수수께끼 같은 세속화

오로지 기독교 신앙 안에서 살면서 개인의 욕망은 억제되어야 했던 중세 유럽도 많은 제약이 있었다. 대부분의 예술은 성경의 이야기나 기독교 신앙에 관련된 것이었고, 그러한 믿음을 증명하기 위한 높은 침탑의 성당이 유럽 곳곳에 건축되었다. 왕들은 자신보다는 종교적 신념을 보여주기 위한 예술을 후원하였다. 그렇지만 인간의 개별적인 욕망을 종교의 이름 아래에서라도 조금씩 드러내기도 하였다.

<쾌락의 정원> [도판 11]이라 불리는 플랑드르의 화가 히에로니무스 보쉬(Heronimus Bosch, 1450년경-1516)가 그린 수수께끼 같은 그림도 그 중 하나이다. 스페인의 프라도 미술관에 소장되어 있는 이 거대한 그림은 전형적인 제단화 형식인 세속화로 되어 있다. 세속화란 중앙의 판넬과 양 날개가 있는 형태로, 세 개의 장면이 연출된다. 왼쪽 날개에 아담과 이브가 있는 에덴동산과 같은 모습이 있고, 오른쪽 날개에는 기괴한 형상들이 있어서 지옥으로 유추되기도 한다. 사실 이 작품은 보쉬의 것 중 가장 난해하다고 알려져 있다. 실제 그 어디에서도 볼 수 없는 기괴한 형상들이 가득하고, 형상들 간에 어떠한 합리적인 해석도 되지 않는다. 그래서 지금까지도 학자들이 다양한 방식으로 읽어내고 있다. 다만 공통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은 인간의 쾌락을 인간과 동물, 그리고 설명할 수 없는 형상들로 표현했다는 것이다. 하지만 쾌락을 그저 죄로 보고 벌을 해야 하거나 선한 일에 대한 찬사를 해야 한다는 식의 명확한 메시지보다는 더 복합적으로 얽혀있다.

세 개의 패널에 각기 다른 공간이 펼쳐진다. 멀리에는 산이나 성, 어두운 도시 등의 풍경이 보이며, 그 앞으로 순차적으로 호수나 들판 혹은 알 수 없는 공간과 구조물들이 보인다. 각 장면을 간략하게 살펴보면, 왼쪽 날개에는 아담과 이브 그리고 신이 인간의 모습으로 등장한다. [도판 1-1] 그리고 나머지는 새와 물고기, 기린이나 코끼리 등 다양한 육지 동물들이 나무나 기괴한 구조물과 함께 표현되어 있다. 붉은 옷을 입은 신은 힘이 없는 이브의 한 손을 이끌고, 아담은 바닥에 앉아 신을 바라보고 있다. 아마도 이브를 창조한 후 아담에게 선보이는 장면일 것이다. 두 남녀가 옷을 벗고 있고 다른 사람 대신 동물로 가득하다는 점에서 에덴동산일 것이다.

이어서 중앙으로 눈을 돌려보면 셀 수 없이 수많은 인간이 누드의 모습으로 각 위치에서 다양한 행위를 하고 있다. 뭔가를 먹고 있고 영키면서 놀거나 위에 올라타고, 그리고 사랑을 구애하며 행위를 하는 등, 말 그대로 ‘쾌락’적인 행동을 하고 있다. [도판 1+2]

그리고 구조물이나 들판, 연못의 모양이 실제 풍경이나 건축과 하나도 닮은 구석이 없다. 다만 과일을 먹는 것, 나신의 남녀, 동물과 어우러지는 모습 등에서 이곳이 인간의 계율이나 에덴동산에서 추방된 이후 부끄러움을 알게 된 인간들의 모습은 아니다. 그보다는 더 원초적인 쾌락이 허락되는 곳, 그리고 자연과 함께하는 곳인 것이다. 그러한 점에서 이를 종교적으로 해석한다면, 모든 인간이 행복하게 아무런 근심이나 걱정없이 살 수 있는 천국을 그린 것이라 볼 수 있다. 하지만 식욕, 물욕, 육욕 등 다양한 쾌락

을 탐한다는 점에서, 세속적이기도 하다. 더구나 신의 세계를 표현할 때 전형적으로 등장하는 신이나 비둘기, 천사 등의 모습이 없기 때문에, 적어도 중세적인 사고에서는 기독교의 도상으로 읽기엔 무리가 있다. 이러한 해석의 어려움은 오른쪽 날개의 장면에서도 마찬가지다.

멀리 있는 풍경은 오른쪽 장면이 그나마 가장 현실적이긴 하다. 어두운 밤 크고 작은 건물에서 빛이 새어 나오고 있는 듯한 모습이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이내 중간부터는 중앙 패널보다 더 기괴한 형상들이 이어진다. 거대한 귀에 탄 검은 옷을 입은 인간은 그 밑에 깔린 인간을 잡아 올리고 있고 그 뒤로는 불이 타오르는 위로 사다리를 타고 내려오는 인간, 악마와 같은 생물들에게 결박되어 있기도 하다. 그리고 중앙에는 인간의 얼굴을 하고 있지만 머리 위에는 피리와 같이 주둥이가 달린 과일과 인간을 끌고 다



2 히에로니무스 보쉬, <쾌락의 동산> 바깥 패널, 1490-1510년 경, 패널에 유채, 192×205cm, 스페인 마드리드 프라도 미술관 소장

니는 이상한 생명체들이 있고, 비어있는 몸통 안에도 사람들이 있다.^[도판 1-3] 그리고 앞에는 악기의 부분들로 이루어진 구조물에서 사람들이 괴롭힘을 당하고 있고, 그 사이로는 아름답기보다는 끔찍한 형체들이 가득 차 있다. 그래서 오른쪽 날개를 중앙에서 즐긴 쾌락에 대한 별을 받는 지옥으로 보기도 한다.

너무나 신비스러운 요소들이 많아서, 보쉬가 당시에 비밀스러운 종교적 조직에 가입을 했었다는 설도 있지만, 기록상으로는 어떠한 증거도 없다. 하다못해 작가가 쓴 노트나 메모, 혹은 증언도 남아있는 것이 없다. 다만 분명한 것은 보쉬가 보는 세상이 다른 사람들과 달랐다는 점이다.

새로운 세계에 대한 욕망의 표현

기독교적 믿음을 담은 그림으로 그려야 했던 중세였지만, 보쉬의 작품 속 이미지는 설명이 힘들다. 그 정체를 알기도 힘들지만 어떻게 이렇듯 다양한 형체들이 기괴한 상황에 있는 지를 상상해내는 것조차 쉽지 않아 보인다. 새의 부리를 가진 사람, 엉덩이에서 나오는 꽃, 과일이나 조개 속에 들어가 있는 사람 등을 상상하고 그렸다는 것은 그저 붓을 쥐다고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다만 보쉬가 그림을 그렸을 당시 유럽에는 새로운 세상에 대한 호기심이 폭발하기 시작한 때라는 점을 참고해볼 수 있다.

콜럼버스와 마젤란 등 많은 탐험가가 배가 닿은 곳에서 진귀한 새와 동물들 그리고 사람을 데려왔다. 실제 보쉬의 <쾌락의 정원>에도 신비한 동물들과 함께 짙은 검은 색의 흑인 역시 등장한다. 보쉬가 살았던 플랑드르 역시 무역을 했던 곳이고, 당시 인쇄술이 발달하면서 유럽 전역의 다양한 소식들과 진귀한 이미지들이 유통되고 있었다. 그러한 만큼 보쉬가 새로운 세계를 동경하고 그렇게 접한 처음 보는 생명들을 표현하고자

했을 것이다.

더불어 이 패널의 양날개를 닫았을 때 보이는 투명한 구 속의 지구와 이 땅을 창조하는 신의 모습을 표현하면서 적은 글귀는 보쉬가 새로운 세계에 대한 ‘창조’에도 관심을 가졌음을 짐작할 수 있다. 화려했던 안쪽 장면과 다르게, 바깥쪽 패널에는 푸른색이 도는 회색조로 표현되어 있다. 우리가 아는 둥근 지구의 모습이 아니라, 당시 중세인들이 알고 있는 평평한 땅과 구 형태의 하늘로 마치 스노우볼 같다.^[도판 2] 창조주는 천개 바깥에서 지구를 내려다보고 있으며, 그 옆으로 두 패널에 나뉘서 문구가 써 있다. 이는 시편 33편에서 인용한 것으로 “그가 말씀하시매 이루어졌으며 명령하시매 견고히 섰도다(Ipse dixit, et facta sunt: ipse mandávit, et create sunt)”이다.

우리는 안쪽 패널을 먼저 보았지만, 이 작품이 설치되었을 때는 바깥 패널을 본 후에 양 날개를 열면서 내부를 보게 된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신이 세상을 창조한 이야기로 시작되며, 그 안에 새롭게 창조된 화려한 세상이 나타난다. 그만큼 보쉬는 인간이 아직 모르는 것이 많다고 상상했는지 모른다. 그것이 천국인지 지옥인지는 알 수 없지만, 유럽만이 세상의 전부가 아니라 상상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이 지구상 어디엔가는 있을 수 있다는 생각을 보쉬는 이렇듯 그림에 담고 있다.

현실을 넘은 상상을 그림으로 보쉬가 표현했지만, 최근 디지털 세상 속에서는 더욱 쉽고 간단하게 나만의 세상을 만들 수 있고, 그 속에서 사람들과 소통하기도 한다. 또 다른 세상, 즉 메타버스라 불리는 이 새로운 세상 속에서 보쉬가 꿈꿨던 물리적 공간에서의 해방과 표현의 자유가 가능할 것이다. 또한 이 밖의 다양한 디지털 도구들을 통해, 자신만의 세상을 창조하는 더 많은 보쉬가 등장하고 있고, 앞으로도 더 많은 새로운 세상이 탄생할 것이라 기대된다.

※ 본 글은 하나영의 <다시 쓰는 착한 미술사>(타인의 사유, 2021) 중 일부를 발췌, 수정한 것입니다.

부산사람 김정한의 삶을 담다

부산문학관

박나무 자유기고가



“사람답게 살아가라. 비록 고통스러울지라도 불의에 타협한다든가 굴복해서는 안된다. 그것은 사람이 갈 길은 아니다” 요산 김정han 선생과 늘 짝처럼 붙어다니는 이 문구는 그의 소설 <산거족>에 나오는 말이다. 주인공 황거칠이 일제에 저항하던 할아버지와 아버지의 가르침을 되뇌는 건데, 고상한 서당이나 엄중한 재판정에서 나오는 말이 아니다. 산중에 거주하는 사람들이 마실 물을 얻기 위해 만든 샘을 지키고 뺏기는 과정이 거친 언어로 그려지는 와중에 등장한다. 사람답게 산다는 것이 말처럼 멋지고 폼나는 게 아니다. 사람답게 산다는 건 두 발 붙인 땅에서 뒹굴며 싸우는 일이고, 마실 물을 찾기 위해 목마름을 참는 고통이며, 밥그릇을 걷어차는 이들을 향한 삿대질과 연대의 몸부림이다.

금정구 남산동에 자리한 요산문학관. 요산 김정han 선생의 생가를 복원하고, 자료실과 전시실, 창작실로 꾸며진 공간으로 부산에서 태어나 부산에서 활동하다 부산에서 돌아가신 요산의 생애가 고스란히 담겨있다. 김정han 선생의 육필원고가 작품별로 보존되어 있고, 또 그이가 직접 만든 낱말카드가 도서관의 분류카드처럼 서랍 속에 빼곡이 들어차있다. 변변한 우리말사전이 없을 때부터 차곡차곡 모아온 단어의 보물창고인 셈이다. 또 하나 눈길을 끄는 것은 그이가 직접 그리고 설명한 식물도감이





요산문학관은 부산에서 태어나 부산에서 활동하다 부산에서 돌아가신 요산 김정환 선생의 생애가 고스란히 담겨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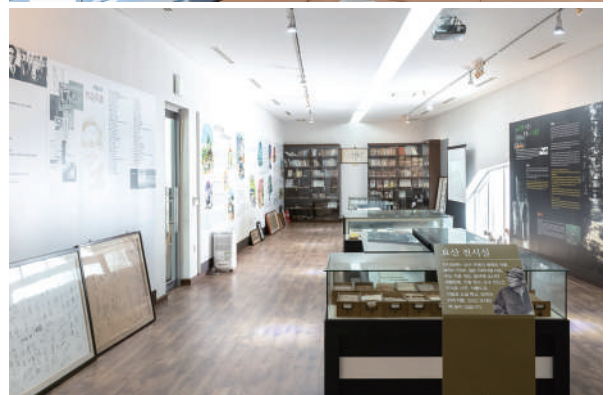
다. 모든 풀과 꽃에는 이름이 있고 그 이름으로 불리워져야 한다고 말했던 그가 살면서 가장 듣기 거북하다 했던 말이 '이름없는 들꽃'이란. 작가의 덕목은 이렇듯 작고 약한 것에 대한 애정과 호명이 아니었을까 싶다. 늘 힘들게 일하지만 빼앗기고 나면 남는게 없는 소작농민들, 가부장제와 가난과 강제동원에 고통받는 여성들, 아프고 힘들지만 치료받을 길 없는 병자들..., 그들이 바로 우리 민족이고 선대들이다.

숲으로 창을 낸 길쭉한 공간은 도서관이다. 김정환 선생이 생전에 소장하던 책들이 그대로 꽂혀있다. 표지가 바스러질 것 같은 어린 시절 책부터 선생의 숨결과 함께했을 책들이 가득한 공간에 있다 보면 할아버지의 서재에 들어온 기분이다. 고은, 강은교, 김남주, 김용택, 양성우... 당대의 내로라 하는 작가들이 선생에게 받아 간직하여 달라며 준 초판본들이 가득하다. 책갈피 사이에 간혹 보이는 편지가 내밀한 사연을 담고 있지 않을까 가슴이 콩닥거리기도 한다. 할아버지가 내게 물려준 것이 숫자로 세기 힘든 재물이 아니라, 실천하기에 버겁기만한 가르침뿐이라면 얼마나 갑갑할까 싶었는데, 천장까지 가득한 책들에게서 비로서 마음이 풀린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 할아버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도 살 수 있지 싶다. 작가의 서재에 앉아서 그가 돋보기를 끼고 차근 차근 넘겼을 책장을 나도 만지고 있자니, 생전에 마주하지 못한 그와 깊은 공감대가 생긴 것 같다. 이 도서관은 출입과 보안이 더 까다로워지기 전에 꼭 들어가서 찬찬히 둘러봐야 할

요산문학관의 보물같은 곳이다.

요산문학관은 사단법인 요산기념사업회가 2006년 만들어내고, 요산선생을 기념하는 각종 사업과 아카이빙을 실현하는 거점이다. 매년 10월은 요산문학축전이 열리는 달이고, 올해는 “변종들아, 썩~ 물렀거라”는 이름으로 10월 23일 토요일부터 일주일간 열린다. 같은 이름의 소설을 원작으로 한 연극 <회나 못골 사람들>이 극단 일터에 의해 공연될 것이고, 요산의 흔적을 찾아본 독후감과 사진들을 온라인을 통해 받고, 시상될 예정이다. 문학콘서트가 시내의 서점에서 열리고, 요산김정한문학상이 요산정신에 걸맞는 작품활동을 한 기성작가에게 주어진다. <토지공개념의 현실화와 한국문학의 도정>이라는 이름의 심포지엄도 열린다. 그의 작품에서 가진 자와 빼앗기는 자의 중심에는 토지의 사유화라는 갈등구조가 자리하고 있음이 언급되지 않을까 짐작해본다. 역병이 좀체 사그라들지 않음에도 기념사업회가 굴하지 않고 잔치를 벌여주는 것이 고맙다. 시민들이 요산문학관의 문턱을 밟아주었으면 좋겠다.

- 운영시간/오전 10:00~오후 5:00(월요일/국경일 휴관)
- 문의/요산문학관 051-515-1655, www.yosan.co.kr



INVITATION TO THE ARTS

가온아트홀	1600-1601
경성대학교 콘서트홀	663-5361
공간소극장	611-8518
국립부산국악원	811-0114
글로벌아트홀	505-5995
금정문화회관	519-5651
동래문화회관	550-6611
레몬트리소극장	626-0116
무대공감 전용극장	623-0678
무지크바움	070-7692-0747
부산메트로홀	1600-0316
부산광역시 학생예술문화회관	366-8114
부산문화회관	607-6000
부산북구문화빙상센터	309-4681
부산민주공원	790-7400
부산시민회관	630-5200
부산예술회관	612-1372
성원아트홀	1899-5435
센텀시티 소향씨어터	950-6500
소극장 6번출구	625-2117
소민아트센터	991-2200
수아트홀	744-1415
신명천지소극장	515-7314
스페이스 움	557-3369
액터스소극장	611-6616
에저포소극장	852-9161
열린아트홀	527-0123
영도문화예술회관	419-5561
영화의전당	780-6000
용천지랄소극장	625-0767
을숙도문화회관	220-5812
일터소극장	635-5370
차성아트홀	728-0993
청춘나비소극장	070-8241-2560
초콜릿팩토리	621-4005
축제소극장	070-4211-8879
한결아트홀	1588-9155
해운대문화회관	749-7651
효로민락소극장	623-6232
AN아트홀 서면	070-4175-9035
BEXCO 오디토리움	740-7369
BNK부산은행조은극장	1588-2757
KBS부산홀	620-7181
MBC롯데아트홀	760-1177
SM아트홀	1600-1602

부산시립청소년교향악단 특별연주회

Poco a poco:점점



- 올 한해 후기 고전주의와 낭만주의, 그리고 근대에 이르는 대표적인 작곡가들의 명곡을 소개해온 부산시립청소년교향악단이 깊어가는 가을을 맞아 단원들의 협연무대로 꾸미는 특별한 무대를 선사한다.

수석지휘자 이명근이 지휘하는 이번 무대에서는 현대음악 초기의 거장이자 바그너 이후 서양 음악계에 가장 많은 영향력을 끼쳤다고 평가받는 러시아계 미국 작곡가 스트라빈스키를 비롯해 독일의 작곡가이자 첼리스트로 활동했던 단치, '바이올린의 쇼팽'이라 불리었던 폴란드의 바이올리니스트이자 작곡가 비에니아프스키, 낭만주의 시대에 활동한 체코 작곡가 드보르자크와 러시아 작곡가 차이콥스키까지 다채로운 프로그램으로 관객과 만난다. 특히 이번 무대에서는 부산시립청소년교향악단 단원 김공빈, 이수빈, 문예빈, 성아란이 협연자로 출연, 열정적인 무대를 펼친다.

첫 곡으로는 단원들에게 챔버 앙상블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스트라빈스키의 체임버 오케스트라를 위한 협주곡 '덤바턴 오스크'를 들려준다. 스트라빈스키가 미국여행 중 만난 부호 블리스 부부의 결혼 30주년을 기념해 작곡된 '덤바턴 오

스크'는 바로크 시대의 콘체르토 그로소(합주협주곡) 스타일을 취하고 있어 현대판 브란덴부르크 협주곡이라 불리기도 한다. 곡 제목인 '덤바턴 오스크'는 이들 부부가 살던 저택의 이름으로, 저택 내에는 음악회가 항상 열리던 뮤직룸이 있었는데, 바로 이 뮤직룸에서 연주될 작품으로 작곡된 곡이다. 이어서는 단원들의 협연무대로, 클라리네티스트 김공빈과 바수니스트 이수빈이 단치의 '클라리넷과 바순을 위한 소협주곡' 중 제1악장을 들려주며, 바이올리니스트 문예빈이 비에니아프스키의 '바이올린 협주곡 제2번' 중 3악장, 그리고 첼리스트 성아란이 드보르자크의 '첼로 협주곡' 중 제1악장을 차례로 들려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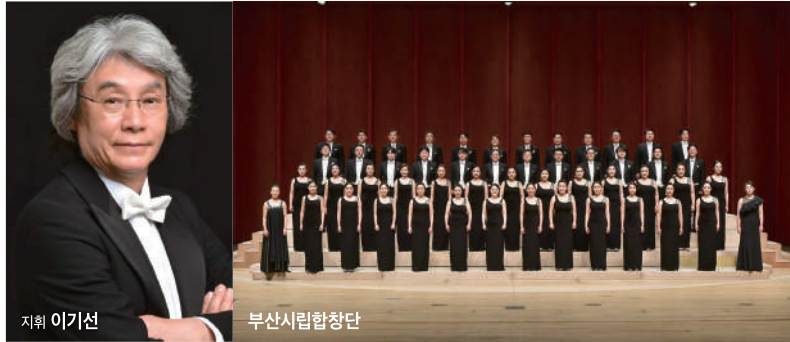
마지막 무대에서는 차이콥스키가 남긴 6개의 교향곡 중 가장 드라마틱한 작품으로 꼽히는 '교향곡 제4번'이 연주된다. 차이콥스키 스스로도 '내가 작곡한 작품 중 최고'라며 애정을 드러낸 '교향곡 제4번'은 당시 그가 겪은 고뇌를 반영한 작품으로, 운명의 공포로부터 고뇌하며 방황하는 인간의 모습을 담고 있다.

일 시 10월 6일 수요일 오후 7:30 장 소 부산문화회관 대극장

입장료 전석 2천원

문 의 (재)부산문화회관 607-6000

부산시립합창단 제183회 정기연주회 현대 합창 거장들의 합창세계



지휘 이기선

부산시립합창단

- **국내에서는 쉽게 연주되지 않는 현대합창곡을 소개하는 부산시립합창단의 특별한 무대 '현대 합창 거장들의 합창 세계'가 10월 7일 부산문화회관 대극장에서 펼쳐진다.**

이번 무대는 '깊이있는 음악, 작곡가의 의도를 정확히 표현하는 지휘자'로 알려진 이기선 지휘자가 부산시립합창단 예술감독으로 취임한 후 의욕적으로 선보여온 해설이 있는 현대 합창시리즈 세 번째 무대로, 그동안 두차례의 공연을 통해 합창애호가들의 많은 관심을 받아왔다.

예술감독 이기선의 지휘로 열리는 이번 무대에서는 부산시립합창단만의 차별화된 선곡으로 1부 외국 작곡가에 이어 2부에서는 한국 작곡가의 현대합창곡을 들려준다. 특히 이번 무대는 대규모 합창곡이 아닌 고도의 균형과 집중력을 요하는 소규모 합창곡으로 부산시립합창단만의 깊고 넓은 음악적 울림을 만날 수 있으며, 부산을 중심으로 활동하는 지역의 연주자들이 출연, 지역 예술인들과의 협업무대를 기대할 수 있다.

1부 무대에서는 미국 음악계의 주요 요직을 거친 미국의 교육자이자 행정가, 작곡가인 윌리엄 슈먼(William Schuman)의 'Prelude for Voices'를 시작으로 노르웨이 출신의 현대 작곡

가로 전 세계적인 명성을 떨치고 있는 올라 야일로(Ola Gjeilo)의 'The Lake Isle', 'Tundra', 중미의 섬나라인 아이티 공화국 출신의 작곡가 시드니 기욤(Sydney Guillaume)의 'Kalinda', 화려한 화성과 리드미컬한 흐름이 돋보이는 댄 데이비슨(Dan Davison)의 'Ritmo', 제81회 아카데미영화상 최우수주제가상을 받은 영화 '슬럼독 밀리어네어'의 주제곡 'Jai Ho'를 들려준다. 이번 무대에서는 바이올리니스트 신효은, 이소정, 비올리스트 천재현, 첼리스트 이시은, 기타리스트 김경태, 퍼커셔니스트 김영훈, 조영진이 출연, 합창과 어우러지는 연주로 풍성한 무대를 선사한다.

2부에서는 우리네 어머니의 다듬이질을 통해 사계절의 변화를 음악적으로 표현한 손정훈 곡 '다듬이'와 원주시립합창단 지휘자로 있는 작곡가 정남규의 대표곡 중 한국인 '등대', 한국적 해석의미를 느낄 수 있는 이순교 곡 '술 취한 모란꽃'과 진한서 작, 편곡의 '정선아리랑'으로 평소 무대에서는 잘 만날 수 없는 현대 합창곡의 매력을 전해준다.

일 시 10월 7일 목요일 오후 7:30 **장 소** 부산문화회관 대극장

입장료 전석 1만원(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30% 할인)

문의 (재)부산문화회관 607-6000

2021 동아시아문화도시 희망의 메시지 on Live



- 지난 2018년 부산에서 열렸던 ‘동아시아문화도시’ 후속사업으로 열리는 ‘2021 동아시아문화도시 희망의 메시지 on Live’가 10월 8일과 9일 이틀간 부산문화회관 대극장에서 펼쳐진다.

‘동아시아문화도시’는 한·중·일 3국의 오랜 갈등과 반목을 도시 간 문화교류와 협력을 통해 해소해 나가기 위해 지난 2014년부터 매년 각국의 문화적 전통을 대표하는 도시 한 곳을 선정해 열리는 국제적 문화행사로, 첫 해인 2014년에는 광주(한국)·취안저우(중국)·요코하마(일본)가, 2021년 올해는 순천, 소흥·둔황, 기타큐슈가 선정됐다. 부산은 지난 2018년 중국 허얼빈, 일본 가나자와와 함께 선정되어 각 도시별 개막행사를 시작으로 일년간 동아시아 평화콘서트, 동아시아 전통거리예술제, 영화로 보는 동아시아, 동아시아 국제 레지던시 사업, 동아시아 청년 글로벌 캠프 등 다양한 행사를 통해 한·중·일 3국간의 우호협력을 다지기도 했다.

올해 열리는 ‘2021 동아시아문화도시 희망의 메시지 on Live’는 부산시가 ‘2018 동아시아문화도시’에 참여했던 하얼빈, 가나자와와 함께 지속적인 문화예술 교류를 이어가기 위해 매년

개최해오고 있는 행사로, 지난 2019년에는 ‘동아시아 문화의 숲’을 통해 3국의 문화를 느끼고 체험하는 시민 참여형 축제로 열렸으며 지난해는 코로나19로 행사가 취소된 바 있다.

이번 ‘2021 동아시아문화도시 희망의 메시지 on Live’에서는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과 부산시립무용단, 부산시립합창단 등 부산시립예술단 3개 단체가 출연하는 합동 문화공연이 펼쳐진다. 첫날인 10월 8일에는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 부산시립무용단과 더불어 한국무용가 국수호, 배정혜, 발레리나 김주원, 사물광대, 젊은소리 쟁이가 출연, 국악과 춤이 어우러지는 전통 및 창작무대, 각국의 민요로 한·중·일 3국의 문화와 정서를 만날 수 있다. 이틀날인 9일에는 부산시립합창단과 UKO오케스트라, 소프라노 김순영, 오신영, 테너 윤정수, 피아니스트 하순원이 출연, 우리 귀에 친숙한 오페라 아리아 및 뮤지컬 합창곡으로 희망의 메시지를 전한다. 행사기간 동안 야외광장에서는 퓨전국악과 변검술 등 각국을 대표하는 다양한 문화예술 공연이 펼쳐질 예정이다.

특히 이번 무대는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희망의 메시지를 담아 유튜브 생중계를 통해 실시간 송출되며, 하얼빈과 가나자와에서 준비한 공연 녹화물이 함께 상영될 예정이다.

일 시 10월 8일 금요일 오후 7:30, 9일 토요일 오후 5:00 장 소 부산문화회관 대극장

입장료 초대

문의 (재)부산문화회관 607-6000

(재)부산문화회관 기획공연 뮤지컬 전설의 리틀 농구단



● **꿈꾸는 청춘들의 치열한 농구 한 판, 대학로 흥행 뮤지컬 '전설의 리틀 농구단'이 부산을 찾는다.**

반에서는 왕따, 집에서는 외톨이인 고등학생 수현과 그 주변 인물들을 통해 자살, 학업 스트레스, 학교 폭력 등의 문제를 따스하게 담아낸 '전설의 리틀 농구단'은 지난 공연 당시 유료 점유율 80%, 2019년 제8회 예그린 뮤지컬 어워드 안무상 수상까지 스포츠 소재 뮤지컬로서는 유례없는 성공을 거둔 작품이다.

특이하게도 이 작품은 2016년 한국예술종합학교 재학생들의 작품을 선보이는 창작플랫폼 페스티벌에서 첫 선을 보였다. 당시 안산문화예술의전당 프로듀서가 이 작품의 가능성을 보고 지원을 결정하면서 그해 말, 안산문화예술의전당 무대에 오르게 되고 관객들의 호평을 받았다. 이듬해 중국에서 열린 베세토연극제에 공식 초청받은 데 이어 2018년에는 대학로에 첫 입성하게 되고 더불어 '방방곡곡 문화공감 사업'으로 전국 5개 지역 투어를 성공적으로 마쳤다. 특히 '전설의 리틀 농구단'은 2019년부터는 민간제작사의 손을 거치게 되면서 작품의 완성도와 인지도를 높일 수 있었는데 이는 한국에서 공공극장이 제작한 창작물을 민간 제작사에서 건네받아 레퍼토리로 만든

첫 사례로 당시 큰 화제가 되기도 했다.

'전설의 리틀 농구단'에서는 평범해서 주목받지 못한 인생들이 나온다. 주인공인 17살 수현은 학교에서는 왕따 찌질이, 집에서는 투명 인간이다. 친구들의 괴롭힘을 피해 학교 주위를 맴돌다 붙겨진 교실 창문 밖으로 몸을 던진다. 수현은 멀쩡하게 깨어나지만 대신 학교를 맴도는 귀신 3총사를 보게 된다. 15년 동안 학교를 떠돌던 귀신들은 일거수일투족 수현을 쫓아다니며 소원을 들어달라 괴롭히고 결국 수현은 종우가 코치로 있는 폐지 직전의 구청 농구단에서 구청 배 리틀 농구대회에 참가하기 위한 고군분투 훈련을 시작하게 된다.

특히 '전설의 리틀 농구단'은 재미와 감동을 동시에 이끌어 낸 스토리에서부터 박진감 넘치는 농구 기술과 안무의 접목, 그리고 OST까지 발매될 정도로 많은 사랑을 받은 넘버 등 그동안 대한민국 젊은 창작 뮤지컬의 성공 사례로 손꼽히며 많은 사랑을 받아왔다. 이번 시즌무대에서는 새로운 넘버 추가와 캐릭터 보완 작업을 통해 7명의 기존 배역을 6명으로 줄이고 실력 있는 신인 배우를 대거 캐스팅해 작품 내외적으로 변화를 시도했으며, 기존 작품이 가진 유쾌한 면에 박진감 넘치는 전개와 연출을 보다더해 완성도 높은 공연을 선보인다.

일 시 10월 9일 토요일 오후 2:00, 6:00 **장 소** 부산문화회관 중극장

입장료 R석 3만원, S석 2만원(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30% 할인)

문의 (재)부산문화회관 607-6000(ARS 1번)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 제212회 정기연주회 명인·명창·명기의 무대



● **최고의 열정, 예술혼으로 일가를 이룬 지역의 예술인들과 함께하는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 정기연주회 '명인·명창·명기의 무대'가 10월 21일 부산문화회관 중극장에서 펼쳐진다.**

지난해에 이어 두 번째로 열리는 이번 무대는 부산과 경남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지역의 명기, 명창을 한자리에서 만날 수 있는 특별한 무대로, 특히 올해는 박성희, 정선희(판소리), 송영남, 하지희(가야금), 김경수(태평소) 등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이 배출한 대통령상 수상자 다섯 명이 출연, 부산이 자랑하는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의 역량과 예술적 품격을 확인할 수 있다.

김종욱 수석지휘자가 지휘하는 이번 무대의 첫 주자는 제8회 김해가야금대회에서 대통령상을 수상한 가야금주자 송영남으로, '김병호류 가야금산조'를 들려준다. 부산대학교 한국음악학과 및 동대학원을 졸업한 송영남은 현재 가야금양상블 동인으로도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제25회 고령 전국우륵가야금경연대회에서 대통령상을 수상한 가야금주자 하지희는 25현 가야금과 국악관현악을 위한 협주곡 '바람과 바

다'(김성국 곡)을 들려준다. 하지희는 한국예술종합학교 전통예술원 예술사 및 전문사, 부산대학교 음악학 박사를 취득하고 현재 부산대학교, 부산예술고등학교 강사로도 활동하고 있다.

이어지는 무대는 전국승달국악대제전과 제42회 부산동래 전통예술경연대회에서 각각 대통령상을 수상한 소리꾼 정선희와 태평소주자 김경수가 무대에 선다. (사)정정렬제 최승희 판소리 보존회 부산지회장, 소리집단 '고성방가(古聲訪家)' 대표로 있는 정선희는 판소리 협주곡 '자룡, 만경창파를 가르다'(박상우 곡)를, 부산대학교 한국음악학과 및 동대학원 석·박사과정을 졸업하고 중앙대학교 음악학과에서 지휘를 전공한 김경수는 태평소산조 협주곡 'Sol'(이정호 곡)를 들려준다.

이번 무대의 마지막은 제12회 장흥 전통 가무악 전국제전에서 대통령상을 수상한 소리꾼 박성희의 무대로 마련된다. 판소리 '흥보가', '수궁가', '심청가', '미산제 수궁가' 완창무대를 가지고 제17회 전주세계소리축제 '판소리 5바탕'에 선정된 바 있는 박성희는 이번 무대에서 판소리 협주곡 '수궁가' 중 '가자 가자 어서 가자'(김희조 곡)를 들려준다.

일 시 10월 21일 목요일 오후 7:30 **장 소** 부산문화회관 중극장
입장료 R석(1층) 1만원, S석(2층) 5천원(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30% 할인)
문의 (재) 부산문화회관 607-6000

2021 제13회 부산월드필하모닉오케스트라(BWPO) 더 클래식, 아시아의 창(窓) 부산



- 국내외 음악인들이 만들어낸 꿈의 하모니 ‘더 클래식 아시아의 창(窓) 부산’이 10월 21일 부산시민회관 대극장에서 펼쳐진다.

부산월드필하모닉오케스트라(BWPO)가 지난 2009년 클래식 음악을 통해 부산을 알리고, 부산이 세계음악의 중심지가 되는 무대가 되고자 기획된 ‘더 클래식, 아시아의 창 부산’은 지난 13년 동안 다양한 음악적 시도로, 부산의 정체성을 되새기고 음악적 성장을 도모하는 좋은 창(窓)이 되었다는 호평을 받아왔다. 유럽과 미국, 러시아 등 세계무대에서 활동하고 있는 부산, 경남 출신의 연주자들을 중심으로 결성된 부산월드필하모닉오케스트라는 그동안 세계 무대에서 활동하고 있는 아티스트들과 국내 음악인들의 교류를 통해 우수한 음악적 역량을 국내외에 널리 알리는 한편, 지역 문화발전과 예술의 저변확대를 위해 다양한 활동을 펼쳐왔다.

이번 무대에서는 지난해에 이어 한국을 대표하는 지휘자 정치용이 지휘하고 현재 가장 인기있는 젊은 피아니스트로 명성을 얻고있는 피아니스트 문지영의 협연으로 가을의 서정과 너무나 어울리는 슈만의 ‘피아노협주곡 작품 54’와 라흐마니노

프 ‘교향곡 제2번’을 들려준다.

뛰어난 바톤 테크닉과 곡의 핵심을 정확하게 파악해내는 통찰력있고 깊이있는 지휘로 단원들을 이끌어가는 지휘자 정치용은 창원시립교향악단, 서울시립교향악단, 인천시립교향악단 상임지휘자를 역임하고 관현악, 오페라, 발레 등 음악전반에 걸쳐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정치용은 세계적인 작곡가 윤이상 작품의 국내 초연을 가장 많이 한 지휘자로도 유명하며, 현재는 한국예술종합학교 음악원 교수로 있으며 2018년부터 코리아심포니 예술감독으로 자신의 음악세계를 펼쳐 오고 있다.

피아노 협연을 맡은 문지영은 2015년 한국인 최초로 우승한 부조니 국제콩쿠르에서 ‘이 시대에서는 사라졌다고 생각했던 음악성의 자연스러움을 그녀에게서 발견했다’는 심사위원장의 호평으로도 유명하다. 콩쿠르 수상 후 수많은 국내외 무대에서 리사이틀 및 오케스트라와 협연을 가져온 문지영은 이번 공연에서 자신이 가장 사랑하는 작곡가 중 한명이라는 슈만의 ‘피아노협주곡’을 들려준다.

이번 무대는 공연장을 찾기 힘든 시민들을 위해 유튜브채널 ‘KNN 클래식’을 통해 온라인 실시간으로 중계 방송된다.

일 시 10월 21일 목요일 오후 7:30 **장 소** 부산시민회관 대극장

입장료 초대(KNN 홈페이지를 통해 초대권 신청)

문의 KNN 850-9568

(재)부산문화회관 기획공연 연극 흑백다방



- 20년만에 만난 가해자와 피해자의 숨 막히는 심리게임을 그린 연극 '흑백다방'이 부산 관객들과 첫 만남을 갖는다.

부산 남포동을 배경으로, 1980년대 민주화시절 발생한 가해자와 피해자의 관계를 그린 '흑백다방'은 지난 2014년 초연된 후 다양한 무대를 통해 '2인극 특유의 뜨거운 에너지와 집중력을 지탱하는 배우들의 훌륭한 열연, 섬세하고 절제된 차현석 작가의 연출이 어우러진 탁월한 작품. 마지막 조명이 꺼졌을 때, 어떤 노래 하나를 나도 모르게 흥얼거리게 된다. 벅찬 감정으로(영화감독 봉준호), '공연을 보고 있으면 이 곳이 에든버러의 극장이라는 것을 잊게 된다(Victoria Chen, 에든버러 리뷰)' 등 평단, 관객으로부터 많은 호평을 받아왔다.

연극 '흑백다방'은 오래된 다방을 운영하며 손님들의 심리상담을 하는 남자와 그 남자를 찾아온 남자, 두 남자의 이야기로 시작된다. 가해자를 20년 만에 찾아온 피해자는 서로의 아픈 기억을 들추며 진실 공방을 벌인다. 단순한 가해자와 피해자로 시작된 이 둘의 이야기는 우리 시대의 아픔으로 나아가며, 한 순간도 눈 돌릴 틈 없이 꽉 채운 무대를 선보인다. 특히 이 작품은 우리 시대의 아픔과 분노의 균상을 위안

과 용서, 화해로 이끌어 내는 극적 연출력으로 호평을 받았다. 2014년 2인극 페스티벌 작품상·연기상·희곡상을 시작으로 2015 제2회 서울연극인대상 우수작품상·연기상, 2015 일본 타이니 알리스 페스티벌 특별상, 2015 밀양여름연극축제 연기상, 2016 한국 국제 2인극 페스티벌 베스트 작가상·베스트 연기상, 2018 한국 국제 2인극 페스티벌 작품상·연출상·프로듀서상 등 각종 연극제에서 상을 휩쓸었으며 미국, 영국, 일본, 터키 등 전 세계를 순회하며 영어와 일본어로 현지 배우들과 함께 관객들과 만나왔다. 특히 2016년부터는 영국 에든버러 축제 '코리아 시즌'에 초청받아 영국 배우들과 함께 무대에서 서면서 '흑백다방'의 영어버전인 'Black and White Tea Room - Counsellor'는 현지 관객들과 평론가들에게 큰 찬사를 받았다.

이번 무대에서는 무대와 스크린을 넘나들며 오랜 시간 연기 인생을 걸은 명불허전 배우 김명곤이 다방주인 역으로 강렬한 인상과 밀도 있는 연기를 선사한다. 김명곤과 함께 팽팽한 연기대결을 펼칠 손님 역은 '흑백다방' 초연부터 함께 하며 각종 연기상을 거머쥔 믿고 보는 배우 윤상호가 맡아 극의 물 입을 극대화시킨다.

일 시 10월 23일-24일 토-일요일 오후 3:00 **장 소** 부산시민회관 소극장

입장료 R석 4만원, S석 3만원, A석 2만원(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30% 할인)

문의 (재)부산문화회관 607-6000

(재)부산문화회관 기획공연 클라라 주미 강&김선욱 듀오 리사이틀



- **국내를 넘어 세계 무대에서 K-클래식 대표주자로 꼽히는 젊은 거장, 바이올리니스트 클라라 주미 강과 피아니스트 김선욱이 베토벤과 함께 부산을 찾는다.**

지난 한해 베토벤 탄생 250주년을 맞아 베토벤 바이올린 소나타 전곡 연구와 녹음에 힘을 쏟았던 클라라 주미 강과 김선욱은 올해 9월, 베토벤 바이올린 소나타 전곡으로 채워진 신보 발매와 더불어 발매 기념 전곡연주회를 가져오고 있다. 특히 베토벤의 바이올린 소나타 전곡은 1798년부터 1812년 사이 총 10곡이 작곡되었으며, 두 연주자의 호흡이 강조된 대표적인 바이올린과 피아노의 듀오곡이다. 초기 고전시대의 기틀 안에서 비상하는 소나타 제1번부터 청년 베토벤의 싱그러운 활력을 담은 소나타 제5번 '봄', 청력상실을 현실로 받아들이야 했던 혼돈의 시기에 탄생한 소나타 제7번, 화려하고 극적인 음악으로 사랑받는 제9번 '크로이처', 그리고 최후의 소나타 제10번까지 제각기 다른 개성의 소나타 10곡은 고전 시대부터 낭만시대를 관통한다. 이번 부산무대에서는 베토벤의 개성이 본격적으로 드러나기 시작한 제4번과 제7번, 그리고 제9번을 들려준다.

흡잡을 데 없는 우아함과 균형감을 갖춘 바이올리니스트 클라라 주미 강은 2010년 인디애나폴리스 콩쿠르, 서울국제 콩쿠르(2009), 샌다이 콩쿠르(2010)에서 모두 우승하며 세계적인 주목을 받았으며, 아시아와 유럽에 걸쳐 저명한 지휘자, 오케스트라와 협연하며 국제적인 경력을 쌓았다. 실내악에도 매진하면서 아시아와 유럽에 걸쳐 평창, 홍콩, 이시카와, 마르바오 실내악 페스티벌에 정기적으로 참여하고 있으며, 베를린 스펙트럼 콘서트 시리즈의 정규 멤버로 보리스 베레좁스키, 보리스 브로프친, 기돈 크레머, 미샤 마이스키, 김선욱, 바딤 레핀, 손열음과 정기적으로 연주하고 있다.

독일 본에 위치한 베토벤 생가인 '베토벤 하우스' 멘토링 프로그램 첫 수혜자로 '베토벤 스페셜리스트'인 피아니스트 김선욱은 2004년 독일 에틀링겐 국제 피아노 콩쿠르, 2005년 스위스 클라라 하스킬 국제 피아노 콩쿠르에서 1위에 올랐으며, 2006년 리즈 콩쿠르에서는 콩쿠르 40년 역사상 최연소 우승자이자 첫 아시아 출신 우승자로 국제무대에 이름을 알렸다. 그동안 세계적인 지휘자들과 지속적으로 협연 무대를 가지며 독주자로도 활발히 활동해온 김선욱은 지난해 12월, KBS교향악단을 지휘하며 지휘자로서의 행보를 시작한 바 있다.

일 시 11월 1일 월요일 오후 7:30 **장 소** 부산문화회관 대극장
입장료 R석 7만원, S석 5만원, A석 3만원(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20% 할인)
문 의 (재)부산문화회관 607-6000

(재)부산문화회관 기획공연 뮤지컬 라흐마니노프



- 러시아의 천재 작곡가 세르게이 라흐마니노프의 숨겨진 3년에 대한 이야기를 담은, 감동과 음악이 있는 뮤지컬 '라흐마니노프'가 부산을 찾는다.

러시아 후기 낭만주의를 대표하는 작곡가이자 당대 최고의 피아니스트로 많은 사랑을 받았던 라흐마니노프의 실제 이야기를 바탕으로 한 '라흐마니노프'는 라흐마니노프가 슬럼프에 갇힌 3년간의 시간 속에서 정신의학자 니콜라이 달 박사와의 만남을 통해 치유하고 성장해 나가는 과정을 그린 작품이다.

지난 2016년 초연 당시 국내 창작뮤지컬로서는 96%라는 높은 객석점유율을 기록하며 호평을 받은 작품으로, 2016년 그 해 예그린뮤지컬어워드에서 극본상을 수상하고 문화일보 평론가가 뽑은 '올해의 뮤지컬' 7선에 선정됐으며, 이듬해인 2017년에는 한국뮤지컬어워즈 작곡/음악감독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라흐마니노프는 모차르트, 베토벤처럼 어린 시절부터 일찍 재능을 드러내어 4살 때 스스로 피아노를 배우고 10대 시절 작곡을 시작하여 그의 나이 17살 때 첫 작품인 협주곡 제1번을 작곡할 정도로 천재 음악가로 유명하다. 작곡가로 승승장

구하던 라흐마니노프는 24살 때 '교향곡 제1번'을 발표했으나 평단의 엄청난 비판을 받게 되고 그 충격으로 3~4년간은 작곡을 못할 정도로 엄청난 슬럼프에 빠진다. 이 당시 라흐마니노프의 충격이 얼마나 컸던지 '교향곡 제1번'은 그의 생전에 연주 자체가 허용되지 않았다고 한다. 라흐마니노프는 이때 작품 속에 등장하는 니콜라이 달 박사를 만나 최면치료인 '자가암시요법'으로 우울증을 치료하게 되고 그 결과로 현재 수많은 영화, 드라마에 삽입되어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피아노 협주곡 제2번'을 작곡하면서 평단의 압도적인 호평을 받으며 재기에 성공하게 된다. 라흐마니노프는 이 곡을 자신을 치료해준 달 박사에게 감사의 의미로 그에게 헌정하기도 했다. 뮤지컬에서는 각자 상처가 깊은 라흐마니노프와 니콜라이 달이 음악적 교감을 나누며 서로의 상처를 치유해가는 과정을 그린다. 공연 자체가 두 사람의 2인극으로, 극 중 뮤지컬 넘버 대부분이 라흐마니노프가 작곡한 멜로디를 기반으로 만들어진 곡이다. 특히 이번 무대는 완벽한 가창력과 섬세한 연기력으로 초연무대부터 함께 해온 박유덕(라흐마니노프), 정동화(니콜라이 달)의 앙상블 연기와 라흐마니노프 특유의 서정적인 음악이 클래식, 뮤지컬 애호가 모두를 사로잡는다.

일 시 11월 5일 금요일 오후 7:30, 6일 토요일 오후 3:00 **장 소** 부산문화회관 중극장

입장료 R석 5만원, S석 3만원, A석 2만원(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30% 할인)

문 의 (재)부산문화회관 607-6000(ARS 1번)

시민들의 스타로 한걸음 다가가다

부산시립예술단 2021 스타프로젝트

기량이 뛰어난 부산시립예술단 단원들과 부산시민들과의 거리를 좁히기 위한 새로운 시도, 부산시립예술단 '2021 스타프로젝트'가 10월 한달간 펼쳐진다. 부산시립예술단이 올해 첫 선을 보인 '스타프로젝트'는 부산시립예술단 단원 중 숨은 인재를 찾아 시립예술단의 존재감을 높이면서 시민 속으로 더욱 가깝게 다가가기 위한 '스타마케팅' 무대로, 지난 7월 국악관현악단 '그대를 그리웁다'를 시작으로 8월 합창단 '프리마 돈나'에 이어 10월에는 극단과 합창단, 교향악단, 무용단 등 4개 상임단체가 다양한 무대를 선보인다.



배우들을 '주목!'하라

부산시립극단 '주목!'

10월 7일(목)-23일(토)
평일 오후 7:30, 토요일 오후 5:00
하늘바람소극장

종합예술인 연극을 제작하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한 요소를 꼽는다면 결국 배우와 관객일 것이다. 연극의 본질은 배우가 관객 앞에서 하는 '놀이'이기 때문이다. 희곡이 없어도, 무대가 없어도, 소품이 없어도 연극은 가능하다. 다소 극단적으로 말하자면 관객이 없어도 '놀이'의 행위를 할 수는 있다. 이 토록 연극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배우'라는 점은 이견이 있을 수 없기에 몇몇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 연극을 '배우의 예술'이라 규정하기도 한다. 부산시립극단의 경우 보통 정기공연은 외형적 규모가 큰 연극을 지향하기에 사실 주인공 몇몇을 제외하고는 단원인 배우들의 개성과 면모를 보여주기에 부족함이 많다. 그래서 부산시립극단은 이번 스타프로젝트로 배우와 그들의 연기에 옷옷이 주목할 수 있는 소규모 공연 프로젝트를 기획했다. 이번 무대에서 단원들은 배우로서 주체가 되어 평소 그들이 하고 싶었던 작품을 무대에 올린다. 공연장소도 시립극단의 주 공연장인 부산문화회관이 아닌 일반 소극장으로, 관객들은 훨씬 가까운 거리에서 단원들의 생생하고 개성넘치는 연기를 느낄 수 있다.

■ 백조의 노래



이현주

안예은

■ 스트립티즈



황창기

김은희

■ 그 자매에게 무슨일이 일어났나



이혁우

염지선

오희경



김은옥

서보기

부산시립극단 스타프로젝트의 첫 번째 무대는 시립극단 창단 멤버이자 30년 연기경력의 배우 이현주와 이제 연기자로서 출발선에 선 신예배우 안예은이 연기호흡을 맞추는 '백조의 노래'. 노년의 무명배우가 화려한 조명이 꺼진 뒤 무대 뒤에서 지나간 세월과 배우로서의 회한을 고백하는 체홉의 단막극으로, 무대 위에서 주목받지 못한 무명의 배우이나 자신의 무대를 최선을 다해 살아온 한 배우의 이야기를 통해 자신의 자리에서 묵묵히 삶을 살아가는 많은 이들에게 존경과 위로를 전한다. 공연은 10월 7일부터 9일까지 사흘간 열린다.

또 다른 2인극 '스트립티즈'는 10월 14일부터 사흘간 부산시립극단을 이끌고 있는 든든한 중견 연기자 황창기, 김은희의 연기양상블로 펼쳐진다. 폴란드의 부조리극 대표작가 슬라보미르 므로체크의 작품으로 사회주의 체제로 넘어가는 당시 폴란드의 상황을 풍자하는 블랙코메디인 '스트립티즈'는 국가적 외압에 자유를 굴복당하며 살아가는 지식인의 자아성찰을 풍자한 작품이다. 이번 무대에서는 원작이 지닌 상징적이고, 심플한 시츄에이션에 드라마적 요소를 가미함으로써, 숨겨진 거대한 진실을 알고도 모른 채 허거나 거기에 편승할 수 밖에 없는 '사회적 약자'로 살아가는 우리 현대인들의 삶을 반추시켜본다.

스타 프로젝트 마지막 무대인 '그 자매에게 무슨일이 일어났나'는 지난해 열렸던 부산시립극단 제68회 정기공연 '체홉의 이야기'에서 단막극 '공포'를 연출하여 호평을 받았던 단원 이혁우가 다시 연출을 맡아 관객과 만난다. 가장 뛰어난 심리극이라는 평가를 받는 헨리 파넬의 '그 자매에게 무슨일이 일어났나'는 두 자매 사이에서 벌어지는 갈등으로 말미암아 파멸에 이르는 과정을 담은 작품으로 특히 염지선, 오희경, 김은옥, 서보기 등이 출연, 그동안 극단 무대에서 보기 힘들었던 여배우 중심의 팽팽한 연기대결이 펼쳐진다. 공연은 10월 21일부터 23일까지.

해설로 만나는 뮤지컬 갈라

부산시립합창단
'Les Miserables'

10월 14일 목요일 오후 7:30
부산문화회관 챔버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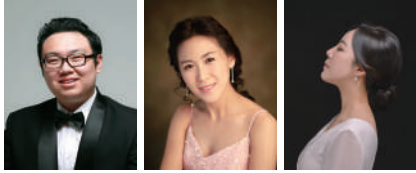
해설 이상훈

지난 8월, 젊은 여성 성악가들의 화려하면서도 서정적인 기교를 감상할 수 있었던 '프리마 돈나'로 첫 번째 스타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마쳤던 부산시립합창단은 해설로 만나는 뮤지컬 갈라콘서트 '레 미제라블'로 스타프로젝트 두 번째 만남을 갖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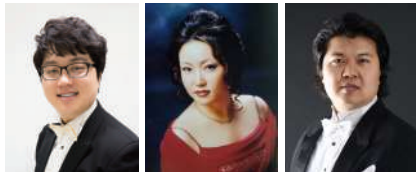
부산시립합창단 단원들과 시민들과의 거리를 좁히기 위한 시도로 마련되는 이번 무대는 2017년 첫 선을 보인 후 매 공연마다 매진사례를 낚으며 관객



장발장 최춘식 판틴 김나영 자베르 이재원



마리우스 최원갑 코제트 이혜진 에포닌 이유진



테르나디에 장용균 테르나디에부인 신소운 앙줄라 김태우

들로부터 많은 사랑을 받았던 뮤지컬 ‘레 미제라블’ 갈라 콘서트로, 특히 부산에서 활동중인 공연칼럼니스트이자 예술 여행작가인 이상훈의 깊이있는 해설로 만날 수 있다. 세계 각지의 뮤지컬 전용극장에서 직접 보고 경험한 생생한 정보와 에피소드를 바탕으로 공연장을 찾은 관객에게 생생한 공연 정보를 전달해온 이상훈은 DIMF 대구국제뮤지컬 페스티벌 심사위원 및 코디네이터를 역임하고 (재)부산문화회관 문화예술아카데미 강사로 활동한 바 있다.

19세기 프랑스의 대문호인 빅토르 위고의 동명 소설을 뮤지컬로 제작한 ‘레 미제라블’은 19세기 암울했던 프랑스 사회와 혁명의 소용돌이에서 한 죄수의 일생을 통해 인간의 존엄성과 삶의 의미를 돌아보는 작품으로, 오페라의 외형에 팝 멜로디를 입힌 완성도 높은 음악이 특징이다. 20년 넘게 장기 흥행하고 있는 웨스트엔드의 기념비적인 뮤지컬 작품으로, ‘오페라의 유령’, ‘캣츠’, ‘미스사이공’ 등과 함께 세계 4대 뮤지컬로 불리며, 지금까지 전세계 33개국에서 22개 언어로 공연되고있다.

이번 무대에서는 장발장 역의 테너 최춘식을 비롯해 소프라노 김나영, 이혜진, 알토 신소운, 이유진, 테너 최원갑, 베이스 장용균, 이재원, 김태우와 부산시립합창단 중창단이어 출연, I Dreamed a Dream, Who am I?, Do You Hear the People Sing?, In My Life, One Day More, On My Own 등 주요 넘버를 통해 ‘레 미제라블’의 감동을 다시 한번 재현한다.

단원들의 매력을 확인할 수 있는
실내악 무대

부산시향의 실내악 공장Ⅲ

10월 21일 목요일 오후 7:30
부산문화회관 챔버홀

부산시립교향악단의 스태프로젝트 무대에서는 단원들의 차별화된 연주로 실내악의 진수를 감상할 수 있는 ‘부산시향의 실내악공장’이 펼쳐진다.

‘부산시향의 실내악공장’은 지난 2019년 5월 첫 선을 보여 호평을 받았던 무대로, 특히 정기연주회에서는 감상하기 힘들었던 실내악 걸작들을 들려 주면서 클래식 입문자부터 애호가에 이르기까지 모두 함께 즐길 수 있다. 풍성한 규모의 오케스트라 작품과는 다르게 시대별 다양한 실내악 작품들과 단원들 개개인의 매력을 좀 더 가까이에서 만나 볼 수 있는 무대로, 이번 무대에서는 깊어가는 가을을 맞아 성큼 다가온 가을의 정취를 깊이 만끽할 수 있는 다양한 레파토리를 들려준다.

첫 곡으로는 우크라이나 후기낭만주의 음악가인 라인홀트의 ‘바이올린과 첼로를 위한 8가지 소품’으로, 농익은 그의 숙달된 음악 기법들과 형태들을 만나볼 수 있다. 이어서는 소박하지만 따뜻한 선율로 마음의 편안함을 주는 드보르작의 ‘두 대의 바이올린과 비올라를 위한 테르제토’와 독일 작곡가



단치의 대표작인 '목관5중주'를 들려준다. 마지막 곡은 비제의 대표적인 오페라인 '카르멘'에서 명곡만을 골라 관현악곡으로 재배열한 '카르멘 모음곡'으로, 이번 무대에서는 목가적인 선율로 가득한 목관5중주로 들려준다. 이번 무대에서는 바이올리니스트 정명아, 이상진, 이현재, 비올리스트 홍영선, 첼리스트 최지현, 플루티스트 안병건, 오보이스트 노지연, 클라리네티스트 권소민, 바수니스트 곽서란, 호른니스트 이민영이 출연, 완벽한 호흡으로 실내악의 매력을 선사한다.

최정상급 무용가들과 함께하는
부산시립무용단
'별이 빛나는
Stage and Masterpiece'

10월 27일(수)-28일(목) 오후 8:00
 부산문화회관 대극장

부산시립예술단 2021년 스타프로젝트의 마지막은 부산시립무용단이 장식한다.

부산시립무용단 '별이 빛나는 Stage and Masterpiece'에서는 부산시립무용단의 무용가들과 한국을 대표하는 최정상급의 무용가들이 한 무대에 오른다. 부산시립무용단과 이정윤(부산시립무용단 예술감독), 김주원(발레리나), 정영재(발레리노) 등 국내외 무대에서 활발하게 활동하는 무용가들의 무대로, 단순히 춤만 보여주는 공연이 아닌, 예술감독 이정윤의 진행으로 무용가와 춤의 이야기를 관객과 소통하는 토크 콘서트 형식으로 진행되며, 'THE ONE', 'Alone Together' 등 작품들과 무용가와 춤의 이야기를 관객과 함께 나눈다.



부산시립교향악단이 마련한 특별한 음악선물



부산시민회관	- 10월 13일(수) 부산시향의 미완성 음악회Ⅴ
대극장	- 10월 14일(목) 아침음악회 '스키' - 10월 15일(금) 부산시립교향악단 제579회 정기연주회 '스키'

깊어가는 가을을 맞아 부산시립교향악단이 음악애호가들을 위한 특별한 음악선물을 선사한다.

10월 15일 열리는 부산시립교향악단 제579회 정기연주회 '스키'에서는 러시아를 대표하는 무소르그스키와 스트라빈스키 등 두 '스키'의 작품을 통해 러시아 특유의 우수와 서정으로 가득한 러시아 낭만 속으로 음악여행을 떠난다. 수석지휘자 최수열이 지휘하는 이날 무대에서는 뛰어난 표현력과 따뜻하고 매력적인 음색, 그리고 섬세한 프레이징으로 전 세계가 주목하고 있는 바이올리니스트 조진주가 협연자로 출연한다.

특히 정기연주회가 열리기 이틀 전인 10월 13일에는 오픈리허설 형식의 '미완성 음악회'가, 하루 전인 14일에는 오전에 열리는 마티네 콘서트 형식의 '아침음악회'가 열릴 예정이라 보다 다양한 방식으로 무대를 즐길 수 있다.

무소르그스키와 스트라빈스키의 만남! 부산시립교향악단 제579회 정기연주회 '스키'

10월 15일 금요일 오후 7:30 **부산시민회관 대극장**
R석 2만원, S석 1만5천원, A석 1만원, B석 5천원



지휘 최수열

바이올린 조진주

우선 부산시립교향악단의 제579회 정기연주회 '스키'는 10월 15일 부산시민회관 대극장에서 펼쳐진다.

예술감독 최수열이 지휘하고 국내외 활발한 활동을 하고있는 바이올리니스트 조진주가 협연하는 이번 무대에서는 스트라빈

스키 '바이올린 협주곡', 무소르그스키 '전람회의 그림' 외에도 지난해부터 진행되어온 부산시립교향악단의 장기 프로젝트 '모리스 라벨의 관현악곡 사이클' 일환으로 평소 무대에서 잘 만날 수 없는 라벨의 '잔의 부채를 위한 팡파레'를 들려준다. '모리스 라벨의 관현악곡 사이클'은 '관현악법의 마술사' 모리스 라벨의 관현악곡 열 두 작품 전곡을 2022년까지 완주하는 프로젝트로, 이날 무대에서는 '잔의 부채를 위한 팡파레' 외에도 무소르그스키의 걸작에 라벨의 화려한 색채가 더해진 무소르그스키-라벨의 '전람회의 그림'을 감상할 수 있다.

첫 곡인 라벨의 '잔의 부채를 위한 팡파레'는 1972년 당대를 대표하는 열 명의 프랑스 작곡가들이 그 당시 중요한 후원자였던 발레단장 잔 뒤보를 위해 작곡한 어린이용 발레 음악 중 라벨이 작곡한 작품으로, 간결하고 단순하지만 관현악의 음색을 다루는 라벨의 기법이 깊게 배어 있다. 이어지는 곡은 바이올리니스트 조진주가 협연하는 스트라빈스키의 '바이올린 협주곡'으로, 일반적인 바이올린 협주곡과는 전혀 다른, 악상의 전개가 상투적이지 않으면서 리듬이 강한 흥미로운 작품이다.

특히 이 곡은 손이 작은 바이올리니스트라면 손가락 사이가 찢어지도록 벌려야 간신히 연주할 수 있는 난이도가 높은 곡으로, 일찍이 20세기 최고의 바이올리니스트인 야샤 하이페츠도 이 곡의 악보를 처음 보고는 '연주 불능'이라 말했으며, 이 곡을 헌정받은 폴란드계 미국인 바이올리니스트 사무엘 두슈킨조차 악보를 보고 당황했다고 전해진다. 그만큼 스트라빈스키의 난해한 연주기법들이 돋보이는 작품으로, 바이올리니스트 조진주의 비르투오소적인 연주에 기대가 모아진다.

지난 2006년 몬트리올 국제 음악 콩쿠르 1위 수상과 더불어 관중상을 수상하며 국제적 이목을 끌기 시작한 조진주는 2010년 부에노스 아이레스 국제 바이올린 콩쿠르 1위 및 오케스트라상, 2011년 윤이상 국제 콩쿠르 2위, 2012년 엘리스 손펠드 국제콩쿠르 1위 수상 등 세계적인 콩쿠르에서 연이어 우승하며 주목받기 시작하여 2014년 세계 3대 콩쿠르 중 하나인 인디애나폴리스 국제 콩쿠르에서 1등상 및 바흐상, 로맨틱 협주곡상을 수상하며 현재 전 세계에서 가장 각광받고 있는 젊은 연주자 중 한 명으로 꼽히고 있다. 2015년에는 금호아트홀의 상주 아티스트로 선정되어 더욱 더 국내 예술계의 주목을 받았으며 2018년부터는 캐나다 맥길 대학교의 솔리히 음악학교 부교수로 임명되어 후학 양성에도 더욱 열정을 쏟고 있다. 최근에는 박수갈채와 조명으로 가득한 무대 뒤 개인으로서 느끼는 삶을 진솔하게 담아낸 첫 에세이 '언젠가 반짝일 수 있을까'를 출간하여 화제가 된 바 있다.

이번 무대의 마지막 곡인 무소르그스키의 '전람회의 그림'은 건축가이자 화가였던 그의 친구 하르트만의 추도 전람회에서 영감을 받아 작곡한 작품으로, 19세기의 가장 독창적인 피아노 음악의 하나로 후세에 커다란 영향을 준 명작이다. 무소르그스키 특유의 대담하고 솔직한 표현과 강건한 곡의 구성은 관현악곡으로도 손색이 없어서 많은 작곡가들이 앞다투어 관현악용으로 편곡했는데, 그 중에서도 라벨의 편곡 버전이 가장 유명해 오늘날에도 즐겨 연주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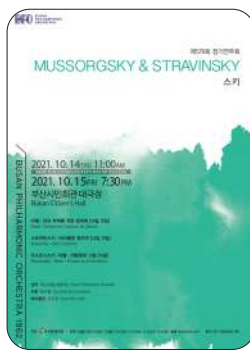
오픈 리허설로 만나다 부산시향의 미완성 음악회V

10월 13일 수요일 오후 7:30
부산시민회관 대극장 / 전석 5천원

정기연주회가 열리기 이틀 전인 10월 13일에는 '미완성 음악회'를 통해 제579회 정기연주회를 미리 만날 수 있다.

오픈 리허설 형식의 '미완성 음악회'는 실제 리허설을 바탕으로 오케스트라가 앙상블을 만들어가는 과정을 생생하게 경험할 수 있는 새로운 형식의 음악회로, 연주를 앞두고 단원과 지휘자가 자연스럽게 연습하는 모습을 통해 작품에 대한 이해를 돕는 한편 지휘자의 음악적 해석, 프레이즈 해석 등 연주자들과의 호흡을 하나로 맞추어 가는 과정을 직접 육성으로 듣고 볼 수 있다는 점에서 실제 무대와는 차별화된 매력을 느낄 수 있다.

이날 무대에서는 최수열 예술감독과 부산시립교향악단 단원들이 제579회 정기연주회 프로그램인 무소르그스키-라벨의 '전람회의 그림' 리허설 과정을 꾸밈없이 보여준다.



토크가 있는 마티네 콘서트 아침음악회 '스키'

10월 14일 목요일 오전 11:00
부산시민회관 대극장 / 전석 1만원

매번 창의적이며 새로운 형식의 공연들을 관객들에게 선보여온 부산시립교향악단이 처음 선보이는 토크가 있는 마티네 콘서트인 '아침음악회'는 10월 14일 오전 11시 부산시민회관 대극장에서 펼쳐진다.

특히 이날 무대에서는 제579회 정기연주회 협연자로 부산을 찾은 바이올리니스트 조진주와 예술감독 최수열의 토크 콘서트를 통해 정기연주회에 앞서 연주자의 작품 해석과 숨겨진 다양한 에피소드 등 생생한 토크로 관객들이 무대와 더욱 더 가까워질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부산시립교향악단과 조진주는 이날 무대에서 정기연주회 프로그램인 라벨 '잔의 부채'를 위한 팡파레와 스트라빈스키 '바이올린 협주곡'을 들려준다.

10월에 만나는 풍성한 문화행사

Film Fe



2021 부산국제영화제 개막작 '행복의 나라로'

코로나19로 인해 움추렸던 부산문화계가 점차 기지개를 켜고 있다. 특히 문화의 달 10월, 부산에서는 풍성한 가을걷이만큼이나 다채로운 문화예술행사가 시민들을 기다리고 있다.

10월 6일 문화도시 부산을 대표하는 아시아 최대의 영화축제 '부산국제영화제'를 시작으로 부산의 바다를 배경으로 펼쳐지는 특별한 미술축제 '바다미술제', 아시아를 대표하는 세계적인 합창제 '부산국제합창제', 그리고 부산 유일의 종합 예술축제 '부산예술제'가 10월 한달간 연이어 펼쳐지면서 다양한 장르의 볼거리, 즐길거리로 시민들의 눈과 귀를 즐겁게 한다.

제26회 부산국제영화제 Busan International Film Festival, 2021

10. 6^수 ~ 15^금

영화의전당, CGV 센텀시티, 롯데시네마 센텀시티, 롯데시네마 대영, 소향씨어터, BNK부산은행 아트시네마(커뮤니티비프)

개·폐막식 3만원, 일반상영작 8천원
부산국제영화제 조직위원회 1666-9177, www.biff.kr

10월 6일 개막을 앞두고 있는 부산국제영화제는 올해 놓칠 수 없는 수작들이 많아 벌써부터 영화팬들을 설레게 한다. 계속되는 코로나19로 예년에 비해 초청영화 수는 줄었지만 앞서 열린 칸, 베를린, 베니스, 로카르노 등 세계 유수 영화제의 개막작, 수상작을 비롯해 국내에서 최초 공개되는 거장의 신작, 그리고 처음 스크린에 올라가는 한국배우들의 해외 진출작까지 주목

stival

할 만한 작품들로 가득하여 올해 부산국제영화제는 그 어느 해보다 질적으로 풍성하다.

칸영화제 수상작으로는 황금종려상 '티탄'(칠리아 뒤쿠르노), 심사위원대상 '히어로'(아스가르 파르하디), '6번 칸'(유호 쿠오스마넨), 감독상 '아네트'(레오스 카락스), 심사위원상 '아헤드의 무릎'(나다브 라피드), '메모리아'(아피차퐁 위라세타쿤), 남우주연상 '니트람'(저스틴 커젤), 감독주간 황금눈상 수상작 '무지의 밤'(파알 카파디아) 등이 상영된다. 베를린영화제 수상작은 황금곰상 '배드 럭 뱅잉'(라두 주데), 관객상 '흰 암소의 발라드'(베타쉬 사나에에하, 마리암 모그하담) 등이, 베니스국제영화제 수상작은 심사위원 대상 '신의 손'(파올로 소렌티노), 심사위원특별상 '일 부코'(미켈란젤로 프라마르티노), 감독상 '파워 오브 도그'(제인 캠페온) 등이 부산을 통해 국내 관객들과 먼저 만난다.

한국배우가 출연한 해외영화 작품도 부산을 찾는다. 최근 드라마 '슬기로운 의사 생활'에 출연하여 친근한 이미지로 사랑받은 배우 유연석과 '007 퀸텀오브솔라스'(2008)의 본드걸 올라 쿠릴렌코가 출연한 프랑스 영화 '고요한 아침'과 올해 베니스영화제 경쟁부문에 초청된 배우 전종서의 할리우드 진출작 '모나리자와 블러드 문', 한국 정정훈 촬영감독이 촬영한 에드가 라이트 감독의 신작 '라스트 나잇 인 소호' 등이 관객과의 만남을 기다리고 있다. 오는 12월 OTT 왓처에서 선보일 단편영화 프로젝트 '언프레임드'도 월드 프리미어로 먼저 선보인다. 배우 이제훈, 박정민, 최희서, 손석구의 감독 데뷔작으로, '한국영화의 오늘-파노라마' 섹션에서 상영된다.

매년 다양한 특별전을 기획했던 부산국제영화제는 올해 아시아영화를 다룬 두 개의 특별전을 준비했다. 영화계 전문가들의 설문을 거쳐 여성감독이 만든 최고의 아시아영화를 선정한 특별전 '원더 우먼스 무비'와 최근 전 세계적인 주목을 받는 중국 감독들의 영화를 소개하는 특별전 '중국영화, 새로운 목소리'가 그것이다. '원더 우먼스 무비'에서는 전 세계 영화인 140여 명을 대상으로 설문을 진행한 결과 1위를 차지한 미라 네어 감독의 데뷔작 '살람 봄베이'를 비롯해 10편의 작품이 상영된다. '중국 영화, 새로운 목소리'는 전통적인 세대 구분에서 벗어나 새롭게 등장한 중국 신세대 감독들이 어떠한 메시지를 가지고 영화적 성취를 이뤄내고 있는지를 조명하기 위해 마련한 자리로, 최근 유수의 국제영화제들에서 상영되면서 세계 영화계의 주목을 받았던 감독들의 대표작을 선보인다.

'온 스크린'은 올해 영화제에서 새롭게 신설된 섹션으로 OTT(온라인 동영상 스트리밍 서비스) 드라마 시리즈 화제작을 상영한다. 최규석 작가의 인기 동명 웹툰을 원작으로 한 연상호 감독의 넷플릭스 6부작 시리즈 '지옥'과 넷플릭스 시리즈 화제작이었던 '인간수업'의 김진만 감독이 내놓은 차기작 '마이 네임', 뛰어난 연출력을 검증받은 아누차 분야와타나, 김준표 감독이 연출한 '포비든' 등 세 작품이 상영된다. 특히 '지옥'은 믿음, 정의, 속죄, 광기 등을 소재로 하여 장르적 쾌감을 안기는 대작으로, 배우 유아인, 박정민, 김현주, 원진아, 양익준, 김도윤, 김신록, 류경수, 이레 등 화려한 출연 라인업을 자랑한다.

올해 부산국제영화제의 개막작은 지난해 제73회 칸영화제 '2020 오피셜 셀렉션'에 선정됐던 임상수 감독 신작 '행복의 나라로'로, 이번 영화제에서 월드 프리미어로 관객과 첫 만남을 갖는다. '행복의 나라로'는 임상수 감독이 6년 만에 선보이는 장편 신작이자 네 번째 칸영화제 초청작으로, 시간이 없는 탈옥수 203(최민식)과 돈이 없는 환자 남식(박해일)이 우연히 거액의 돈을 손에 넣고 특별한 동행을 하는 유쾌하면서도 서정적인 로드무비이다. 폐막작은 홍콩의 전설적인



2021 부산국제영화제 폐막작 '매염방'



가수이자 배우로 '홍콩의 딸'이라 불리었던 매염방의 일대기를 그린 령록만 감독의 '매염방'. 불꽃같은 삶을 살았던, 우리가 사랑했던 매염방에 대한 드라마이자 현재 중국의 강력한 통제에 자유를 잃어가고 있는 홍콩의 화려하고 아름다웠던

순간에 대한 애가(哀歌)이기도 하다.

올해는 전 세계가 인정한 천재감독 봉준호, 하마구치 류스케, 프랑스 거장 레오 카락스가 부산국제영화제를 찾는다. 하마구치 류스케 감독이 연출한 '우연과 상상'(2021), '드라이브 마이 카'(2021) 등 신작 2편과 레오 카락스 감독이 연출한 '아네트'(2021)는 올해 부산국제영화제의 갈라 프레젠테이션 초청작이기도 하다. '우연과 상상'으로 베를린국제영화제 심사위원 대상, '드라이브 마이 카'로 칸영화제 각본상을 수상하며 올해 전 세계 영화계에 강한 충격을 안겨준 하마구치 류스케 감독은 봉준호 감독과 함께하는 스페셜 대담이 마련되어 있으며, 9년 만에 선보이는 신작 '아네트'와 함께 부산을 찾는 레오 카락스 감독은 마스터 클래스가 예정되어 있다.

제26회 부산국제영화제 개막식은 10월 6일 저녁 7시 10분 배우 송중기와 박소담의 사회로 진행되며, 앞서 저녁 6시부터는 레드 카펫 행사가, 개막식이 끝난 8시부터는 개막작이 상영된다.

인간과 비인간:아상블라주 Non-/Human Assemblages 2021 바다미술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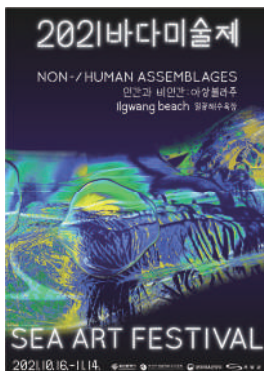
10. 16^토 ~ 11. 14^일

일광해수욕장

무료

(사)부산비엔날레조직위원회 503-6111

www.usanbiennale.org



부산의 바다를 배경으로 펼쳐지는 특별한 미술축제 '2021 바다미술제'는 10월 16일부터 한달간 일광해수욕장에서 펼쳐진다. 지난 1987년 88서울올림픽의 프레올림픽 문화행사의 일환으로 시작된 후 그동안 격년제로 가져온 바다미술제는 부산의 바다에서 펼쳐지는 부산만의 독특한 해양 야외 국제미술제로, 현대미술이 가진 장벽을 낮추고 대중들이 보다 친근하게 예술에 다가갈 수 있도록 기여해왔다.

바다미술제 사상 최연소 여성 전시감독로 화제를 모았던 리티카 비스와스 전시감독이 이끄는 이번 바다미술제는 '인간과 비인간:아상블라주(Non-/Human Assemblages)'라는 전시 주제로 13개국 22개팀 36명의 작가가 참여한다. 이번 전시에서 일광 해변, 기장군, 그리고 동해바다를 배경으로 설치되는 예술가들의 작품은 해양생태계 속 보이지 않는 상호관계를 드러내면서 관람객들을 새로운 세계로 안내한다.

리티카 비스와스 전시감독은 이번 바다미술제의 전시방향에 대해 '인간이라는 존재를 우리가 속한 자연과 분리된 개체로 보는 대신 서로 관계를 맺으며 공존하는 것으로 해석하고 이를 가로지르는 물(바다)의 흐름을 성찰하고자 한다고 밝힌 바 있다. 특히 이번 바다미술제는 전시장소인 일광해수욕장

백사장뿐만 아니라 바다 속, 하천, 포구와 공원 등 해수욕장 주변 공간까지 사용하여 공간의 활용도를 높이고 조각과 설치뿐만 아니라 영상·사진·평면 작품 등 현대미술의 다양한 부분을 볼 수 있어 예년과는 다른 변화된 전시를 만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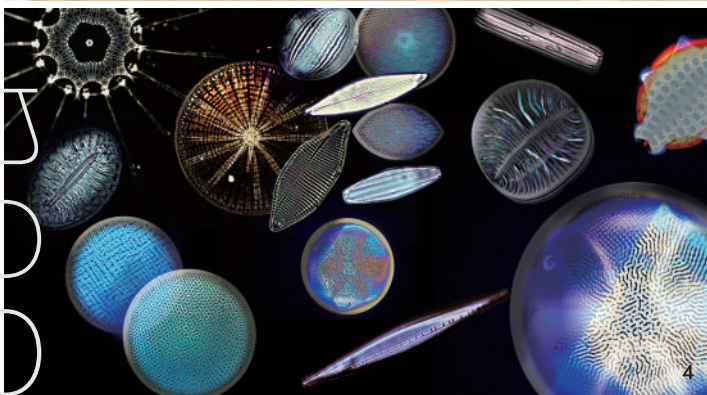
2021 부산바다미술제의 주요 작가로는 먼저 국내 작가 벨라(bela)가 참여한 '더 포레스트 커리큘럼(The Forest Curriculum)'이 관심을 끈다. '더 포레스트 커리큘럼'은 인도 출신의 아비잔 토토와 푸지타 구하가 공동 창립한 플랫폼으로, 예술가 및 독립연구자, 기관, 음악가, 활동가들이 네트워크를 구성하여 다양한 협업 활동을 펼치고 있다.

이번 전시에서는 독일, 태국, 인도네시아, 필리핀, 한국 작가까지 다양한 국적의 작가들이 참여하여 탈민족주의 이념을 토대로 저항 내러티브를 드러낸 설치작품을 선보인다. 서울에서 활동 중인 국내작가 이소정과 곽상준으로 구성된 건축·예술 그룹 '오비비에이(OBBA)'는 빛을 반사시키는 특수필름과 유연한 파이프 등 일상적이면서 비건축적인 재료를 이용해 햇빛·물·바람·모래와 관객의 움직임을 반영한 설치작품으

로 관객들에게 새로운 건축적·공간적 경험을 선사한다. 미국을 비롯한 다양한 국가에서 활동하는 '최앤샤인 아키텍츠(CHOI+SHINE Architects)'는 한국인 최해진과 영국계 미국인 토마스로 구성된 작가이자 건축가 듀오로, 작품이 설치될 지역에 얽힌 역사적 서사를 수집한 뒤 재구성, 디자인한 뜨개질 패턴의 작품을 선보인다. 터키 국적의 케렘 오잔 바이락타르는 일광 바다 및 어촌마을과 복잡하게 얽힌 삶, 특히 장어(아나고)에 주목한 영상설치 작품을 통해 인간과 비인간 사이의 관념적 위계를 뒤섞는 가능성을 실험한다.

특히 야외에서 펼쳐지는 바다미술제는 낮 시간뿐만 아니라 밤에도 계속해서 작품을 즐길 수 있는데 해가 진 뒤부터 오후 9시까지의 햇빛 대신 조명이 작품에 빛을 더한다. 한국문화기술연구소 김안나 작가의 작품은 일광의 한 아파트 외벽에 미디어 파사드 형태로 펼쳐지며 일광해수욕장 백사장 위에 펼쳐질 로히니 드배서의 프로젝션 작품 또한 밝은 낮시간 보다 주변이 어두운 저녁시간대에 더욱 선명하게 접할 수 있다.

3. 오비비에이(OBBA) <Lightwaves>, 2021, 다이크로의 필름, PC 파이프, 가변크기
4. 로히니 드배서 <Glasshouse Deep> 스틸이미지, 2021, 단채널 영상
5. 김안나 <The Ocean Machine> 스틸이미지, 2021, 단채널 영상



제17회 부산국제합창제 Busan International Chorus festival

10. 21^목 ~ 24^일

금정문화회관 금빛누리홀, 영화의전당 하늘연극장

(재)한국합창조직위원회 070-4172-0682, www.busanchoral.org

아시아를 대표하는 세계적인 합창제로 성장한 부산국제합창제 (조직위원장 도용복)는 올해 계속되는 코로나 팬데믹 속에서 경연은 비대면으로, 초청공연은 대면으로 진행한다.

부산국제합창제는 지난 2005년 부산에서 개최되었던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 회의를 기념해 열렸던 부산 APEC 국제합창경연대회를 전신으로, 그동안 16차례 성공적으로 치러지면서 아시아에서 가장 권위있는 합창축제로 자리매김했다. 특히 한국과 전 세계의 합창단이 경연을 통하여 예술적 발전을 도모하고 워크숍과 콘서트를 통해 세계 합창 음악을 이해하고 연구하는 등 합창 음악을 통한 국제적인 만남의 장으로 많은 사랑을 받아왔다. 지난해 열린 합창제에서는 갑작스럽게 발행한 코로나 팬데믹으로 경연대회 없이 온라인을 통한 가상합창단 공연과 영상합창 페스티벌로 합창제가 열리기도 했다.

올해 부산국제합창제에서는 경연대회를 유튜브를 통해 비대면으로 열며 참가부문에 있어서도 청소년, 무반주, 반주 등 3개 부문으로 나뉘어 진행된다. 10월 21일 경연대회에 이어 23일에는 금정문화회관 금빛누리홀에서 각 부문 수상팀 발표와 더불어 엔젤피스예술단, 월드비전합창단의 축하공연이 함께 펼쳐진다. 초청공연으로는 대한민국 최초의 쇼콰이어 그룹 '하모나이즈'와 폭발적이면서도 호소력 짙은 섬세한 4중창 하모니로 사랑받는 '에델 라인클랑'의 무대가 준비되어있다.

합창제 기간동안 두차례 관객과 만나는 하모나이즈는 2016(러시아 소치), 2018(남아공 츠와니) 월드콰이어게임 쇼콰이어 세계 챔피언에 빛나는 쇼콰이어 그룹으로, 모던 하모니를 바탕으로 한 역동적인 퍼포먼스와 스토리를 더한 쇼 연출로 많은 사랑을 받고 있다. 특히 유튜브에서 2,000만 뷰를 돌파한 '한국인들의 남아공 식당 즉석 라이온 킹 버스킹'으로 더욱 더 유명해진 합창단으로 전 세계를 통틀어 사랑받고 있는 팝과 록, 뮤지컬과 영화음악, 재즈와 힙합 등 다양한 음악을 하모나이즈만의 쇼콰이어 퍼포먼스로 재해석하여 끊임없는 찬사를 받고 있다. 10월 21일 오후 7:30 영화의 전당에 이어 22일 오후 7:30 금정문화회관 금빛누리홀에서 직접 보고 들어도 믿기지 않는 '세상이 기다려온 단 하나의 합창' 무대를 선보이며, 21일 공연에는 해운대구립소년소녀합창단이 함께 출연해 특별한 무대를 꾸민다.

합창제 마지막 날인 10월 24일 오후 5시 금정문화회관 금빛누리홀에서는 JTBC 팬텀싱어 시즌 2 결승팀으로 주목을 받은 '에델 라인클랑'이 무대에 선다. 베이스바리톤 김동현과 테너 안세권, 뮤지컬 배우 이충주와 조형균으로 구성된 '에델 라인클랑'은 특히 올해 '팬텀싱어 올스타전'에 출연하여 '팬텀싱어 모든 시즌 무대를 통틀어 가장 파격적인 무대'라는 극찬과 함께 모든 경연 통틀어 최고점을 받으며 MVP로 등극, '팬텀싱어 올스타전 최대 수혜자'라는 타이틀을 얻기도 했다. 이날 무대에서는 호소력 짙은 감성을 자극하는 노래 뿐 아니라 누구나 쉽게 즐길 수 있는 크로스오버 무대까지 한계없는 가창력과 폭발적이면서도 섬세한 4중창 하모니를 감상할 수 있다.



2021 제59회 부산예술제 Busan Arts Festival

10. 28^(목) ~ 11. 7^(일)

부산예술회관, 부산문화회관, 부산시민회관, 부산시청

(사)부산예술문화단체총연합회 631-1377, www.artpusan.or.kr



음악, 미술, 무용, 연극, 문학, 건축 등 다양한 분야의 예술과 문화를 선보이는 종합예술의 대향연 제59회 부산예술제는 10월 28일 그 화려한 막을 연다.

부산시와 부산예술문화단체총연합회(이하 부산예총)가 공동주최하는 부산예술제는 지난 1963년 부산시의 직할시 승격을 축하하는 의미로 시작한 부산 유일의 종합예술축제로, 2009년부터는 해외자매(우호)도시와 함께 하는 국제교류 행사로 발돋움하여 지역 문화 성장을 이끌어왔다. 코로나 팬데믹으로 지난해부터 해외 예술가는 초청하지 못하지만 부산예총 산하 12개 단위협회가 주관하는 다양한 공연 및 전시, 부산예술대상 및 예술문화공로상 시상식 등이 펼쳐진다.

2021 부산예술제의 시작을 알리는 개막식은 10월 29일 오후 7:00 부산시민회관 대극장에서 펼쳐진다. 개막공연인 '가곡과 아리아의 밤'에서는 지휘자 백진현이 지휘하는 부산음악협회 청년오케스트라의 연주로 소프라노 최한솔, 이진영, 왕기현, 허미경, 테너 강도호, 이태흠, 김지호, 김성진 등 부산을 대표하는 성악가들이 국내외 가곡과 오페라 아리아를 들려준다. 부산국악협회가 마련하는 '전통음악한마당-天地人'은 10월 30일 오후 6:30 부산시민회관 대극장에서 펼쳐진다. 하늘과 땅, 사람이 한데 어우러져 어렵고 곤란한 역경의 시기를 이겨내고 화합과 평화의 시기를 염원하고자 마련한 무

대로 대고와 태평소, 구름과 동래학춤, 소리북, 수영야류 중 '할미과장', 상여소리와 길닦음 등 다양한 전통음악 연주가 펼쳐진다. 10월 31일 오후 6:00 부산문화회관 중극장에서는 부산무용협회가 마련하는 '부산무용예술제-舞, 마음을 담다'가 열린다. 한국춤모임 짓의 '풍경소리'와 하야로비무용단 '5favorite things', 아트프로젝트 춤 is '舞·家·푸리', 박헌주부산시티발레단 'SKY', 이민아무용단 '승무' 등 전통무용 및 현대무용, 발레 등 다양한 춤판이 열린다. 부산연극협회가 마련하는 '秀秀한 연극초청전'에서는 극단 여정의 '복녀씨 이야기'(11월 3일-4일)와 극단 누리예의 '개 짚는 날'(11월 6일-7일) 등 두 작품이 부산시민회관 소극장에서 공연된다.

영화를 사랑하는 사람들의 축제인 '부산영화제-따로, 그러나 같이'는 10월 31일 오후 1시부터 부산예술회관 공연장에서 열리며, 같은 날 오후 2시 부산예술회관 야외광장에서는 부산차문화진흥원이 준비한 '세계음다풍속' 행사가 마련된다. 노년의 삶을 풍요롭게 해주는 '2021 제22회 부산실버가요제'는 11월 7일 오후 3:00 부산시민회관 대극장에서 펼쳐진다.

예술제 기간에는 공연 외에도 다양한 전시가 관객들을 기다린다. 10월 29일부터 11월 1일까지 부산예술회관 전시실에는 '2021 부산건축도시사진전'이, 부산사진작가협회 회원들이 1년간 카메라에 담은 다양한 이야기를 풀어낸 '2021 부산사진작가협회 회원전'은 10월 31일부터 11월 3일까지 부산시민회관 전시실에서 열린다. 또, 한국을 비롯해 중국, 일본, 인도네시아 등 4개국 작가들의 작품들과 100호 이상의 대형작품을 감상할 수 있는 '해외자매도시 미술교류&부산미술대작전'은 11월 1일부터 6일까지 부산광역시청 전시실에서 열리며, 이밖에 부산과 타 지역 작가들의 작품 교류전과 시 낭송, 초청강연회 등이 열리는 '제8회 지역문학작품 교류전'은 11월 3일부터 7일까지 부산예술회관 전시실에서, 꽃향기 가득한 꽃예술 설치작품을 감상할 수 있는 '꽃예술전'은 11월 5일부터 7일까지 부산시민회관 전시실에서 펼쳐진다.

한편, 본격적인 예술제 행사에 앞서 10월 28일 오후 5:00 해운대 그린나래호텔에서는 부산예술대상 및 예술문화공로상 시상식이 열린다.

부산의 신진이 ‘치열하게 살아있음’을 보았다

2021 부산신진예술페스티벌

◆ 조봉권 국제신문 선임기자

‘2021 부산신진예술페스티벌’(8월 14일~22일)을 부산문화회관이 주관한다는 소식은 반가웠다(주최는 한국문화예술원연합회). 부산을 대표하는 공공 극장(부산문화회관)이 민간을 향해 손을 내밀어 ‘우리가 판을 깔아드릴 테니 시민을 위해 함께 좋은 예술 페스티벌을 펼쳐보자’고 나서준 그림으로 나는 보았기 때문이다. 게다가 지역 공연예술계가 코로나19로 엄청난 위기와 절망에 처한 이때, 어려움과 혼란을 상대적으로 더 크게 느낄 ‘신진’과 함께한 예술 페스티벌이 되었던 점도 눈여겨봤다. 행사 요강은 ‘참가 예술인의 70% 이상이 만 39세 이하인 단체 또는 프로젝트’ 등이며 2019년에 이어 제2회째다.

나는 극장에서 공연된 일곱 편 가운데 다섯 편을 보았다. 원래 야외공연으로 잡혔던 루츠리듬 등 10개 팀의 공연은 코로나19 거리두기 격상으로 모두 온라인 비대면 공연으로 전환된 탓에 관람하지 못했다. 내가 본 작품은 극단 빅픽처스 테이저의 연극 ‘코마’, 극단 청춘나비의 뮤지컬 ‘살그시’, 극단 드렁큰아이터의 연극 ‘최저인간’, 현대무용단 자유의 현대춤 ‘적정온도’, 소군댄스의 현대춤 ‘갑자기 part 2’였다. 이들은 모두 부산 팀이다.

빅픽처스 테이저의 ‘코마’(극작·연출 김정환, 8월 17일 부산문화회관 사랑채극장)는 밀도와 힘이 매우 돋보였다. 최현정, 선승일, 이설, 배우 세 사람이 끌고 간 3인극이다. 공간배경은 외딴 산중 별장 실내로 사실상 제한됐다. 세 배우는 공기조차 뻑뻑하게 느껴지는 좁은 실내에서 보험사기극을 중심에 놓은 범죄스릴러를 끌고 가야 했다. 좁은 밀실에서 펼쳐지는 연극은 전개를 치밀하고 선명하게 가져가기에 좋고 관객의 집중력을 높이는 데 유리하다. 하지만 극 중에 바늘 하나 잘못 떨어뜨려도, 배우가 대사 한 번 살짝 씹어도 분위기는 산산조각나는 겁나는 공간이다.

이런 상황에서 남성 배우는 개성있게 여성 배우는 섬세하게, 주눅들지 않고 극을 장악했다. 대사와 구성에서도 ‘밀실 안에서 어려운 수수께끼 하나 풀고 범죄 해결하고 그냥 끝나버리는’, 밀실형 작품이 흔히 빠지는 함정에 빠지지 않았다.

Review



빅픽처스 테이저 코마



현대무용단 자유 적정온도

보험사기와 범행이라는 소재를 통해 인간의 욕망·유혹·죄의식·변명을 끌어냈고 이런 일이 '누구나에게' 일어날 수 있는 인간 보편 문제임을 환기했다. 무엇보다 '허무'라는 삶의 본질 요소를 끄집어냈다. 공연 끝나고도 선뜻 자리에서 일어서기 힘들만큼 여운이 짙었다.

청춘나비의 뮤지컬 '살그시'(연출·각색 박용희, 작곡 박동재, 원작 주형준, 8월 19일 부산문화회관 중극장)는 굉장히 반가운 작품이었다. 지역 언론에서 오래 문화·예술 담당 기자로 일해 온 처지에서 지역 극단이 만들고 다듬은 뮤지컬을 보는 심정이 반가웠고, 그 작품이 에너지 넘치고, 상투성에 빠지지 않으며, 재미있고, 거듭 보고 싶은 점에서 그랬다.

반독재 투쟁에 나섰다가 크게 상처 입은 사연을 가진 사람을 비롯해 낮고 가난한 사람이 모여 사는 어느 달동네가 이 뮤지컬의 배경이다. 온갖 소동과 고난과 아픈 기억에 시달리는 속에서도 시(詩)와 이웃, 서로 보듬는 손길 속에서 이들은 삶에 마땅히 있어야 할 서정성을 되살리고 정(情)을 간직하며 치유의 길로 천천히 나아간다. 뮤지컬을 통해 시를 보듬어 안아 준 점이 고마웠다. 노래와 음악이 객석에 공감을 불러 일으켜 함께 출렁인 점이 좋았다. 영상을 재치있게 쓴 무대미술은 흥미로웠다. 작품은 후반부로 갈수록 집중력이 좋아지면서 인상깊은 마무리를 보였지만, 전반부는 구성과 흐름이 복잡하고 덜 정돈돼 따라가기 쉽지 않았다. 노래와 춤에서는 편차를 느꼈다. 에너지를 더 끌어올리거나 더 세심하게 다듬었으면 싶은 장면이 몇 번 나왔다.

드링크씨어터의 '최저인간'(극작·연출 윤준기, 8월 20일 부산문화회관 사랑채극장)은 좀비들이 등장했다. '좀비 연극'을 택한 점 자체가 신선다운, 신선한 도전으로 다가왔다. 관객과 만나는 접점을 넓히고, 표현의 저력을 높이기 위해서라도 이런 '확장'은 더 활발히 이뤄졌으면 좋겠다.

코로나19가 휩쓸어버린 '오늘, 여기, 우리' 현실과 묘하게 겹친 설정이었다. 황자미를 비롯한 주연급 배우들이 이끈 극의 흐름에는 힘이 있었다. 이 점은 중요했다. '극장에서 연극 보는' 특유의 현장감과 긴박감을 줬기 때문이다. 12명이 출연한 작품인데 좀비 수십 명이 때로 무대를 덮친 느낌을 안기는 등 '소극장에 온 재미'가 선명했다. 반면, '정형성'을 극복하거나 거기서 벗어나지 못했다. 구조와 열개가 '읽힌' 상태에서 극이 진행된다고 할까? 그러니 새로운 요소가 추가돼도 '흥미진진'보다 복잡

해지는 느낌이었다. 좀 덜어내면 어땠을까, 더 단순하게 정돈한 바탕 위에서 다채로움을 추구했으면 어땠을까.

현대무용단 자유의 현대춤 '적정온도'(안무 이언주, 이혜리, 8월 21일 부산문화회관 대극장)는 빼어나고 탁월했다. 그리고 아름다웠다. 현대춤은 '상징'으로 읽으면 작품이 관람하는 이에게 확 다가오는 때가 많다. 그에 따른 장점은 두 가지. 첫째, 관객이 읽어낸 상징과 작품의 전개가 어느 정도 맞아떨어지면, 관객은 이제 좀 덜 헤매면서 작품 안에서 노닐 수 있다. 둘째, 작품 속 상징을 어느 정도 이해하면 작품을 더 다양한 각도에서 볼 수 있다. '달리 보는 것'에 대해 주눅들지 않기 때문이다.

'적정온도'라는 제목이 좋았다. 이 작품은 사람 사이 온도와 거리 이야기였기 때문이다. 동시에 내게는 이 작품이 생태·생명·기후위기에 관한 작품으로 다가왔다. 남들이 아니라 한들 어찌겠나, 내가 그렇게 느낀 걸! 나는 현대춤을 이런 게 가능한 체계로 이해한다. 안무자의 의도를 관객이 객석에서 그대로 읽어내는 일은 현대춤에서 불가능하다. 여성 12명 출연. 그런 점에서 '적정온도'는 힘찼다. 특히 주요한 소도구였던 직육면체는 관(棺)으로, 냉장고로, 벤치로, 의자로, 무대로 시시각각 변했다. 다만, 현대무용계에 면면히 내려오는 '전통적인 현대춤 동작과 구성'이 간간히 보인 점은 잘 안 어울렸고, 나빴다.

조군댄스의 '갑자기 part 2'(안무·연출 조현배, 8월 22일 부산문화회관 중극장)는 '내가 현대춤 작품을 보러 공연장에 간다면 꼭 보고 싶은 종류의 작품'이다. 나는 이 작품 속에 어떤 '내러티브'나 '이야기(서사)'가 들어있는지, 숨어있는지 모른다. 보면서도 알아채기 어려웠다. 하지만 흐름·방향·분위기는 느낄 수 있었다.

나는 느끼려 했고 나름대로 해석하려 했다. 어떤 이는 '왜 그렇게 해석하려 드느냐, 그냥 느껴라'고 말하지만 나는 그 말을 진정으로 이해할 수 없다. 해석하는 게 뭐가 나쁘며, 그것은 느끼는 것과 과연 다른 것인가? 동떨어진 것인가? 천만의 말씀이다. 이런 과정에서 조현배 안무의 작품은 '새로움' '분투' '낮춤' '시각의 변혁' 등으로 결정(結晶)화됐다. 객석에 있는 나는 맹렬하게 뇌와 가슴을 움직이는 '살아있는 존재' '주체적인 사람'이 되어간다. 내게는 이게 현대춤 보는 중요한 묘미다.

이번 2021 부산신진예술페스티벌에서는 빅픽처스테이지의 '코마'가 2022년 부산문화회관 시즌 공연에 참가할 자격을 거머쥐었다고 한다.

화려한 수사(修辭), 사라진 존재

2021 BSCC 제작공연 시리즈
‘MOTI/어디로부터’

◆ 이상현 춤 비평가

<MOTI/어디로부터>, ‘어디’는 정하지 않은 곳을 가리키는 말이고, ‘~로부터’는 거쳐 온 출발 지점이나 대상을 나타내는 부사격 조사이다. ‘~로부터’를 사용하려면 ‘어디’ 대신 특정 지점이나 대상을 제시해야 한다. 단순한 실수일 수 있지만, 공연을 끝까지 보면 이 문법 오류가 작품의 결정적인 문제점을 알려 준다는 느낌이 든다.

투명한 가림막 뒤 14명 춤꾼이 서 있다. 앞이 뻗히 보이지만 한 발도 나아가지 못하는 그들은 무한한 가능성에도 도전할 기회조차 얻지 못하는 이 시대 젊은 예술가의 초상이다. 부산문화회관은 9월 3일부터 5일까지 대극장에서 공연할 <MOTI/어디로부터>를 위해 무용수 공개 오디션을 진행했다. 춤추고 싶지만 마땅한 기회가 없는 많은 젊은 춤꾼 중에 14명을 가려 뽑았다. ‘MOTI(모티)’는 모퉁이의 경상도 사투리이고 ‘동기(動機)’의 영어단어 ‘Motivation’을 뜻하기도 한다. 위기 속에 기회가 있다는 말처럼 현실의 모퉁이에 몰린 절박함이 위기를 극복할 동기가 되기도 한다는 의미일 것이다. 공연이 시작하면 무대 옆 모니터에 출연자 한 명씩 자신의 바람을 담담한 표정으로 인터뷰한 영상이 나온다. ‘취직하고 싶다’, ‘함께 춤추던 동료가 포기하는 것을 보면 불안하다’, ‘정단원이 되고 싶다’ 등 춤추면서 먹고살 수 있으면 좋겠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다고 말한다. 여기에서 관객은 14명이 단순히 무용수 역할만 하는 것이 아니라 작품에 그들의 현실이 반영되었고, 춤에 각자의 아픔을 새겼을 것이라는 기대를 한다.

작품은 모두 7장이다. 1장 ‘어디로부터’는 현재를 살아가는 이들이 겪고 있는 내면의 혼란이 격동하는 장이다. 2장 ‘Alone’은 세상에서 소외됐다는 심정으로 허



탈해하는 장면이다. 3장 '잔화(殘花)'에서 무참히 떨어지는 꽃을 표현했는데, 꽃은 젊은 예술가들이다. 작품 중반부이자 클라이맥스인 4장 '끄티'는 막막한 현실의 벼랑 끝에서 뛰어내리는 것으로 이상(理想)을 향한 비상을 상징했다. 5장은 '모티'이다. '아직 끝은 없었고, 꽃들은 다시 피어난다'는 표현으로 위기에 도전과 희망을 놓치지 않아야 한다는 뜻을 담았다. 6장 '탈화(脫化)'는 위기를 겪으며 자아가 성숙하는 과정이다. 5장, 6장은 위기의 극단으로 달렸던 전반부를 추스르는 부분이다. 마지막 7장 'End but And'는 '지리멸렬한 삶의 순간을 벗어나며, 세상을 향한 몸짓을 펼친다'. 끝이 새로운 시작이기도 하다는 의미이다.

작품은 일반적인 극 구성을 따랐으며 특이점은 없다. 그런데 구성 안에서 젊은 예술가들의 절박한 현실을 <MOTI/어디로부터>가 어떻게 반영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1장에서 현재를 살아가는 이들이 겪고 있는 내면의 혼란이 어디에서 왔는지 묻는 듯하지만, 반복하는 동작은 존재의 방향과 개인의 혼란을 증폭해 혼란 자체만 강조한다. 2장에서 방향하는 개인이 소외감에 허탈해하지만, 무엇이 그들을 벼랑으로 몰았는지에 관한 어떤 힌트도 찾을 수 없다. 허탈과 무기력감에 쌓인 그들은 3장에서 무참히 떨어지는 '꽃'이 되어 패배의 서사에 갇힌다. 4장에 이르면, 벼랑 끝에서 뛰어내려야 한다. 그것이 이상을 향한 비상이며, 그래야 미성숙한 과거를 극복하고 성공할 수 있다고 말한다. (5장, 6장) 그들을 벼랑 끝으로 몰아붙인 원인에는 관심 없고, 성숙한 자아, 이상을 향한 비상이라는 그럴듯한 말로 그들을 다그친다. 모두에서 제목 '어디로부터'의 문법 오류가 작품의 문제점을 알려준다고 한 이유가 이 지점에 있다. 개인이 초래한 위기는 개인이 극복해야 하지만, 지금 그들이 겪는 위기는 개인이 초래한 것이 아니다. <MOTI/어디로부터>의 전제는 이 시대 젊은 예술가가 직면한 위기가 예술·예술가의 사회적 역할과 가치를 인정하지 않는 공동체의 문제라는 사실을 밝히는 것이어야 했다. 젊은 예술가들이 같은 위기를 느끼는 이유도 문제의 발단이 공동체에 있기 때문이다.

구성 문제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절박함은 무대를 채우기 충분했다. 춤사위 하나, 표정 하나, 땀 한 방울 그 어느 것도 절박하지 않은 것은 없었다. 선발된 14명에게 남은 것은 절박함이었다. <MOTI/어디로부터>가 그들의 절박한 상황을 주제로 삼았



지만, 작품 안에서 콕미소, 김도은, 김민지, 김시현, 김주연, 김지윤, 김태성, 류가빈, 박정현, 박홍준, 손현주, 이송희, 최윤정, 하현정은 익명의 존재가 되었다. 작품을 설명하는 화려한 수사어에 묻혀 개별성은 사라지고 두루뭉술하고 판에 박힌 개인의 위기 극복 이야기가 되었다. 혼신을 다한 14명 젊은 무용가들은 관객의 환호에 벅차겠지만, 내일이면 아무것도 변하지 않은 세상과 다시 만날 것이다. 열정을 바쳤던 시간은 잊히고, 먹고 살기 위해 일하고, 정단원이 되기 위해 마음 졸이는 시간을 버텨야 한다. 막은 내렸고, 질문은 남았다. <MOTI/어디로부터>는 누구를 위한 작품인가? <MOTI/어디로부터>는 그들에게 무엇을 주었고, <MOTI/어디로부터>의 성과는 누구의 몫인가? 프랑스의 철학자 알랭 바디우(Alain Badiou)는 춤이 사회적 모방, 진지함, 예의로부터 몸을 완전히 해방하기에 자신의 힘으로 바퀴를 돌리는 일이라고 했다. 바퀴를 돌리는 것은 예술이 스스로 진리를 만들어 낸다는 의미다. <MOTI/어디로부터>에 서처럼 젊은 예술가들을 기성의 권위에 다시 기대게 한다면 바퀴는 그 아래에서 멈출 것이다. 현실의 벼랑에 몰린 젊은 예술가의 위기는 대상화, 소재화해도 될 가벼운 그들만의 일이 아니다. 우리도 같은 벼랑에서 그들과 마주하고 서 있다.

사람과 예산, 시스템 면에서 부산 공연계의 정점에 있는 부산 문화회관은 정체한 부산 공연예술계에 활력을 불어넣는 노력을 하고 있다. 이번 기획도 그 연장선에 있다. <MOTI/어디로부터>는 부산문화회관이 기획만 아니라 제작까지 한 작품으로 부산 무용계에 전례가 없었다. <MOTI/어디로부터>가 보여준 가능성과 미래를 위한 피드백이 하나의 전형이 될 수 있지만, 반드시 짚어야 할 것이 있다. 이 좋은 기획이 제대로 효과를 내려면 젊은 예술가의 절박함을 소재 삼아 작품 하나 완성하는 것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사실과 이를 넘어서는 방식을 함께 고민해야 한다.

임응식의 생활주의 사진 한국 리얼리즘 사진의 출발

임응식 작품전 '부산에서 서울로'

◆ 박희진 사진가, 동주대학교 교수

지난 2012년 부산시립미술관 '임응식 탄생 백주년 기념전시'에 이어 2016년 동아대학교 석당박물관에서 피란수도 부산야행이라는 행사를 진행하면서 '한국전쟁 중군기자 임응식'이라는 전시가 개최되었다. 사진가 임응식의 대규모 부산 전시로는 세 번째로 9월 10일부터 10월 24일까지 부산시민회관 갤러리에서 '부산에서 서울로'라는 기획전시가 진행되고 있다. 1973년 부산시민회관이 개관하면서 역사적인 첫 전시를 개최한 사진가 임응식은 부산시 서구 대신동 576-2번지에서 1912년 11월 출생하여 부민공립보통학교(현, 부산 서구에 위치한 부민초등학교)를 졸업하였으며 청소년기에는 그림과 음악을 좋아하였고 장래희망은 화가였다고 한다. 일본 동경의 와세다대학(早稻田大學) 부속중학교 입학 선물로 큰형인 임응룡으로부터 독일제 카메라 박스 탕고르(Box Tengor)를 선물 받으면서 사진에 대한 호기심을 가지기 시작하였으며, 귀국 후 1931년 부산사진여광구락부에서 사진활동을 펼쳤다. 1940년대에는 부산에서 사진현상 및 재료상인 아르스(ARS)를 열었고 부산광화회(釜山光畫會)를 결성하였다가 이어서 1947년 부산예술사진연구회를 조직하여 회장을 역임하였다. 1950년에는 인천상륙작전에 보도사진반원으로 종군하였고 이후 '경인선전보도사진'이란 개인전을 부산에서 화랑과 가두 전시 등으로 진행하였다. 1952년 한국사진작가협회를 조직했으며 1953년에는 국내 최초 대학 사진강좌를 서울대학교에 개설하여 직접 강의를 담당하였다. 1957년에는 미국 현대미술과(MOMA)의 '인간가족전(The Family of Man)' 전시를 경북궁 미술관에 유치하였으며 1978년 중앙대학교 예술대학 사진학과를 교수직을 퇴직하고 1989년까지 명예교수로 후진양성에 몰두하였다. 과천 국립현대미술관 초대 전시를 비롯하여 수많은 기념비적인 전시와 작품을 남겼다.

한국전쟁 전·후 임응식의 사진적 자각

임응식의 사진은 한국전쟁 이전과 이후로 나누어 이야기할 수 있다. 1934년 작품활동을 시작하면서 일본 사진살롱지에서 '초자(硝子)의 정물'이란 작품으로 입선하는 등 초기에는 일본 사진의 영향으로 서정적이고 향토색 짙은 살롱사진 즉, 회화적인 사진을 선보였으나 해방 후 한국전쟁 당시 인천상륙작전에 종군하면서 사진의 기록성과 리얼리즘에

사진1. 서울 파고다(1958년)



사진2. 서거 2년 전 명동에서 찍은 사진(1999년)



대한 자각으로 생활주의 사진을 주장하게 된다. 임응식이 주장한 생활주의 리얼리즘 사진은 살롱사진 풍의 회화주의 사진을 배척하고 현실 그대로의 모습을 사진으로 담아내는 것을 의미하였다. 이러한 임응식의 생활주의 리얼리즘은 1950년대 한국 사진의 주류로 자리 잡았으며 생활주의 리얼리즘 사진의 배경에는 한국전쟁의 실상과 중군 경험 그리고 라이프(LIFE)지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본격 등장한 포토저널리즘 등을 꼽을 수 있다. 인천상륙작전에 중군했을 때 미군 전투함정에서 라이프지의 중군기자 행크 워커(Hank Walker)의 만남에서 “어떤 약 조건에서도 우선 찍는 게 우선이다”라는 깨우침이 있었고 새벽 전장터 약조건 촬영 현장을 사진으로 남기지 못한 아쉬움을 회고하기도 하였다. 또한 임응식을 비롯하여 몇몇 한국 중군사진가들이 남긴 사진들 중 치열한 전투 장면이나 전쟁의 비참함을 현실적으로 묘사한 사진이 많지 않은 이유는 당시 정치적 사회적 통제권이 미국에 있었으므로 중군사진가들의 개인행동이나 자발적인 사진 취재에는 한계가 있었을 것으로 짐작할 수 있다. 한국전쟁 이후 임응식은 현실을 직시하게 되고 기존의 살롱 사진에서 벗어나 인간생활의 삶 자체에 대한 본질적인 실상과 의미를 사진으로 남기고자 했으며 이러한 생각과 생활 모습의 소재들은 생활주의 리얼리즘의 바탕이 되었다.

사회적 다큐멘터리에서 개인적인 관점의 사진작업으로 확장

이번 '부산에서 서울로' 전시는 1950년대 이전의 사진과 한국전쟁 이후 사진 작업의 극명한 차이를 알 수 있도록 사진 작업의 연도순으로 작품이 설치되어 있다. 1930년대와 40년대 사진은 갤러리 좌측 공간에 자리 잡고 있으며 포토그램 습작들과 살롱풍의 회화주의 사진들로 디스플레이 되어있으며 우측 공간에는 갤러리 입구에서부터 촬영 연도순으로 작품이 전시되어 있다. 미국의 경우 윌리엄 클라인(William Klein)의 1956년 뉴욕(New York)과 1958년 로버트 프랭크(Robert Frank)의 미국인(The Americans)을 기점으로 현대사진의 출발이라고 정리한다. 임응식이 1958년 파고다에서 찍은 사진은, 마치 윌리엄 클라인과 로버트 프랭크의 동시대를 함께 걸어갔던 동료들의 사진 작업처럼 느껴진다. 다시 말해 임응식은 시대를 앞서가는 사진들을 남겼다고 할 수 있다.^[사진] 한국전쟁과 전쟁 직후 찍은 사진들은 사회성이 내재된 다큐멘터리 사진에 가깝다고 분류한다면 생활주의 사진을 선포한 1950년대 후반부터

의 사진들은 지극히 개인적인 관점에서 시민들의 생활과 사회상을 해석하는 사진들로 작업이 확장되었다. 1999년 서거 2년 전 찍은 명동의 소원도 사진은 20세기 초 프랑스의 으젠느 아제(Eugène Atget)가 남긴 사진에서 느끼는 것처럼, 현실과 현재를 찍었지만 마치 현실을 벗어난, 초현실주의 사진과 같은 분위기가 느껴진다.^[사진]

작품 전시 방법에서 아쉬움 남겨

이번 사진 전시에 있어서 아쉬운 점도 있다. 우선 제한된 전시 공간으로 인해 사진작품들이 숨 막히게 정렬, 전시되어 있어 작품 감상을 방해하고 있다는 것이다. 작품 하나하나를 생각하고 느껴며 감상하기에는 협소한 공간에 다닥다닥 붙어 있는 디스플레이가 너무 아쉬울 따름이다. 부산시민회관 갤러리 2층에는 임응식 사진 속에 등장하는 부산의 현장을 찾아 변화된 현재의 모습을 사진으로 보여주는 전시가 함께 진행되고 있다. 이해하기 힘든 전시 방법, 보여주는 방법에 서운함을 느낀다. 거장의 사진과 사진전공 대학생들이 찍은 사진의 비중과 무게 차이를 지적하는 것은 결코 아니다. 적어도 과거와 현재를 사진으로 재해석하기 위한 목적이었다면 적어도 과거와 현재의 사진을 서로 동일한 크기로 배치와 배열을 수평적 관점과 비중으로 하여야 기획의도를 달성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과거사진이 있기에 현재의 모습을 사진으로 해석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근본이 된 과거의 임응식 사진을 보기도 판독하기도 힘든 무릎 아래 위치 정도에 작게 배치하고 현재 사진을 몇 배 크게, 감상자의 시선에 배치한다는 것은 도저히 납득하기 힘든 레이아웃이다. 한국 사진의 거장이란 전시 타이틀에도 어울리지 않는 작품 설치에 거듭 서운함과 아쉬움을 밝힌다.

생활주의 리얼리즘, 한국사진의 역사에서 유일한 사진사조(思潮)

임응식이 시작한 생활주의 리얼리즘 사진은 한국 다큐멘터리 사진의 초석이 되었다. 그리 길지 않은 한국 사진의 역사에서 유일하게 존재했던 사진 사조(思潮)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임응식의 생활주의 리얼리즘 사진'이 유일했다고 할 수 있다. 부산에서 태어나 서울로, 그리고 한국 사진의 거장으로 자리매김한 임응식은 사진가, 사진평론가, 교육자로서는 물론이고 사진단체를 이끌어간 선구자로서 인간적인 삶과 열정적인 사진가로 인정받고 있다.

부산문화회관

**(재)부산문화회관 기획전
매그넘 인 파리**

일 시 | 6월 28일(월)-10월 10일(일) 전시실
 입장료 | 성인(20세 이상) 1만5천원,
 청소년(14세~19세) 1만3천원
 어린이(3세~13세) 1만원
 문 의 | 가우디움어시시에이츠 070-7779-8990
 www.magnuminparis.com



세계문화수도라 불리는 파리의 다양한 모습을 조망해보는 특별한 사진전 '매그넘 인 파리'. 로버트 카파, 마크 리부, 엘리엇 어윗 등 20세기 사진의 신화로 불리는 매그넘 포토스(Magnum Photos)의 소속 작가 39명, 작품 346여 점(작품 224점, 8개의 영상으로 구성된 122점의 사진)을 통해 1930년대부터 오늘날까지 파리의 어제와 오늘, 그리고 내일을 살펴볼 수 있다. 전시기간 동안에는 전시와 연계한 다양한 주제의 특강도 열린다.

- 관람시간/오전 10:00-오후 6:00 (입장 마감 오후 5:00)

**부산시립극단 특별공연
미운오리새끼**

일 시 | 9월 28일(화)-10월 23일(토)
 오전 11:00(평일 단체공연, 일요일 공연없음) **사랑채극장**
 입장료 | 전석 1만원
 (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30% 할인)
 문 의 | (재)부산문화회관 607-6000



부산시립극단이 안데르센의 동명의 동화를 뮤지컬로 제작한 '미운오리새끼'. '미운오리새끼'는 수많은 안데르센 동화 중에서도 가장 널리 알려진 작품으로, 부산시립극단은 이번 작품에서 '미운오리새끼'가 가진 다양한 해석 중에서도 전통적 해석 중 하나인 '자아찾기를 현대적 시각으로 풀어본다. 주인공 '미운오리새끼'는 이번 작품에서 '미운오리'로 환골탈태하여 '백조'로 계급 상승에 성공하는 것이 아니라 '백조'이면서 '오리'인 존재로 자신만의 가치를 존중한다.

- 연출/김지용

**독우회 제53회 정기연주회
Die Reise(여행)-Franz Schubert**

일 시 | 10월 1일 금요일 오후 7:30 **중극장**
 입장료 | 초대
 문 의 | 독우회 010-2802-1672



지난 1994년 독일에서 공부하고 귀국한 후 부산을 중심으로 활발한 활동을 펼치며 대학에서 후학 양성에 힘쓰고 있는 전문 음악인들로 결성된 독우회의 53번째 정기연주회. 매년 정기연주회를 통해 테마가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관객들과 만나온 독우회는 이번 무대에 서 슈베르트의 음악세계로 관객들을 안내한다.

- 연주/김문영, 이요한, 이선화, 금찬이, 김은정, 황정미, 선지수, 박윤정, 김지민, 서영진, 이문숙, 강민정
- 게스트/장은영(소프라노), 조윤환(테너), 이한석(클라리넷), 손은혜(바이올린), 윤솔샘(비올라), 변은석(첼로), 우현수(더블베이스)

**뮤지컬 번개맨
:검은 번개맨의 정체는?**

일 시 | 2일-3일 토-일요일 오전 11:00,
 오후 2:00, 오후 4:30 **대극장**
 입장료 | R석 6만6천원, S석 5만5천원
 문 의 | (주)하늘이엔티 1688-6675



어린이들의 영원한 히어로 '번개맨'이 탄생 20주년을 맞아 보다 새롭고 스펙타클한 대형뮤지컬로 찾아온 '번개맨:검은 번개맨의 정체는?'. 조이랜드의 번개타운, 번개맨처럼 착하고 용감한 영웅이 되고 싶어 하는 아이들을 위해 번개 수업이 열리고, 마음 착한 웅이와 친구들이 즐겁고 신나는 번개수업을 받는다. 하지만 악장 나팔난과 더잘난은 번개맨에 대적한 강력한 힘을 가진 검은 번개맨을 만들어내는데, 과연 번개맨과 웅이는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을까?
 한순간도 눈을 땄 수 없는 스펙터클한 무대와 놀라운 특수효과까지 관객을 사로잡는 '번개맨'은 어린이들에게는 지혜와 용기를, 어른들에게는 재미와 감동을 선사한다.

**국악창작실내악 기획공연
거짓된 소문**

일 시 | 10월 3일 일요일 오후 7:00 **중극장**
 입장료 | 초대
 문 의 | 국악그룹 트락 010-3591-0861



지난 2017년 뜨거운 열정을 지닌 젊은 국악인들로 창단한 후 그동안 다양한 창작작업을 통해 대중과 소통해온 국악그룹 트락의 국악창작실내악 무대. 이번 무대는 영도구 중심에 위치한 봉래산 할매바위에 얽힌 오래된 전설을 소재로, '영도 밖으로 나가면 삼심할매가 노아서 집안이 망하다'는 거짓된 소문을 새로운 시각으로 풀어낸 창작실내악 무대를 선보인다.

- 연출, 총감독/김혜지
- 출연/김혜지(피리·태평소), 김다솜(소리), 이수민(신디사이저), 이유민(해금), 안유진(타악), 고현아(대금)
- 객원연주/김명진, 권다정, 최예찬
- 무용/댄스프로젝트 소희(백소희, 이다영, 김지윤)

스트링 아데소 정기연주회

일 시 | 10월 3일 일요일 오후 6:00 **챔버홀**
 입장료 | 전석 1만원
 문 의 | 스트링 아데소 010-4006-0059



바이올리니스트 김주영을 리더로 비올리스트 김규, 첼리스트 김민승 등 솔로리스트로서 탁월한 실력을 지닌 연주자들로 구성된 스트링 아데소의 무대. 이탈리아어로 '지금(Adesso)'이라는 뜻을 지닌 스트링 아데소는 그동안 바로크와 고전, 낭만, 현대에 이르는 다양한 작곡가들의 작품들을 다양한 편성으로 연주함으로써 음악의 아름다움을 청중에게 선사해왔다. 미국 맨하탄음대 한국인 최초 바이올린 전공 박사학위를 취득한 김주영은 현재 창원대학교 겸임교수, 부산심포니오케스트라 악장으로 있으며, 김규는 부산심포니에타 수석, 앙상블 자비에 멤버로, 김민승은 부산시립교향악단 단원, 앙상블 자비에 멤버로 다양한 무대에 서오고 있다.

부산페스티벌오케스트라 제27회 정기연주회 Two Triple Concertos

일 시 | 10월 5일 화요일 오후 7:30 **중극장**
입장료 | 전석 1만원
문 의 | 부산페스티벌오케스트라 010-3376-2246



부산, 경남지역의 젊고 유능한 연주자들로 창단한 부산페스티벌오케스트라 정기연주회.

지난 1998년 10월 부산에서 첫 공연을 가진 후 지난 20년 동안 바로크 시대에서 현대음악에 이르기까지 모든 장르의 음악작품들을 연주할 수 있는 단체로 성장해온 부산페스티벌오케스트라는 특히 창작관현악을 지속적으로 소개함으로써 현대음악발전에 많은 노력을 해오고 있다.

동서대학교 교수, 경북도립교향악단 지휘자, 중국 텐진심포니 수석객원지휘자, 부산마루국제음악제 예술감독으로 있는 지휘자 백진현이 지휘하는 이번 무대에서는 모차르트와 베토벤의 삼중협주곡을 들려준다.

테너 박재화 리사이틀

일 시 | 10월 5일 화요일 오후 7:30 **챔버홀**
입장료 | 전석 1만원
문 의 | 박재화 010-7152-7657



계명대학교 성악과를 졸업하고 도이, 밀라노 베르디 국립음악원과 밀라노 도니제티 시립음악원 최고연주자 3년 과정을 졸업하고 현재 부산시태리음악연구회 회원, Art Company the Lirico 대표로 있는 테너 박재화

독창회.
대학 재학 시절 조두남 전국성악콩쿠르 1위, 동아음악신문사 전국성악콩쿠르 3위를 수상하며 그 실력을 인정받은 박재화는 유학 후에는 Giuglietta Sionato 국제콩쿠르 2위, Principessa Cristina Trivulzio di Belgioioso 국제콩쿠르 2위, Rinata 국제콩쿠르 최고성악가상 등 우수 콩쿠르에서 입상하며 큰 주목을 받았다. 박재화는 국내외의 수많은 음악회와 오페라 무대에서 활발한 활동을 펼쳐오고 있다.

- 피아노/김아영

부산시립청소년교향악단 특별연주회 Poco a poco:점점

일 시 | 10월 6일 수요일 오후 19:30 **대극장**
입장료 | 전석 2천원
문 의 | (재)부산문화회관 607-6000



올 한해 후기 고전주의와 낭만주의, 그리고 근대에 이르는 대표적인 작곡가들의 명곡을 소개해온 부산시립청소년교향악단 특별연주회 'Poco a poco:점점'

수석지휘자 이명근이 지휘하는 이번 무대에서는 러시아계 미국 작곡가 스트라빈스키를 비롯해 독일의 작곡가이자 첼리스트로 활동했던 단치, 폴란드의 바이올리니스트이자 작곡가 비에니아프스키, 낭만주의 시대에 활동한 체코 작곡가 드보르자크와 러시아 작곡가 차이콥스키까지 다채로운 프로그램으로 관객과 만난다. 특히 이번 무대에서는 부산시립청소년교향악단 단원 김공빈, 이수빈, 문예빈, 성아란이 협연자로 출연, 열정적인 무대를 펼친다.

- 지휘/이명근(수석지휘자)

부산국악작곡가회 제20회 정기연주회 새로운 소리여행

일 시 | 10월 6일 수요일 오후 7:30 **중극장**
입장료 | 초대
문 의 | 부산국악작곡가회 010-2448-0823, 010-3875-0806



지난 2002년 창단 후 매년 작곡발표회를 통해 창작국악의 저변확대에 힘써온 부산국악작곡가회의 무대로, 지휘자 백규진이 지휘하는 효원국악관현악단의 연주로 백진희, 박선영, 성기영, 이은경, 김명옥, 조익래, 황의

중 등 작곡가 7명의 창작곡을 소개한다.

프로그램
백진희/25현가야금 독주곡 '기약'
박선영/Happy Yearing
성기영/별이 되는 연승
이은경/줄 위에서
김명옥/대산(大山)
조익래/클라리넷과 국악관현악을 위한 和而不同
황의중/해금협주곡 '갈대꽃'

피아니시모 제14회 정기연주회 PIANO_숨

일 시 | 10월 6일 수요일 오후 7:30 **챔버홀**
입장료 | 전석 1만원(학생 50% 할인)
문 의 | 피아니시모 음악연구회 010-8533-9662



지난 2010년 현장에서 후학양성에 힘쓰고 있는 선생님들로 구성된 피아니시모 음악연구회 정기연주회.

전문 연주가가 아닌 음악을 사랑하고 즐길 수 있는 사람들이 연주할 수 있는 활동의 무대를 넓히 고자 모인 피아니시모 음악연구회는 연주무대와 함께 피아노 교수법 세미나를 갖는 등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이번 정기연주회는 코로나19로 답답하고 지친 마음을 위로하고자 마련된 무대로, 모든 곡을 4Hands로 들려주며, 온라인을 통해 실시간 라이브로도 감상할 수 있다.

- 해설/이은형(회장)
- 연주/강윤정, 김미량, 김아림, 박수연, 이지아, 이학임

부산시립합창단 제183회 정기연주회 현대 합창 거장들의 합창세계

일 시 | 10월 7일 목요일 오후 7:30 **대극장**
입장료 | 전석 1만원
(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30% 할인)
문 의 | (재)부산문화회관 607-6000



국내에서는 쉽게 연주되지 않는 현대합창곡을 소개하는 부산시립합창단의 특별한 무대 '현대 합창 거장들의 합창세계'.

예술감독 이기선의 지휘로 열리는 이번 무대에서는 부산시립합창단만의 차별화된 선곡으로 1부 외국 작곡가에 이어 2부에서는 한국 작곡가의 현대합창곡을 들려준다. 특히 이번 무대는 고도의 균형과 집중력을 요하는 소규모 합창곡으로 부산시립합창단만의 깊고 넓은 음악적 울림을 만날 수 있으며, 지역 예술인들과의 협업무대도 기대할 수 있다.

- 바이올린/신효은, 이수정 • 비올라/천재현
- 첼로/이시은 기타/김경태
- 퍼쿠션/김영훈, 조영진

작곡그룹 An-ti Stimmung 제21회 작품발표회 함께 가다

일 시 | 10월 7일 목요일 오후 7:30 **챔버홀**
입장료 | 초대
문의 | 작곡그룹 An-ti Stimmung
010-8212-0222, 010-4568-2687



매년 새로운 주제의 창작곡을 통해 현대음악과 청중 사이의 소통을 시도해 온 작곡그룹 안티스티뮴(An-ti Stimmung)의 21번째 창작곡 발표회.

지난 2000년 창단된 후 21세기 창작음악의 새로운 방향을 추구하며 청중들이 이해하기 쉬운 음악을 들려주기 위해 노력해 온 작곡그룹 안티스티뮴은 이번 무대에서 조희주(부산대학교 명예교수)를 비롯해 황선영(부산시립교향악단 단원), 진소영(동아대학교 교수), 주창근(부산전자음악협회 회장), 김유리(대구국제현대음악제 상임고문), 정지영(한세대학교 교수), 정수란(부산대학교 교수), 박기섭(대구교육대학교 교수), 진영민(경북대학교 교수)의 창작곡을 들려준다.

(재)부산문화회관 기획공연 뮤지컬 전설의 리틀 농구단

일 시 | 10월 9일 토요일 오후 2:00, 6:00
중극장
입장료 | R석 3만원, S석 2만원
(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30% 할인)
문의 | (재)부산문화회관 607-6000



꿈꾸는 청춘들의 치열한 농구 한 판, 대학로 흥행 뮤지컬 '전설의 리틀 농구단'. 반에서는 왕따, 집에서는 외톨이인 고등학생 수현과 그 주변 인물들을 통해 자살, 학업 스트레스, 학교 폭력 등의 문제를 따스하게 담아낸 '전설의 리틀 농구단'은 재미와 감동을 동시에 이끌어 낸 스토리에서부터 박진감 넘치는 농구 기술과 안무의 접목, 그리고 OST까지 발매될 정도로 많은 사랑을 받은 넘버 등 그동안 대한민국 젊은 창작 뮤지컬의 성공 사례로 손꼽히며 많은 사랑을 받아왔다.

- 출연/유승현, 임진섭, 구준모, 김찬, 안지환, 신창주

더 블로섬 열다섯 번째 이야기 Our Best Days

일 시 | 10월 9일 토요일 오후 5:00
챔버홀
입장료 | 초대
문의 | 더블로섬
010-3284-9428, 010-8308-0003



피아니스트 심하정, 플루티스트 김윤희, 바이올리니스트 정다희, 안은지, 비올리스트 김가민, 첼리스트 김나래 등 부산을 기반으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여섯 명의 여성 연주자로 구성된 더 블로섬의 15번째 정기연주회.

부산에서 흔히 연주되지 않는 곡들과 특별한 편성으로 프로그램을 구성, 부산 실내악 음악의 발전과 클래식 음악 대중화를 위해 힘써오고 있는 더블로섬은 이번 무대에서 체코의 작곡가 드보르작의 탄생 180주년을 맞아 현악4중주 '아메리칸'을 플루트, 바이올린, 비올라, 첼로 편성으로 편곡하여 연주하며, 후반부에서는 실내악적 간결함이 돋보이는 피아노5중주 제2번을 들려준다.

워커장군 추모 제1회 유엔평화음악회

일 시 | 10월 10일 일요일 오후 7:00 **중극장**
입장료 | R석 5만원, S석 3만원, A석 2만원
문의 | 박영근 611-1002, 010-3765-0917



유엔평화문화재단추진위원회와 재부울산향우회가 주최하는 제1회 유엔평화음악회.

6·25 전쟁 당시 낙동강 전선을 목숨을 걸고 사수했던 워커 장군을 기리기 위한 추모음악회로, 프랑스 마르세이유 극장, 스위스 제네바 국립극장 솔리스트로 활약하던 소프라노 황선영과 독일을 중심으로 활동하다 현재 대구 가톨릭대학교 교수로 있는 바리톤 김동섭, 그리고 JTBC 팬텀싱어를 통해 선풍적인 인기를 끈 피지 출신의 쇼코가 출연, 우리가곡과 오페라 아리아, 가요 등 다채로운 곡을 들려준다.

- 소프라노/황선영, 장문선
- 바리톤/김동섭 • 테너/쇼코
- 피아노/최민경 • Director/조희주

정애라 플루트 독주회

일 시 | 10월 10일 일요일 오후 4:00 **챔버홀**
입장료 | 초대
문의 | 정애라 010-2580-1112



신라대학교와 오스트리아 빈 국립음대를 졸업하고 현재 인제대학교 대학원에 재학중인 플루티스트 정애라 독주회.

정애라는 한국음악협회 콩쿠르 입상, 부산음악교 육연구회 콩쿠르 1등 등 수차례 콩쿠르에서 입상하고 현재 UKO 아카데미, 다온 다문화 청소년오케스트라 강사로 있으며 동래초등학교, 분포초등학교에 출강하고 있다.

이번 무대에서는 Pietro Morlacchi, 필리프 고베르, 앨딘 버튼, 마이클 도허티, 알렉산더 로젠블라트 등 다양한 작곡가들의 곡을 들려준다.

- 피아노/이은정 • 플루트/김성식

2021년 향신회 제58회 정기 작곡발표회 한국의 전래동화와 현대음악

일 시 | 10월 12일 화요일 오후 7:30 **중극장**
입장료 | 초대
문의 | 향신회 010-4550-1299



부산의 대표적인 창작음악 단체인 향신회의 2021년 정기 작곡발표회.

지난 1974년 부산지역의 창작음악 활성화와 작곡가들의 창작곡 발표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출범한 향신회는 그동안 57차례 정기 작곡발표회를 통해 매년 다양한 창작곡을 소개해오고 있다.

이번 무대에서는 이승은, SU LEE, 문지은, 노선경, 권유미, 이윤희, 진소영, 강영하, 허순봉 등 작곡가 8명의 창작곡이 소개된다.

- 지휘/박성은
- 연주/미레필하모니 오케스트라

제52회 부산피아노연주가클럽 정기연주회

일 시 | 10월 13일-14일 수-목요일 오후 7:30

중극장

입장료 | 초대

문의 | 부산피아노연주가클럽 010-6563-6692



현재 부산지역 피아니스트 320여 명이 회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부산을 대표하는 피아니스트들의 모임인 부산피아노연주가클럽 정기연주회.

부산피아노연주가클럽은 지난 1996년 창단연주회를 시작으로 매년 두 차례

의 정기연주회를 통해 새로운 레퍼토리를 소개하며 젊은 음악인들의 등용문 역할을 해오고 있다. 첫 날은 신예연주자를 소개하는 무대로, 아름다운 음색과 음악적 해석력이 뛰어난다는 평을 받는 피아니스트 김미성의 독주회가 펼쳐지며 이튿날에는 최고의 기량을 지닌 연주자들이 다양한 시대의 피아노음악을 자신만의 음악적 열정으로 풀어낸다.

13일(수) 김미성 독주회

독일 슈투트가르트 국립음대와 데트몰트 국립음

대 석사과정, 마인츠 국립음대 최고연주자과정을 졸업하고 재학 중 Dr. Carl Dorken Stiftung 장학생으로 선발되어 현재까지 소속 연주자로 유럽에서 활동중인 김미성 피아노 독주회.

유학 중 이탈리아 Treviso international piano competition, Ischia international piano competition solo & duo 부문 2위, 스페인 Tenerife I Agustin Aponte International Music Competition 2위 등 해외 여러 콩쿠르에 입상함으로써 그 실력을 인정받은 김미성은 2019년 귀국 후 한국과 유럽을 오가며 다양한 무대에서 관객들과 만나고 있다.

프로그램

- L 아우어바흐/프렐류드 작품 41
- 베토벤/소나타 다장조 작품 2
- 드뷔시/베르가마스카 모음곡
- 쇼팽/24개의 전주곡 작품 28

14일(목) 피아노의 초월(超越)

다양한 시대의 작품을 시간과 공간의 한계를 뛰어넘어 아름다운 선율로 생생하게 전하는 무대로, 자신만의 음악 이야기를 담은 예술적 초월함으로 감미로운 피아니즘의 향연을 펼친다.

- 출연/정호인, 위은정, 전숙영, 최지은, 최민경&임효진, 김무성&조윤정, 최윤희&안준희, 강형은&윤지영&신희정&김민주, 박나희&김태현&이인경&이요한

부산시립합창단 특별연주회 및 스타프로젝트 해설이 있는 뮤지컬 갈라콘서트 레미제라블

일 시 | 10월 14일 목요일 오후 7:30 챔버홀

입장료 | 전석 1만원

(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30% 할인)

문의 | (재)부산문화회관 607-6000



부산시립합창단 단원들과 시민들과의 거리를 좁히기 위한 시도로 마련되는 부산시립합창단 스타프로젝트 두 번째 무대.

지난 2017년 첫 선을 보인 후 매 공연마다 매진사례를 낳으며 관객들로부터 많은 사랑을 받았던 뮤지컬 '레미제라블' 갈라 콘서트로, 특히 부산에서 활동중인 공연칼럼니스트이자 예술 여행작가인 이상훈의 깊이있는 해설로 만날 수 있다.

- 테너/최춘식, 최원갑
- 베이스/장용근, 이재원, 김태우
- 소프라노/김나영, 이혜진
- 알토/신소운, 이유진
- 해설/이상훈(공연칼럼리스트)

부산오페라하우스 성공건립기원 모차르트 오페라 피가로의 결혼

일 시 | 10월 15일 금요일 오후 7:30, 16일-17일 토-일요일 오후 5:00

대극장

입장료 | V석 9만원, R석 7만원, S석 5만원, A석 3만원 (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30% 할인)

문의 | (재)부산문화회관 607-6000



부산오페라하우스의 성공적인 건립을 기원하고 지역 오페라 육성과 오페라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을 높이기 위해 매년 마련하는 부산오페라WEEK 2021년 무대.

2021년 부산오페라WEEK의 화려한 막을 여는 주인공은 (재)부산문화회관이

올해 의욕적으로 제작한 오페라 피가로의 결혼으로, 각 분야 최고의 실력자들이 '죽기 전에 꼭 봐야 할 오페라'로 꼽히는 피가로의 결혼 속으로 관객들을 이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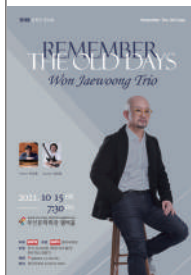
- 지휘/윤상운 • 연출/이의주
- 출연/이광근, 안세범, 박하나, 박현진, 윤오건, 이태영, 정해민, 장은영, 이지영 외

원재웅 트리오 콘서트 Remember the Old Days

일 시 | 10월 15일 금요일 오후 7:30 챔버홀

입장료 | 전석 2만원

문의 | 톤아우리아 02-6015-2844



작곡가이자 프로듀서, 가수로 활동하고 있는 원재웅이 신보 'Remember the Old Days' 음원 발표를 앞두고 마련하는 무대.

이번 음원 'Remember the Old Days'는 국내 굴지의 대중음악 기획사인 SM ENTERTAINMENT 보컬 트

레이너 출신으로 Rock, Soul, Latin, Gospel 등 다채로운 음악장르를 섭렵하며 다양한 음악적 조화를 실험하며 구축한 원재웅의 음악세계가 녹아있다.

특히 이번 팬데믹 사태를 겪으면서 음악과 노래가 가야할 방향을 고민하게 됐다는 원재웅은 이번 무대에서 강력한 사운드와 전자음을 내려놓고 재즈 피아노, 재즈 기타의 선율로 편곡한 트리오 편성의 어쿠스틱한 공연으로 대중들과 만난다.

- 출연/원재웅(보컬, 기타, 프로듀서), 박지웅(재즈 피아노), 김인집(기타)

그랜드오페라단 창단 25주년 기념 어린이를 위한 클래식 음악동화 모차르트와 마술피리의 마술 피리 이야기

일 시 | 10월 16일 토요일 오전 11:00 중극장

입장료 | R석 5만원, S석 3만원, A석 2만원, B석 1만원

문의 | 그랜드오페라단 (853-2341, 010-4574-4767)



모차르트의 대표적인 오페라 '마술피리'에 동화적 상상력을 더해 재탄생시킨 어린이 음악극.

지난 2015년부터 3년간 서울 세종체임버홀에서 공연되어 객석 점유율 97%라는 경이로운 기록을 달성한 바 있는 이번 무대는 작

곡가 모차르트와 그의 마음속 친구 마술피리가 원작 '마술피리'의 주인공들과 어울려 직접 모험을 펼쳐나가는 내용으로, 마술피리의 원작에 실린 아리아와 이중창뿐 아니라 모차르트의 다른 대표곡들도 함께 감상할 수 있다.

- 지휘/류명우(대구시립교향악단 부지휘자)
- 연출/김태웅(대구시립오페라단 상임연출)

이혜진 바이올린 독주회

일 시 | 10월 16일 토요일 오후 6:30 **챔버홀**
 입장료 | 초대
 문 의 | 하안이치과 055-385-0772



결혼과 육아, 치과의사로서의 삶을 살아오다 어려서부터 꿈꾸어오던 음악에 대한 열정으로 바이올린을 시작한 바이올리니스트 이혜진의 무대. 대학 1학년 때 처음 활을 잡았다가 40대 초, 배움의 과정을 거친 후 7년 전부터 본격적으로 음악공부를 시작한 이혜진은 이번 무대에서 로만티스 음악애호가였던 아버지의 영전에 올리는 바흐 '바이올린 소나타 제1번 사단조'를 시작으로 어머니의 행복을 기원하는 베토벤 '바이올린 협주곡 라장조', 삶의 기쁨이자 보물인 세 아이에게 들려주는 모차르트 '소나타 제21번', 그리고 프랑크가 이자이의 결혼식에 헌정했던 '소나타 가장조'를 삶을 함께 해 온 동지이자 조력자인 남편을 위해 들려준다.

• 피아노/주수진
 • 해설/이지은(해운대치과 원장)

소프라노 신민원 독창회

일 시 | 10월 20일 수요일 오후 7:30 **중극장**
 입장료 | 전석 2만원(학생 50% 할인)
 문 의 | 아트뱅크코레아 442-1941



미국 뉴욕타임즈로부터 '미래가 기대되는 젊은 소프라노', Opera Works의 Ann Baltz로부터 '청중들과 깊이 교감하는 능력이 있는 아름다운 목소리의 연주자'라고 호평받은 소프라노 신민원 독창회. 서울대학교 성악과를 수석 졸업하고 도미, 맨하탄 음악대학에서 석사과정 및 전문연주자과정을 졸업한 신민원은 그동안 오페라 주역 외에도 부산시립교향악단, 부산심포니오케스트라와의 협연 등 국내외 다수 무대에서 관객과 만나고 있다.

이번 무대에서는 신민원이 유학시절부터 호흡을 맞춰온 피아니스트 정호정과 그의 음악친구들인 바이올리니스트 박소현, 플루티스트 김윤희가 우정출연하여 헨델, 샤를 케클랭, 마이클 헤드, 오세일의 곡을 들려준다.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 제212회 정기연주회 명인·명창·명기의 무대

일 시 | 10월 21일 목요일 오후 7:30 **중극장**
 입장료 | R석(1층) 1만원, S석(2층) 5천원
 (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30% 할인)
 문 의 | (재)부산문화회관 607-6000



최고의 열정, 예술혼으로 일가를 이룬 지역의 예술인들과 함께하는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 정기연주회. 지난해에 이어 두 번째로 열리는 이번 무대는 부산과 경남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지역의 명기, 명창들을 한자리에서 만날 수 있는 특별한 무대로, 특히 올해는 박성희, 정성희(판소리), 송영남, 하지희(가야금), 김경수(태평소) 등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이 배출한 대통령상 수상자 다섯 명이 출연, 부산이 자랑하는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의 역량과 예술적 품격을 확인할 수 있다.

프로그램
 김병효류 가야금산조
 김성국/바람과 바다
 박상우/판소리 협주곡 '자랑, 민경창파를 가르다' 등

부산시립교향악단 특별음악회 스타프로젝트 부산시향의 실내악 공장Ⅲ

일 시 | 10월 21일 목요일 오후 7:30 **챔버홀**
 입장료 | 전석 1만원
 (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20% 할인)
 문 의 | (재)부산문화회관 607-6000



단원들의 차별화된 연주로 실내악의 진수를 감상할 수 있는 부산시립교향악단 스타프로젝트 '부산시향의 실내악공장'.

풍성한 규모의 오케스트라 작품과는 다르게 시대별 다양한 실내악 작품들과 단원들 개개인의 매력을 좀 더 가까이에서 만나 볼 수 있는 무대로, 깊어가는 가을을 맞아 가을의 정취를 깊이 만끽할 수 있는 다양한 레파토리를 들려준다.

• 바이올린/정명아, 이상진, 이현재
 • 비올라/홍영선 • 첼로/최지현
 • 플루트/안병건 • 오보에/노지연
 • 클라리넷/권소민 • 바순/곽서란
 • 호른/이민영

2021 창작오페라 그 이름 연구름

일 시 | 10월 22일 금요일 오후 7:30,
 23일 토요일 오후 5:00 **대극장**
 입장료 | R석 7만원, S석 5만원, A석 3만원
 문 의 | 루체테음악극연구소 513-1009



부산 출신의 독립군이자 음악가, 문화운동가인 연구름 한형석 선생(1910~1996)을 기리는 창작오페라 '그 이름 연구름'. 루체테음악극연구소가 제작한 창작오페라로, 지난해 한형석 선생 탄생 110주년을 맞아 기념사업의 일환으로 초연무대를 가진 바 있는 '그 이름 연구름'은 일제강점기 독립운동가뿐만 아니라 한국 최초 오페라 '아리랑'을 작곡한 음악가이자 서예, 연극, 영화 등 예술창작자이며 교육자였던 한형석 선생의 치열했던 삶을 노래한다.

• 제작, 작곡/백현주 • 연출/김지용
 • 대본/박춘근 • 지휘, 음악감독/전진
 • 출연/김종표, 구민영, 박상진, 권소라, 박나래, 이태훈, 이주민
 • 연주/부산콘서트 오케스트라
 • 합창/Choir, 햇살나무어린이예술단

일파가야금합주단 제24회 정기연주회 絃의 祝祭 일한번째 '창단 25주년 기념' 가야금·야트카 '弄絃同音'

일 시 | 10월 22일 금요일 오후 7:30 **중극장**
 입장료 | 초대
 문 의 | 일파가야금합주단 010-5148-3336



부산, 경남지역에서 최초로 설립된 부산광역시 전문예술단체인 일파가야금합주단 창단 25주년 기념 무대.

지난 2010년부터 아시아 지역의 현악기와 가야금을 한 무대에서 소개하는 기획무대 '현의 축제를 가져 온 일파가야금합주단은 올해 무대에서 몽골의 전통악기인 야트카와 마두금 연주자를 초청, 특별한 무대를 선사한다. 특히 부산작곡가회원으로 있는 작곡가 이은경의 위촉곡 '숲 바람을 마주하다'를 통해 가야금과 야트카의 앙상블을 감상할 수 있다.

• 단장/장혜숙 • 해설/장명화
 • 대금/박환영 • 야트카/어윤토야
 • 마두금/에르덴바야르 수령
 • 작곡/이은경, 백규진 • 편곡/곽재영

조아란 피아노 읽어주는 독주회

일 시 | 10월 22일 금요일 오후 7:30 **첼버홀**
 입장료 | 전석 2만원
 문 의 | 조아란 010-9913-5278



독일 슈투트가르트 국립 음대 전문연주자과정과 미국 일리노이 주립대학교 피아노 박사과정을 졸업하고 현재 동아대학교, 부산 교육대학교, 영남대학교에 출강하며 후진양성에 힘쓰고 있는 피아니스 조아란이 마련하는 해설이 있는 음악회.

한국브람스협회 피아노콩쿠르 2위, 한국피아노학회 콩쿠르 신인상 입상, UIUC concerto competition Fianlist, '아메리칸 프로테지 로맨틱 국제콩쿠르' 우승으로 카네기홀에서 우승자 데뷔연주를 가진 바 있는 조아란은 귀국 후 부산피아노연주자클럽, 부산피아노듀오협회, 독우회 회원으로 있으며 서울과 부산, 대구를 중심으로 활발한 연주활동을 가져오고 있다.
 이번 무대에서는 브람스와 쇼팽, 베토벤, 그리고 카푸스틴의 곡을 해설과 함께 들려준다.

부산시립청소년교향악단 특별연주회 유망주음악회-Ensemble

일 시 | 10월 23일 토요일 오후 4:00, 7:30 **첼버홀**
 입장료 | 무료
 문 의 | (재)부산문화회관 607-6000

부산시립청소년교향악단이 단원들의 기량 향상을 위해 매년 마련하는 특별한 무대. 바이올린 듀오에서부터 플루트 듀오, 플루트와 마림바, 첼로와 튜바, 현악4중주, 7중주 등 다양한 악기와 편성으로 앙상블 무대의 매력을 전해준다.

오후 4:00 프로그램

피아졸라/탱고의 역사
 쇼스타코비치/5개의 소품
 에릭 에바즈/파스토랄레
 사무엘 지만/타타지아 멕시코나
 생상/죽음의 무도 사단조 작품 40
 에릭 에바즈/An Elizabethan Songbook

• 출연/최영광(플루트)&전민욱(마림바), 최예린(바이올린)&김선영(바이올린), 정진욱(테너 트럼본)&김성준(베이스 트럼본), 김건희(플루트)&최영광(플루트), 최예린(바이올린)&김선영(바이올린)&남솔아(바이올린) & 김유경(바이올린), 한윤승(트럼펫)&정진욱(트럼본)

오후 7:30 프로그램

슈만/피아노5중주 내림마장조 작품 44
 알프레드 H. 바틀스/Beersheba Neo-Baroque Suite for tuba and cello
 마우어/협주교향곡 가장조 작품 55
 모차르트/현5중주 내림마장조 K.407
 베토벤/7중주 내림마장조 작품 20
 스메타나/피아노 트리오 사단조 작품 15 등

• 출연/이소정(바이올린)&문예빈(바이올린)&천재현(비올라)&김수정(첼로), 김정훈(튜바)&이시은(첼로), 조은비(바이올린)&최어진(바이올린)&황주예(바이올린)&심은빈(바이올린), 김예빈(바이올린)&이현지(비올라)&송예빈(비올라)&김수정(첼로)&조명환(현), 이소정(바이올린)&김하나(첼로)&하승연(더블베이스)&이수빈(바순)&김공빈(클라리넷)&김가원(현), 차희주(바이올린)&이시은(첼로)



(재)부산문화회관 기획공연 NT-Live 리어왕

일 시 | 10월 23일 토요일 오후 3:00 **중극장**
 입장료 | 전석 2만원
 (만 13세 이상 관람, 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30% 할인)
 문 의 | (재)부산문화회관 607-6000



영국 연극계 화제작을 라이브 스크린을 통해 즐길 수 있는 NT-라이브(National Theatre Live) 2021년 두 번째 작품 '리어왕'.

동명의 희곡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하여 2017년 체체스트 페스티벌 시어터에서 초연된 리어왕은 특히 영화 '반지의 제왕' 간달프 역으로 전 세계인의 사랑을 받은 명배우 이안 맥켈런의 주연으로 화제가 된 작품이다.
 특히 이안 맥켈런은 80세가 넘는 나이에도 불구하고 이번 무대에서 늙고 병들어 세상을 보는 눈을 잃어버린 인간의 모습을 섬세한 내면 연기로 열연하여 '완벽한 리어왕'이라는 평가를 받기도 했다.

해운대구립 청소년 오케스트라 2021 정기연주회

일 시 | 10월 24일 일요일 오후 6:00 **중극장**
 입장료 | 무료
 문 의 | 해운대구청 749-6044
 해운대구립 청소년오케스트라 010-3590-4606

지난 2000년 10월, 음악을 사랑하는 해운대 지역 초·중·고 학생들을 중심으로 창단한 해운대구립 청소년 오케스트라 2021년 정기연주회. 그동안 정기연주회를 비롯해 재능 나눔 연주회 등 크고 작은 무대를 통해 시민들과 만났던 해운대구립 청소년 오케스트라는 국내외 다양한 문화축제의 초청연주회를 통해 문화사절단으로서도 활발한 활동을 펼쳐왔다.

지휘자 정우영이 지휘하는 이번 무대에서는 플루티스트 신승민, 오카리나 주자 박종근, 소프라노 장은영이 출연, 우리 귀에 친숙한 곡들을 들려준다.



부산문화회관 기획공연 BSCC 인문학*콘서트:향연 뇌과학에 묻다, 예술의 미래는?-김대식

일 시 | 10월 29일 금요일 오전 11:00 **중극장**
 입장료 | 전석 2만원
 (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10% 할인)
 문 의 | (재)부산문화회관 607-6000



인문학적 지혜와 삶에 대한 성찰, 부산시립예술단의 감동 가득한 공연이 함께하는 금요일 브런치 타임의 지적향연 'BSCC 인문학*콘서트'.

이번 무대에서는 카이스트 전기·전자공학부 교수로 있는 김대식 교수를 초청, 뇌의 작동 원리와 인간의 존재 이유를 연구하는 그로부터 미래의 음악, 미래의 미술, 미래의 예술에 관한 이야기를 들어본다.

미국 미네소타대, 보스턴대에서 15년간 교수생활을 한 김대식은 지난 2009년부터 카이스트대 교수로 재직중이다.

• 연주/부산시립교향악단 타악앙상블

**(사)부산네오파하모닉오케스트라
제69회 정기연주회
C.V.C IV 쇼스타코비치 교향곡
제5번 '혁명'**

일 시 | 10월 30일 토요일 오후 7:00 **대극장**
입장료 | R석 5만원, S석 3만원, A석 2만원
문 의 | (사)부산네오파하모닉오케스트라
070-8899-7308



부산의 민간 오케스트라로서는 처음으로 상근체제로 운영되고 있는 부산광역시 전문예술법인단체인 (사)부산네오파하모닉 오케스트라의 C.V.C(클래식·백신·콘서트) 네번째 무대

지난 2009년 7월 창단된 후 연간 40여회 이상의 폭넓은 연주활동을 펼쳐온 (사)부산네오파하모닉오케스트라는 이번 무대에서 상임지휘자 홍성택이 지휘하고 성신여자대학교 교수로 있는 바이올리니스트 피호영의 협연으로 쇼스타코비치의 강렬한 음악과 멘델스존의 유려한 음악을 들려준다.

**멜로매니아 제27회 정기연주회
제6회 바리톤 한성권 독창회**

일 시 | 10월 30일 토요일 오후 5:00 **챔버홀**
입장료 | 초대(문자예약 필수)
문 의 | 멜로매니아
010-3885-6600, 010-9692-3973



지난 1994년 9월, 남성 성악동호회로 출발한 후 매년 정기연주회와 초청연주회, 가족음악회 등 다양한 무대를 통해 관객과 만나온 멜로매니아의 정기연주회. 멜로매니아 창립회원으로, 지금까지 5차례 독창회를 비롯해 크로 작은 무대에 800여회 이상 출연하는 등 활발한 연주활동을 펼쳐온 바리톤 한성권의 독창회로 마련되는 이번 무대에서는 우리에게 친숙한 가곡과 성가, 오페라 아리아, 가요 등 다양한 곡으로 코로나19로 지치고 힘든 이웃들에게 위로와 힐링의 무대를 선사한다.

- 특별출연/소프라노 장은영
- 우정출연/바리톤 배용 • 피아노/정소연

**부산메트로폴리탄필하모닉오케스트라
정기연주회
프랑스 로맨틱 콘서트**

일 시 | 10월 31일 일요일 오후 7:30 **대극장**
입장료 | R석 10만원, S석 7만원, A석 5만원
문 의 | BMPO 070-7727-0188



지난 2009년 창단 후 2011년 부산, 경남지역의 오케스트라로서는 최초로 사회적기업으로 인증받는데 이어 이듬해 전문예술법인으로 지정된 부산메트로폴리탄필하모닉오케스트라 정기연주회

그동안 다양한 무대를 통해 정통 클래식은 물론 여러 장르와의 다양한 시도를 통해 대중들에게 가깝게 다가가고 있는 부산메트로폴리탄필하모닉오케스트라는 이번 무대에서 상임지휘자 김영수가 지휘하고 소프라노 박하나, 베이스 손혜수, 피아니스트 박지혜가 출연, 베를리오즈, 구노, 비제 등 감성적이고 아름다운 프랑스 음악들을 소개한다.

**부산클라리넷콰르텟 제22회 정기연주회
재난과 치유**

일 시 | 10월 31일 일요일 오후 6:00 **챔버홀**
입장료 | 전석 1만원
문 의 | 부산클라리넷콰르텟 010-3146-8434



실내악의 대중화와 저변 확대를 위해 1996년 '엘랑 클라리넷 사중주단'으로 창단한 후 2001년 지금의 이름으로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한 부산클라리넷콰르텟 정기연주회.

리더 김태훈과 전성경, 박은정, 장일훈 등 개인별로도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는 전문 연주자들로 구성된 부산클라리넷콰르텟은 지난 20여년간 21차례의 정기연주회와 200여회의 특별연주회, 초청연주회 등 왕성한 연주활동을 펼쳐왔다. 이번 무대에서는 코로나19로 지친 시민들을 위해 '재난과 치유'라는 부제 속에 클래식 명곡을 비롯해 영화음악, 오페라 등 우리 귀에 친숙한 곡들을 들려준다.

- 게스트/최우선(클라리넷), 문성경(피아노), 송희철(피커션)

**(재)부산문화회관 기획공연
클라라 주미 강&김선옥 듀오
리사이틀**

일 시 | 11월 1일 월요일 오후 7:30 **대극장**
입장료 | R석 7만원, S석 5만원, A석 3만원
(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20% 할인)
문 의 | (재)부산문화회관 607-6000



국내를 넘어 세계 무대에서 K-클래식 대표주자로 꼽히는 젊은 거장, 바이올리니스트 클라라 주미 강과 피아니스트 김선옥의 듀오 리사이틀.

지난 한해 베토벤 탄생 250주년을 맞아 베토벤 바이올린 소나타 전곡 연주와 녹음에 힘을 쏟았던 클라라 주미 강과 김선옥은 올해 9월, 베토벤 바이올린 소나타 전곡으로 채워진 신보 발매와 더불어 발매 기념 전곡 연주회를 가지며 음악애호가들의 많은 호평을 받았다.

이번 무대에서는 베토벤 바이올린 소나타 제4번, 제7번, 제9번을 들려준다.

**(재)부산문화회관 기획공연
뮤지컬 라흐마니노프**

일 시 | 11월 5일 금요일 오후 7:30, 6일 토요일 오후 3:00 **중극장**
입장료 | R석 5만원, S석 3만원, A석 2만원
(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30% 할인)
문 의 | (재)부산문화회관 607-6000



러시아의 천재 작곡가 세르게이 라흐마니노프의 숨겨진 3년에 대한 이야기를 담은, 감동과 음악이 있는 뮤지컬 '라흐마니노프'.

러시아 후기 낭만주의를 대표하는 최후의 작곡가이자 당대 최고의 피아니스트로 많은 사랑을 받았던 라흐마니노프의 실제 이야기를 바탕으로 한 '라흐마니노프'는 라흐마니노프가 슬럼프에 갇힌 3년간의 시간 속에서 정신의학자 니콜라이 달 박사와의 만남을 통해 치유하고 성장해 나가는 과정을 그린 작품이다.

이번 무대에서는 완벽한 가창력과 섬세한 연기력으로 초연무대부터 함께 해온 박우덕(라흐마니노프), 정동화(니콜라이 달)가 호흡을 맞춘다.

부산시민회관

(재)부산문화회관 기획전
한국 현대사진 거장 임응식 작품展
부산에서 서울로

일 시 | 9월 10일(금)-10월 24일(일) **전시실**
 입장료 | 무료
 문 의 | (재)부산문화회관 607-6000



한국 근대사진의 선각자, 리얼리즘 사진의 선구자로 불리는 **故 임응식 (1912-2001)** 작가의 작품전 '부산에서 서울로'. 올해는 부산 출신의 임응식 작가가 태어난 지 110주년이 되는 해이자 서거 20주년이 되는 뜻깊은 해

로, 지난 1973년 부산시민회관 개관기념전으로 열렸던 그의 회고전에 이어 반세기만에 같은 장소에서 열리는 전시로 더욱 더 화제가 되고 있다. 이번 전시에서는 부산에서 활동하던 1946년부터 서울에 정착한 1960년까지 작품 50여 점을 소개한다.

- 관람시간/오전 10:00~오후 6:00(매주 월요일 휴관)

다니엘 하리토노프 & 윤아인
피아노 듀오 리사이틀

일 시 | 10월 1일 **금요일** 오후 8:00 **대극장**
 입장료 | R석 6만원, S석 4만원, A석 2만원 (학생 20% 할인)
 문 의 | 아트뱅크코리아 442-1941



세계 음악계의 주목받는 라이징 스타 **다니엘 하리토노프**와 **윤아인**이 함께하는 피아노 듀오무대. 2015년 차이콥스키 피아노 콩쿠르 역사에서 그리고리 소콜로프 이후 가장 어린 나이인 16세에 3위 입상하여 주목을 받은 **다니엘 하리토노프**는 지난 2019년 KBS교향악단과의 협연무대를 통해 국내 클래식 애호가들과도 친숙하다.

불가리아 블라디게로프 국제콩쿠르에서 1등 입상하여 큰 주목을 받은 **윤아인**은 그동안 한국, 러시아, 이태리, 미국, 그리스, 라트비아 등 세계 각국에서의 연주 활동을 통해 정통 러시아 피아니즘을 계승하고 있다.

제3회 부산발레페스티벌

일 시 | 10월 2일-3일 **토-일요일** 오후 6:00 **대극장**
 입장료 | 1층 3만원, 2층 2만원 (2일 공연은 전석 1만원)
 문 의 | 부산발레시어터 010-4016-7477



취미 발레인부터 프로 발레단체, 세계적 발레 스타까지 발레를 사랑하는 모든 이들이 한 무대에서 어우러지며 즐기는 부산발레페스티벌 2021년 무대. 올해로 3회를 맞는 이번 무대에서는 첫날인 2일 **취미 발레인**을 위한 'Shall

We Ballet'과 발레 워크샵이 펼쳐지며, 3일에는 유니버설발레단, 서울발레시어터, 부산발레시어터, 이원국발레단, 그랑발레가 출연하는 갈라무대가 펼쳐진다.

3일(일) 프로그램

- 유니버설발레단 '해적 그랑파드되', 서울발레시어터 '파리의 불꽃 그랑파드되', 부산발레시어터 '아름답고 푸른 도나우', '날개의 물결', 이원국발레단 '백조의 호수 파드되', 그랑발레 '누명'
- 사회/아나운서 고민지

부산시립교향악단 기획음악회
부산시향의 미완성 음악회5

일 시 | 10월 13일 **수요일** 오후 7:30 **대극장**
 입장료 | 전석 5천원 (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20% 할인)
 문 의 | (재)부산문화회관 607-6000



부산시립교향악단이 제 579회 정기연주회의 오프 리허설로 선보이는 '미완성 음악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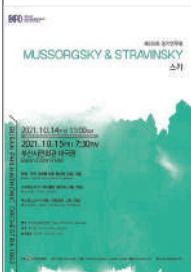
'미완성 음악회'는 실제 리허설을 바탕으로 오케스트라가 앙상블을 만들어가는 과정을 생생하게 경험할 수 있는 새로운 형식의 음악회로, 연주를 앞두고 단원과 지휘자가 자연스럽게 연습하는 모습을 통해 작품에 대한 이해를 돕는 한편, 쉽게 접할 수 없는 리허설 과정을 통해 실제 무대와는 차별화된 매력을 느낄 수 있다.

이날 무대에서는 최수열 예술감독과 부산시립교향악단 단원들이 제579회 정기연주회 프로그램인 **무소르그스키-라벨** 전람회의 그림의 리허설 과정을 꾸밈없이 보여준다.

- 지휘/최수열(예술감독)

부산시립교향악단 제579회 정기연주회
아침음악회 스키

일 시 | 10월 14일 **목요일** 오전 11:00 **대극장**
 입장료 | 전석 1만원 (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20% 할인)
 문 의 | (재)부산문화회관 607-6000



창의적이며 새로운 형식의 공연들을 관객들에게 선보여온 부산시립교향악단이 처음 선보이는 토크가 있는 마티네 콘서트.

10월 15일 제579회 정기연주회 협연자로 부산을 찾은 바이올리니스트 **조진주**와 예술감독 **최수열**의 토크 콘서트로 진행되는 '아침음악회'는 정기연주회에 앞서 연주자의 작품 해석과 숨겨진 다양한 에피소드 등 생생한 토크로 관객들이 무대와 더욱 더 가까워질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프로그램

- 라벨/잔의 부채를 위한 팡파레
 스트라빈스키/바이올린 협주곡
- 지휘/최수열(예술감독)
 - 협연/바이올리니스트 조진주

부산시립교향악단 제579회 정기연주회
스키

일 시 | 10월 15일 **금요일** 오후 7:30 **대극장**
 입장료 | R석 2만원, S석 1만5천원, A석 1만원, B석 5천원 (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20% 할인)
 문 의 | (재)부산문화회관 607-6000



깊어가는 가을을 맞아 부산시립교향악단이 음악애호가들을 위해 마련한 특별한 음악선물로, 러시아를 대표하는 무소르그스키와 스트라빈스키의 작품을 통해 러시아 낭만 속으로 음악여행을 떠난다.

예술감독이 최수열이 지휘하는 이번 무대에서는 특히 뛰어난 표현력과 따뜻한 매력적인 음색, 그리고 섬세한 프레이징으로 전 세계가 주목하고 있는 바이올리니스트 **조진주**가 함께 무대에 선다.

프로그램

- 라벨/잔의 부채를 위한 팡파레
 스트라빈스키/바이올린 협주곡
 무소르그스키-라벨/전람회의 그림

부산콘서트콰이어 송년음악회 하이든의 천지창조

일 시 | 10월 16일 토요일 오후 5:00 대극장
입장료 | 전석 2만원(학생 50% 할인)
문의 | 부산콘서트콰이어 010-5468-4658



상임지휘자 전상철을 중심으로 꾸준한 활동을 펼치고 있는 부산콘서트콰이어가 창단 30주년을 맞아 마련한 특별한 무대 '하이든의 천지창조'.

아마추어 합창단으로 시작한 후 현재 성악 전공 단원들로 구성된 전문 합창단체로 발돋움한 부산콘서트콰이어는 이번 무대에서 부산에서 활동중인 정상급 성악가들과 함께 하이든의 오라토리오 '천지창조'로 합창의 정수를 선사한다.

- 지휘/전상철 • 챔발로/김미나
- 합창/부산콘서트콰이어
- 연주/영아츠 컴퍼니 오케스트라
- 소프라노/김나영, 엄남이, 최선희
- 테너/김추리, 김웅태, 김성
- 베이스/최성규, 이현성

그 시절 부산의 노래 6 전쟁과 평화

일 시 | 10월 17일 일요일 오후 7:00 대극장
입장료 | 초대
문의 | (사)빛을 나누는 사람들
761-4736, 010-2833-3932

지난 2015년 10월 설립 후 문화나눔을 통한 봉사활동을 펼쳐온 (사)빛을 나누는 사람들(대표 박상애)이 마련하는 해설과 함께하는 특별한 무대 '그 시절 부산의 노래' 여섯 번째 무대. '전쟁과 평화'라는 부제로 열리는 이번 공연은 과거에 발생했던 동족간의 전쟁, 현재 코로나19로 인한 펜데믹 상황 속에서 서로 아픈 상처와 시련을 극복하고 위로와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 마련한 무대로 1, 2부로 나누어 오케스트라와 성악, 대중가요, 합창 등 다양한 장르를 접목시켜 감동이 있는 무대를 선사한다.



2021 제13회 부산월드필하모닉오케스트라(BWPO) 더 클래식, 아시아의 창 부산

일 시 | 10월 21일 목요일 오후 7:30 대극장
입장료 | 초대(KNN 홈페이지를 통해 초대권 신청)
문의 | KNN 850-9568



국내외 음악인들이 만들어낸 꿈의 하모니 '더 클래식 아시아의 창(窓) 부산'. 부산월드필하모닉오케스트라(BWPO)가 지난 2009년 클래식 음악을 통해 부산을 알리고, 부산이 세계음악의 중심지가 되는 무대가 되고자 기획된 '더 클래식, 아시아의 창 부산'은 지난 13년 동안 다양한 음악적 시도로, 부산의 정체성을 되새기고 음악적 성장을 도모하는 좋은 창(窓)이 되었다는 호평을 받아왔다.

이번 무대에서는 지난해에 이어 한국을 대표하는 지휘자 정치용이 지휘하고 현재 가장 인기있는 젊은 피아니스트 문지영의 협연으로 가을의 서정과 어울리는 슈만의 '피아노협주곡 작품 54'와 라흐마니노프 '교향곡 제2번'을 들려준다.

(재)부산문화회관 기획공연 연극 흑백다방

일 시 | 10월 23일-24일 토-일요일 오후 3:00
소극장
입장료 | R석 4만원, S석 3만원, A석 2만원
(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30% 할인)
문의 | (재)부산문화회관 607-6000



20년만에 만난 가해자와 피해자의 숨막히는 심리게임을 그린 연극 '흑백다방'. 부산 남포동을 배경으로, 1980년대 민주화시절 발생한 가해자와 피해자의 관계를 그린 '흑백다방'은 지난 2014년 초연된 후 다양한 무대를 통해 평단, 관객으로부터 많은 호평을 받아왔다.

오래된 다방을 운영하며 손님들의 심리상담을 하는 남자와 그 남자를 찾아온 남자, 두 남자의 이야기로 시작되는 '흑백다방'은 우리 시대의 아픔과 분노를 위안과 용서, 화해로 이끌어 내는 극적 연출력으로, 각종 연극제에서 상을 휩쓸었다. 이번 무대에서는 명불허전 배우 김명곤과 초연때부터 함께해온 믿고 보는 배우 윤상호가 맡아 극의 몰입을 극대화시킨다.

부산시민회관 부산 문화가 있는 날 배시시 뽕퐁극장 정크, 클라운

일 시 | 10월 27일 수요일 오후 7:00 소극장
입장료 | 무료
(초등학생 이상 관람가능, 사전예매 필수)
문의 | (재)부산문화회관 607-6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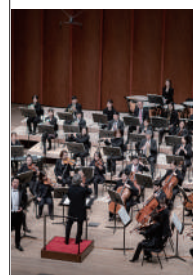


부산시민회관이 매일 마지막 주 수요일 마련하는 부산 문화가 있는 날 특별 상영회.

예술의전당 공연실황을 생생한 고화질의 영상으로 감상할 수 있는 무대로, 10월에는 아이들에게는 무한한 상상의 놀이터를, 어른들에게는 유쾌한 휴식을 선사하는 난버벌 퍼포먼스 '정크, 클라운'을 선보인다. 제목인 정크(Junk, 쓸모없는 물건)와 클라운(Clow, 광대)의 조합처럼 4명의 광대가 버려진 고물을 새로운 시각으로 활용하면서, 선풍기 날개는 헬리콥터가 되어 하늘을 날고 고장난 청소기와 호스는 태풍을 만들어 거센 바람을 일으키며 찌그러진 냄비와 바가지는 물고기가 되어 헤엄치는 아름다운 환상의 세계가 펼쳐진다.

2021 제59회 부산예술제 2021 가곡과 아리아의 밤

일 시 | 10월 29일 금요일 오후 7:00 대극장
문의 | (사)부산예술문화단체총연합회
631-1377, www.artpusan.or.kr



음악, 미술, 무용, 연극, 문학, 건축 등 다양한 분야의 예술과 문화를 선보이는 종합예술의 대항연 제59회 부산예술제 개막공연 '가곡과 아리아의 밤'.

지휘자 백천원이 지휘하는 부산음악협회 청년오케스트라의 연주로 소프라노 최한솔, 이진영, 왕기현, 허미경, 테너 강도호, 이태흥, 김지호, 김성진 등 부산을 대표하는 성악가들이 국내의 가곡과 오페라 아리아를 들려준다.

프로그램

그대의 찬 손(오페라 '라보엠'), 꽃 구름 속에(이흥렬 곡), 화사하고 즐겁게(오페레타 '캔디드'), 뱃노래(조두남 곡), 울지말아요 류(오페라 '투란도트'), 수선화(김동명 곡), 나를 부르는 부드러운 목소리(오페라 '청교도'), 거문도 뱃노래(백경환 곡) 등 수곡

전은지 플루트 리사이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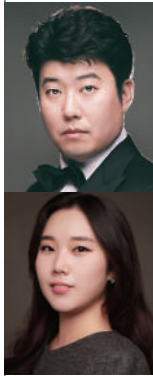
일 시 | 10월 1일 금요일 오후 7:30
 금정문화회관 은빛샘홀
 입장료 | 초대
 문 의 | 프로젝트 앙상블 Flute'z 010-5327-6025



섬세한 음악성과 작품에 대한 깊은 이해와 연주로 청중과 교감하는 플루티스트 전은지 독주회.
 독일 카를스루에 음대 수료 후 오스트리아 부르겐란트 주립음대에서 최고연주자과정 및 동대학원을 수석 졸업한 전은지는 오스트리아를 중심으로 솔리스트 및 실내악 주자로 수년간 연주활동을 하다 귀국 후 수많은 독주회 및 실내악 기획공연을 가져오고 있다. 특히 전은지는 2013년 프로젝트 앙상블 Flute'z를 창단, 현악기와 플루트의 다양한 곡들을 선보이며 관객과 소통해오고 있다.
 이번 무대에서는 후기 바로크시대 프랑스 작곡가인 부와모르티에를 비롯해 아르튀르 오네게르, 조세 루이스 말린, 게리 쇼커 등 현대음악 작곡가들의 곡을 들려준다.
 • 바이올린/고아라 • 기타/김경태

제32회 짜장콘서트

일 시 | 10월 2일 토요일 오후 4:00
 동아대학교 부민캠퍼스 석당박물관 로비
 입장료 | 전석 1만원(사전예약, 선착순 30명)
 문 의 | 음악풍경 987-5005



전문예술단체 음악풍경이 매월, 음악의 저변확대와 부산 청년음악가 발굴을 위해 마련하고 있는 짜장콘서트 10월 무대. 초청 솔리스트로는 이탈리아 유학을 마치고 귀국 후 오페라 주역으로 왕성한 활동을 펼치고 있는 바리톤 유용준이, 청년음악가로는 현재 김해시립합창단 단원으로 있는 소프라노 이유빈이 출연하며, 연주와 반주는 피아노, 소노아 등으로 구성된 앙상블 '프로무지카'가 맡는다.
 이진이가 진행하는 이날 무대에서는 지역 창작문화 활성화를 위해 창작곡 '봄날의 표창'(전명숙 사·진소영 곡)이 세계 초연되며, '톡톡(Talk Talk): 나의 노래방 1번' 코너에서는 대중가요 '비상'(채정은 사·임재범 곡)이 준비되어 있다.

2021 문정원 독주회 방산한씨금보 복원연주회 風流回想-과거로부터 오늘

일 시 | 10월 3일 일요일 오후 5:00
 금정문화회관 은빛샘홀
 입장료 | 무료
 문 의 | 문정원 010-9715-0916



부산대학교 한국음악학과 및 동대학원을 졸업하고 현재 부산양금앙상블 대표이자 부산가야금연주단 단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가야금 주자 문정원의 무대. 특히 이번 무대는 1916년 한우석이 엮은 고(古)악보로, 지난 1959년 국립국악원 전 시를 통해 처음 세상에 알려진 '방산한씨금보'에 수록된 곡을 들려준다. '방산한씨금보'는 이 악보를 엮은 한우석이 당시 거주하던 장소인 '방산동'과 그의 이름을 따서 후세에 알려진 이름으로, 이 악보에는 거문고와 가야금, 양금의 곡들이 수록되어 있다. 문정원은 이번 무대에서 방산한씨금보에 수록된 영산회상 중 '본령산~하현', '계면가락제지', '취타' 등을 들려준다.

젊은 소리꾼 박세미의 동초제 심청가 완창발표회

일 시 | 10월 3일 일요일 오후 1:00
 해운대문화회관 고운홀
 입장료 | 초대(전화문의 필수)
 문 의 | 박세미 010-4210-9705



부산대학교 한국음악학과 및 동대학원 석사과정을 졸업하고 현재 젊은 소리패 '도화' 단원, 사운드팩토리 판 동인, 국악그룹 '헤이브' 동인으로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는 소리꾼 박세미의 무대.
 대구광역시 무형문화재 제 8호 심청가 전수장학생으로 있는 박세미는 제20회 송만갑 판소리 고수대회 일반부 대상, 제47회 대한민국의향국악대전 판소리 일반부 대상, 제12회 장수논개 전국판소리경연대회 명창부 최우수상을 수상한 바 있다.
 이번 무대에서는 사설이 정확하고 동작이 정교하며 가사전달이 확실하고 멋고 끊음이 분명한 '동초제 심청가' 완창무대가 펼쳐진다.

BS오퍼스앙상블 제17회 정기연주회 프랑스 음악축제

일 시 | 10월 5일 화요일 오후 7:30
 금정문화회관 은빛샘홀
 입장료 | 초대
 문 의 | BS오퍼스앙상블 010-3592-5697



부산뿐 아니라 서울, 경남 지역 등에서 왕성한 활동을 펼치고 있는 각 분야의 솔리스트들로 결성된 BS오퍼스앙상블의 무대. 바로크에서 현대음악에 이르는 다양한 레퍼토리로 실내악 음악의 저변 확대와 음악적 성취를 도모하고자 창단된 실내악 단체로, 지난 2007년 창단 후 정기연주회 및 찾아가는 음악회, 해설이 있는 음악회 등을 통해 실내악의 매력을 전하고 있다. 이번 무대에서는 프랑스 작곡가 생상스 서거 100주년을 맞아 '프랑스 음악축제'라는 부제로 드뷔시와 생상스의 곡을 들려준다.
 • 바이올린/김인정 • 비올라/이성호
 • 첼로/이동열
 • 피아노/노보미, 진승민, 유영욱, 최은주

2021 예술공감 제1회 제30회 아미티에 정기연주회 영화속의 아리아

일 시 | 10월 5일 화요일 오후 7:30
 을숙도문화회관 소공연장
 입장료 | 전석 3천원
 문 의 | 을숙도문화회관 220-5811



클래식과 영화의 새로운 만남, 아미티에 성악연구회의 '영화 속의 아리아'. 아미티에 성악연구회 회원들이 영화 속에 삽입된 오페라 아리아를 영화 소개와 더불어 함께 들려준다. 이탈리아, 프랑스, 독일, 러시아 등 유럽 각국에서 공부한 성악가들로 구성된 아미티에 성악연구회는 지난 1987년 창단된 후 클래식 음악의 저변확대와 공연을 통한 대중과의 소통을 위해 다양한 무대에서 관객과 만나왔다.
 • 소프라노/박민영, 이기쁨, 이수진, 양성희, 박소영
 • 테너/김현성, 이신범, 이우정, 서훈하
 • 베이스/바리톤/양중근, 이태영
 • 피아노/양진경, 이현주

국립부산국악원 수요일공감

일 시 | 매주 수요일 오후 7:30
국립부산국악원 예지홀
입장료 | A석 1만원, B석 8천원
문의 | 국립부산국악원 811-0114

국립부산국악원이 매주 수요일 예인과 함께하는 가무악의 장으로 마련하는 '2021 수요일공감' 10월 무대.



6일 원향춤보존회 '원향춤, 풀이하다.'

지난 1996년 원향 엄옥자 선생의 춤을 계승하기 위해 결성된 단체법인 무용단체로, 부산과 통영에 각 보존회를 두고 '승전무'를 발굴 계승, 보급시키는데 주력해 온 원향춤보존회의 무대.

프로그램

통영기방입춤(엄옥자류 입춤), 승전무(국가지정 무형문화재 제21호), 원향지무(엄옥자류 진춤), 엄옥자류 산조춤, 정순남류 수건춤, 동래덧배기춤과 원향 허튼춤

- 예술감독/엄옥자
- 안무 및 구성/변지연
- 연출/박성호



13일 최범수 피리 독주회 '도야(陶冶)1. 젊은 정약' [신진예술가]

국가무형문화재 제46호 피리정악 및 대취자 전수자, 국가무형문화재 제1호 종묘제례악 전수자로 있는 피리주자 최범수 독주회.

최범수는 제35회 동아국악콩쿠르 일반부 피리부문 동상, 제40회 온나라 국악경연대회 피리부문 은상을 수상했으며 국립부산국악원 기악단 객원단원을 역임한 바 있다.

프로그램

피리독주 '염양춘', 낙양춘, 취태평지곡 단회상, 여창가곡 '우조 이수대엽-반우반계 반엽-계면조 평풍-계면조 편수대엽'



20일 윤정미 무용단 '화화 화화 피우다...'

국가무형문화재 제18호 동래야류 이수자로, 전국국악경연대회 제27회 부산국악대전 종합차상(문화체육관광부 장관상)을 수상한 춤꾼 윤정미가 이끄는 윤정미 무용단의 무대.

창원대학교 외래교수로 있는 윤정미는 그동안 '여인의 風景' 문화가 있는 날, '오브제의 울림' 해설이 있는 우리춤 공연, 우리가락 우리마당 총연출 및 안무 등 다양한 무대에 서었다.

프로그램

1장 절제의 꽃/夢-사랑, 승무(이매방류), 태평무(한영숙류), 호접회무
2장 승화의 꽃/아랑의 꿈, 아랑흥춤, 별리(別離)-달래다, 세요고타타타



27일 남성주 '화용월태(교방춤 이야기).꽃을 머금은 얼굴, 달을 품은 자태'

부산시무형문화재 제10호 동래고무 이수자로 현재 남성주 전통무용예술단 단장으로 있는 춤꾼 남성주의 무대.

남성주는 2014년 남성주의 춤 제1회 '인연'을 시작으로 그동안 3차례 정기공연과 기획공연을 가져왔다.

프로그램

화선무(임이조류), 살풀이춤(이매방류), 영남교방무(박경량류), 교방검무(정민류), 정선아리랑을 위한 비나리, 교방살풀이춤(임이조류)

10월 금정수요일음악회

일 시 | 매주 수요일 오후 7:30(20일 공연없음)
금정문화회관 은빛샘홀
입장료 | 전석 1만원
문의 | 금정문화회관 519-5664

금정문화회관이 매주 수요일 마련하는 상설무대로, 클래식에서부터 성악, 국악 등 다채로운 무대를 만날 수 있다.



6일(757회) 더 부산 혼 사운드 제4회 정기연주회

평소 무대에서는 쉽게 만날 수 없는 호른 앙상블을 감상할 수 있는 더 부산 혼 사운드의 무대.

이번 무대에서는 베토벤, 모차르트, 하이든의 곡을 비롯해 영화음악의 거장 콜라

우스 바델트의 곡을 들려준다.

- 호른/오원택(대표), 김영민(지휘), 임승범, 성지은, 강민주, 이민정, 김지은, 최희진, 이소민
- 플루트/이주형
- 피아노/이수민
- 타악기/양진일

13일(758회) 춘몽애

국악그룹 도시락만의 음악적 색깔로 재해석한



춘향이와 이몽룡의 사랑 이야기 '춘몽애'.

지난 2011년 창단한 국악그룹 도시락(都是樂)은 전통국악을 다양한 장르와 접목시켜 대중들에게 우리음악을 알리기 위해 다양한 무대에 서오고 있다.

- 타악/이지현

- 가야금/정수요
- 피리/이주현
- 해금/강민희
- 대금/이수현
- 신디, 작편곡/이희진
- 기획, 행정/심지우



27일(759회) 테너 이철성 독창회 '화양연화'

동양인 최초로 엔리코 카루소 국제콩쿠르에서 우승해 세계적인 주목을 받은 테너 이철성 독창회.

이번 무대는 파워풀함 속에 섬세한 음색을 느낄 수 있는 무대로, 조두남의 '벚노래'를 비롯해 한국가곡으로 꾸며진다.

- 소프라노/왕기현
- 첼로/김혜지
- 피아노/박재나

영도문화예술회관 어울림 상설Series #26 C.I. 윈드오케스트라 황금빛 선율로 감상하는 오페라&뮤지컬!

일 시 | 10월 6일 수요일 오후 7:30
영도문화예술회관 소공연장
입장료 | 전석 1만원
문의 | 영도문화예술회관 419-5571~4



오케스트라와는 다른 윈드오케스트라만의 매력을 전하고자 부산, 경남지역 관악전공자들이 결성한 C.I. 윈드오케스트라의 무대.

C.I. 윈드오케스트라는 창단 후 정기연주회와 찾아가는 음악회, 봉사 연주회 등 다양한 활동을 통해 대중들에게 관악의 매력을 알려오고 있다.

이번 무대에서는 우리 귀에 친숙한 오페라 아리아와 유명 뮤지컬 넘버를 경쾌한 관악연주로 들려준다.

- 특별출연/테너 조윤환

제16회 우리 시 우리 노래 아름다운 부산을 노래하다

일 시 | 10월 7일 목요일 오후 7:00
금정문화회관 은빛샘홀
입장료 | 무료
문의 | 한국창작가곡협회 323-8575



우리 정서에 맞는 우리 가곡을 보급하기 위해 뜻을 함께한 시인, 작곡가, 성악가들로 결성된 한국창작가곡협회(회장 김성덕)가 들려주는 제16회 우리 시 우리 노래.

제1부 그리운 추억, 제2부 애절한 사랑, 제3부 내일의 희망이라는 부제로 독창, 어린이합창, 여성합창, 남성합창, 혼성합창 등 다양한 창작곡을 들려주는 이번 무대에서는 제6회 한국창작가곡대상 시상식도 함께 열린다. 올해는 연주부문 김태형, 작곡부문 강영화가 수상자로 무대에 선다.

- 어린이독창/이가은(제주교대부설초 5년)
- 어린이합창/향기나는 노래나무(지휘/김지숙)
- 독창/베이스 김태형, 소프라노 황윤정
- 합창/드림문화청년오페라양상블(지휘/장진규)

2021 부산 한국가곡의 밤 솔로와 중창의 향연

일 시 | 10월 7일 목요일 오후 7:30
해운대문화회관 해운홀
입장료 | R석 2만원, S석 1만원
문의 | 부산우리가곡부르기 010-4434-6605



장기화되는 팬데믹 속에서 지쳐있는 부산 시민들을 위해 부산의 성악가들이 마련한 한국가곡의 밤 '솔로와 중창의 향연'.

이번 무대에서는 한국가곡의 정서와 멋을 더욱 풍성하게 전하기 위해 솔로는 물론 2중창, 3중창, 혼성4중창으로 편곡, 어느 무대에서는 볼 수 없는 감동의 무대를 선사한다.

- 소프라노/신정순, 정혜리, 박지은
- 메조소프라노/손혜은
- 테너/김화정, 김경민
- 바리톤/고봉수, 박윤규
- 베이스/김정대 • 피아노/김아영
- 특별출연/조희연(해운대초 5학년)

제5회 조아합창단 정기연주회 힐링조아 콘서트

일 시 | 10월 8일 금요일 오후 7:30
금정문화회관 은빛샘홀
입장료 | 초대
문의 | 조아합창단 010-3933-1496



부산지역 출신의 전문 음악인들을 주축으로 구성된 여성전문합창단으로, 그동안 클래식에서부터 대중음악, 국악, 재즈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음악적 시도를 가져온 조아합창단의 정기공연.

지난 2016년 1월 창단한 조아합창단은 2019년과 2021년에는 아시아 최대 규모의 국제합창제인 제주국제합창축제&심포지움 개막공연에 초청받았으며, 2019년 중국 하이난에서 개최된 21세기 해상실크로드 합창축제에서도 아름다운 하모니를 선보인 바 있다. 이번 무대에서는 재즈미사곡 'A Little Jazz Mass'를 비롯해 이견륜 지휘자가 작, 편곡한 다양한 창작합창곡을 선보인다.

- 객원반주/재즈 피아니스트 신찬영

클래식과 함께 떠나는 음악여행 III 해설이 함께하는 오페라테 콘서트

일 시 | 10월 8일 금요일 오후 7:30
해운대문화회관 해운홀
입장료 | 1층 2만원, 2층 1만원(학생 40% 할인)
문의 | 해운대문화회관 749-7651



콘서트 가이드 김성민과 함께하는 해설이 함께하는 오페라테 콘서트.

'오페라테(Operarte)'는 이탈리아어로 작품들이라는 뜻의 오페라(Opera)와 예술이라는 뜻의 아르테(Arte)의 합성어로, 다양한 분야의 예술융합 공연을 뜻한다.

이번 무대에서는 '행복'이라는 큰 주제를 가지고 예술가 라파엘로 산치오(1493~1520)의 작품해설과 그 작품들과 어우러지는 다양한 음악들을 들려준다.

- 해설/김성민 • 소프라노/최정원
- 바리톤/허중훈 • 피아노/김경미

세계음악연구회 제6회 정기연주회 내가 사랑한 노래 두 번째

일 시 | 10월 10일 일요일 오후 5:00
금정문화회관 은빛샘홀
문의 | 세계음악연구회 010-5715-6627



부산, 경남에서 활동하고 있는 성악가들로 구성된 세계음악연구회 정기연주회.

이번 무대에서는 '파우스트', '카르멘', '예프게니 오네긴', '루살카' 등 세계 각국의 다양한 언어로 작곡된 오페라의 주요 아리아

와 김효근, 윤학준, 이원주, 이태현 작곡의 창작가곡 그리고 대중적으로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유명 아트팝 가곡까지 가을 감성에 어울리는 다채로운 곡을 들려준다.

- 소프라노/정혜리, 김주은, 김소라
- 테너/김정권, 서치환
- 바리톤/김도희, 최대우, 김기환, 유용준
- 베이스/박순기
- 피아노/이혜진, 김민정, 안현아
- 작곡/이태현

울속도문화회관 제80회 명품콘서트 코로나극복을 위한 '미래의 희망'

일 시 | 10월 16일 토요일 오후 5:00
울속도문화회관 대공연장
입장료 | 1층 2만원, 2층 1만원
문의 | 울속도문화회관 220-5811



서부산권 문화의 중심지 역할을 해온 울속도문화회관이 지난 2011년부터 마련해온 명품콘서트 10월 무대.

장기화되는 코로나19 사태로 무대에 설 기회가 줄어든 지역예술단체의 공연으로 꾸며지는 2021 명품콘서트 세 번째 무대로, 경성대학교 교수로 있는 임병원 교수가 이끄는 부산체임버오케스트라의 연주, 경성대학교 최윤희 특임교수의 피아노 협연으로 관객과 만난다. 이번 무대에서는 부산체임버오케스트라의 섬세하고 밀도감 있는 연주로 모차르트를 비롯해 다음 세대 작곡가인 홀스트, 존 루터, 브리튼의 작품을 들려준다.

디아트윈 정기연주회 3인 3색 구애-박기훈, 카이, 손혜수

일 시 | 10월 17일 일요일 오후 5:00
백스코 오디토리움
 입장료 | R석 12만1천원, S석 9만9천원
 A석 7만7천원, B석 5만원
 문 의 | 디아트윈 02-588-8654



JTBC '팬텀싱어' 시즌3의 우승팀인 라포엠의 라이징 테너 박기훈과 뮤지컬 '팬텀', '엑스칼리버', '베르테르' 등 대형 뮤지컬의 타이틀에 빛나는 크로스오버 뮤지션 카이, 세계적 권위의 콩쿠르를 휩쓸며 오페라 주역으로 세계 무대에 서온 베이스 손혜수 등 각기 다른 부분의 최고 스타들이 함께하는 3인 3색 무대 '구애'. 유나이티드 유스 오케스트라, 코리아나 관현악단, 부산메트로폴리탄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음악감독 및 상임지휘자로 있는 지휘자 김영수가 지휘하는 디아트윈의 연주로 국내외 가곡 및 오페라 아리아, 뮤지컬 넘버 등 다양한 곡을 들려준다.

2021 예술공감 제2회 Talk Talk Concert **천년의 약속**

일 시 | 10월 19일 화요일 오후 7:30
울속도문화회관 소공연장
 입장료 | 전석 3천원
 문 의 | 울속도문화회관 220-5811



부산에서 활동하는 여성 성악인들로 구성된 벨리씨미 성악연구회가 마련하는 토크 콘서트. 이태리어로 '멋있는, 아름다운'이라는 뜻을 지닌 벨리씨미 성악연구회는 그동안 따뜻한 테마와 주제가 있는 무대로 관객과 만나왔다. 올해는 한국가곡의 대중화와 우리 가곡 부르기 활성화를 위해 '팝아트(Pop art)'라는 장르를 이끌어 낸 작곡가 김효근 교수의 가곡 '눈'이 발표된 지 40주년이 되는 해로, 이번 무대에서는 한국 클래식음악의 대중화와 세계화를 위한 서정적이고 아름다운 신작 가곡을 소개한다.

- 피아노/최성근
- 바이올린/이진
- 첼로/박웅

국립오페라단 콘서트 오페라 **사랑의 묘약**

일 시 | 10월 21일 목요일 오후 7:30
금정문화회관 금빛누리홀
 입장료 | R석 5만원, S석 4만원, A석 3만원
 문 의 | 금정문화회관 519-5651~4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명실공히 국내 최고의 오페라단 국립오페라가 마련하는 콘서트 오페라 '사랑의 묘약'. 이번 무대는 음악 중심의 콘서트 오페라임에도 의상, 분장을 모두 갖춘 성악가들이 전막공연에서와 동일하게 연기를 선보이며, 오페라 입문자들도 오페라에 부담없이 다가갈 수 있도록 한글 자막으로 이해를 돕고 중간 중간 한국어 대사와 시대 상황에 맞는 웃음코드를 포함시켜 관객들에게 재미와 감동을 선사한다.

- 연출/김숙영 · 지휘/권민석
- 출연/소프라노 변지영, 테너 전병호, 바리톤 김성결, 베이스 한혜열, 연기자 김민영
- 연주/한경필하모닉오케스트라

2021 굿모닝 콘서트 국악과 양악의 조화 **'가을 秋'**

일 시 | 10월 22일 금요일 오전 11:00
울속도문화회관 소공연장
 입장료 | 전석 1만5천원(블랙업커피 제공)
 문 의 | 울속도문화회관 220-5811



울속도문화회관이 개관 이후 처음 선보이는 품격 있는 해설과 음악이 있는 브런치 무대 '굿모닝 콘서트' 10월 무대. 가야금, 해금, 바이올린, 첼로, 플루트 등 동서양 악기를 조화롭게 구성하여 크로스오버 음악을 새로운 시각으로 재조명한 무대로, 전통 가곡을 현대적 감각으로 재편곡한 '동짓달 기나긴 밤을', '10월의 어느 멋진 날' 등 다양한 크로스오버 곡을 들려준다.

- 가야금/김아현 · 가곡/이유나
- 바이올린/김나연 · 첼로/문혜정
- 플루트/채성경 · 신디사이저/박수현
- 퍼커션/김민동
- 해설/안희성(MBC부산문화방송 아나운서)

울속도문화회관 특별기획공연 가을 석양 열린음악회

일 시 | 10월 23일 토요일 오후 2:00, 6:00
울속도문화회관 대공연장
 입장료 | 1층 1만원, 2층 5천원
 문 의 | 울속도문화회관 220-5811



울속도문화회관이 깊어가는 가을을 맞아 코로나 19로 지친 지역민들을 위해 마련한 가을 석양 열린음악회. 50인조 양악-국악 혼합 오케스트라와 지역 예술가들이 함께 펼치는 콜라보 무대를 비롯해 '아모르파티', '10분내로', '블링블링' 등 다수의 히트곡을 보유한 가수 김연자의 파워풀한 무대가 펼쳐진다. 특히 국악인이자 방송인으로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는 사회 남상일의 재치 넘치는 입담과 더불어 구성된 소리까지 더해져 웃음과 감동이 있는 힐링의 무대를 선사한다.

제14회 부산우드윈드앙상블 with **선샤인오케스트라 앙상블**

일 시 | 10월 24일 일요일 오후 5:00
해운대문화회관 고운홀
 문 의 | 부산우드윈드앙상블 010-5660-3910

지난 2005년 창단 후 다양한 무대를 통해 목관 앙상블의 활성화와 저변확대에 힘쓴 부산우드윈드앙상블의 무대. 그동안 다양한 무대를 통해 평소 접해보지 못한 악기들을 소개하고 그 악기의 특성과 음색을 들려주며 정통 클래식과 대중적인 음악을 오가는 다채로운 레퍼토리로 관객과 만나온 부산우드윈드앙상블은 이번 무대에서 지난 2015년 창단한 선샤인오케스트라 앙상블과 함께 우리 귀에 친숙한 연주곡을 들려준다.

- 플루트/김인호
- 클라리넷/원준연
- 바이올린/무라이 요코, 권수현
- 첼로/김윤영
- 피아노/김성희
- 드럼/조원혁

김민정 피아노 독주회 Sweet Melancholy

일 시 | 10월 26일 화요일 오후 7:30
 금정문화회관 금빛누리홀
 입장료 | 전석 2만원(학생 50% 할인)
 문 의 | 아트뱅크코레아 442-1941



현재 한국피아노학회, 부산피아노듀오협회, 부산피아노연주가클럽, 부산피아노음악연주회 회원으로 활발한 연주활동을 펼치고 있는 피아니스트 김민정 독주회.

일찍이 서울심포니오케스트라, 부산시립교향악

단과의 협연 등을 통해 피아니스트로서의 가능성을 인정받아 중학교 3학년 재학 중 도미, 보스턴 뉴잉글랜드 예비학교인 Walnut Hill School of Arts에 입학하여 이후 보스턴 대학교에서 석사, 북텍사스 대학교에서 박사과정을 졸업한 김민정은 매년 꾸준한 독주와 듀오연주 외에도 실내악에 대한 남다른 열정으로 Ensemble Vivace를 결성, 서울과 부산에서 다수의 연주회를 가져오고 있다.

금정문화회관 11시 브런치 콘서트 그 노래에 취하다

일 시 | 10월 26일 화요일 오전 11:00
 금정문화회관 은빛샘홀
 입장료 | 전석 1만5천원(커피 포함)
 문 의 | 금정문화회관 519-5661~4



매월 마지막주 화요일 오전 11시 다채로운 장르와 주제로 열리는 금정문화회관의 특별한 무대 '11시 브런치 콘서트' 10월 무대. 가을의 서정과 잘 어울리는 목관5중주와 함께하는 이번 무대에서는 로시나의 '세비아의 이발사'

서곡을 비롯해 비제 '카르멘 모음곡', 대니보이 등 우리에게 친숙한 곡들을 아름다운 목관앙상블 선율로 들려준다.

특히 동아일보 문화전문 기자 유윤종의 감성적인 해설로 깊어가는 가을의 서정을 만끽할 수 있다.

- 연주/백동훈(클라리넷), 이주형(플루트), 고관수(오보에), 김숙연(바순), 강민주(호른), 박지혜(피아노)
- 해설/유윤종(동아일보 기자)

2021 을숙도 힐링 콘서트

일 시 | 10월 26일-29일 화-금요일 오후 19:30
 을숙도문화회관 소공연장
 입장료 | 전석 2천원
 문 의 | 을숙도문화회관 220-5812

을숙도문화회관이 지난 2013년부터 매년 진행해오고 있는 전통국악과 퓨전국악의 만남 '힐링콘서트' 매년 명인, 명창들의 무대는 물론 젊은 신예 국악그룹의 등용 무대가 되기도 했던 힐링 콘서트는 올해도 명인 서영호, 송다솔, 정선경, 민정민, 여강, 주은지, 이소영, 유승희, 그룹 이별 등 뛰어난 실력을 갖춘 다양한 장르의 출연자들이 출연, 신명넘치는 무대를 선사한다.



2021 영화의전당 마티네콘서트 맛 칼럼니스트 박상현 영화 속, 인생의 맛

일 시 | 10월 27일 수요일 오전 11:00
 영화의전당 하늘연극장
 입장료 | 전석 2만원
 문 의 | (재)영화의전당 780-6060



맛칼럼니스트 박상현의 진행으로 열리는 영화의전당 마티네 콘서트 10월 무대.

이번 무대에서는 영화 '굿바이', '변호인', '심야식당 2', '마이 블루베리 나이트', '어느 멋진 순간' 등 영화와 음악, 그리고 음식의 이면에 숨겨진 이야기를 통해 '당신 인생의 결정적인 맛은 무엇이며 '당신이 생각하는 궁극의 맛은 무엇인지 질문을 던진다.

TV프로그램 '나는 가수다', '불후의 명곡' 등에서 세션을 맡았던 오대원밴드가 연주하고 스페인에서 유학하며 플라멩코 기타 거장들에게 사사받은 이준호의 독주, 국내 대표적인 상업영화의 음향효과를 담당한 폴리야티스트 정성권의 퍼포먼스, 방송인으로 활동하고 있는 썬킴의 토크가 함께한다.

고신 오페라 최고연주자과정과 함께하는 오페라 갈라 콘서트

일 시 | 10월 28일 목요일 오후 7:30
 영도문화예술회관 소공연장
 입장료 | 무료(예약 필수)
 문 의 | 영도문화예술회관 419-5571~4



영도문화예술회관이 문화가 있는 날을 맞아 마련한 오페라 갈라 콘서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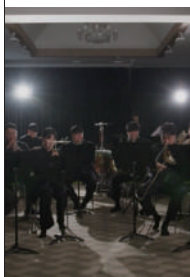
고신대학교 고신 오페라 최고연주자과정에 있는 전공자들과 함께 하는 무대로, 자유와 정열의 여인 카르멘의 비극적인 사랑이야기를 그린 비제의

오페라 '카르멘'의 주요 장면을 갈라콘서트로 선보인다.

고신 오페라 최고연주자 과정은 예술인들의 전문적인 인재양성을 위해 지난해 처음 개설됐으며, 1기 과정을 성공리에 마치고 올해 2기를 시작했다.

을숙도문화회관 문화가 있는 날 희망과 극복을 위한 나팔의 향연

일 시 | 10월 30일 토요일 오후 7:30
 을숙도문화회관 대공연장
 입장료 | 무료
 문 의 | 을숙도문화회관 220-5811



지난 2011년 진지한 음악정신을 바탕으로 창단된 후 다양한 무대에 서온 후브라스콰이어의 '희망과 극복을 위한 나팔의 향연'.

후브라스콰이어는 그동안 다양한 무대를 통해 부산, 경남지역의 음악발전과 금관앙상블의 매력을 알리기 위해 활발한 활동을 펼쳐왔다. '후'는 입으로 바람을 불 때 나는 소리를 뜻한다.

이번 무대에서는 대중들에게 보다 가깝게 다가갈 수 있도록 영화 '인디애나 존스', '미션 임파서블', '놈놈놈' 등 영화 OST를 중심으로 경쾌하면서도 브라스밴드의 매력을 전할 수 있는 다양한 곡을 들려준다.

수아트홀 콘서트 살롱 더 뮤직 해운대 부산피아노연주가클럽 특별 초청연주회

일 시 | 10월 30일 토요일 오후 6:00
수아트홀

입장료 | 무료

문 의 | 수아트홀 744-1415



해운대에 소재한 수아트홀이 자연 경관이 빼어난 해운 팔경을 주제로 마련한 기획공연 '콘서트 살롱 더 뮤직 해운대' 10월 무대. 부산피아노연주가클럽 초청무대로 마련되는 이번 공연에서는 서숙지 회장을 비롯해 부산대학교 이운수 교수, 신라대학교 이수은 겸임교수, 김천대학교 김정배 초빙교수와 모짜르테움 국립음대 최연소 입학으로 관심을 모았던 피아니스트 위은정, 신예연주자 이정선, 천소진, 김아영, 박준범 등이 출연, 차이코프스키와 멘델스존, 프로코피에프 등 다양한 작곡가의 솔로와 듀오곡을 들려준다.

노자와 베토벤

일 시 | 11월 4일 목요일 오후 7:30
울속도문화회관 대공연장
입장료 | 1층 2만원, 2층 1만원
문 의 | 울속도문화회관 220-5812



무대에 서는 철학자 최진석 교수와 철학으로 음악을 사유하는 오충근 지휘자가 함께하는 철학을 품은 클래식 무대 '노자와 베토벤'. 부경대학교 석좌교수로 있는 오충근 지휘자가 이끄는 부산심포니오케스트라의 연주와 더불어 이 시대의 울림을 주는 실천 철학자 최진석과 함께 관객과 교감하며 인생 철학을 나누는 이번 무대는 진정한 자신이 주체가 되어 눈에 보이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예술적 경지를 깨닫는 시간으로, 장르와 장르가 교차하고 지역과 지역이 마주하는 독창적인 무대가 펼쳐진다. 대중과 소통하는 철학자로서 명성이 높은 최진석 교수는 서강대학교 철학과 명예교수이자 (사)새말새몸짓 이사장, 건명원(建明苑) 초대원장으로,

그동안 삶의 지혜와 인문학적 통찰을 담은 강연 및 저술 활동을 통해 대중과 만나왔다. 첼리스트 이강현은 한국예술종합학교를 수석 졸업하고 도독, 뮌헨 음악대학 석사 및 최고연주자과정을 수석 졸업하고 한국일보공쿠르, 중앙음악공쿠르 1위, 조선일보 '올해의 신인상' 수상, 고티에 카푸송 주최 Classe d'Excellence de Violoncelle 2018/19시즌 최종 수상자로 차세대 라이징 스타로 주목받고 있다.

프로그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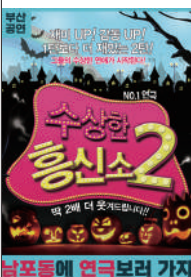
- 드보르작/교향곡 제9번 작품 95 '신세계로부터' 2악장
- 브루흐/신의 날 작품 47
- 엘가/위풍당당 행진곡 제1번 작품 39
- 베토벤/교향곡 제5번 작품 67 '운명' 4악장
- 지휘/예술감독/오충근(국립부경대학교 석좌교수)
- 특별출연/철학자 최진석(서강대학교 명예교수)
- 협연/이강현(첼로)
- 연주/부산심포니오케스트라



연극

연극 수상한 흥신소 2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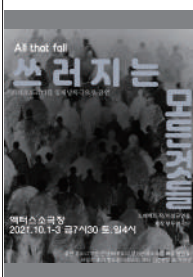
일 시 | 9월 2일(목)-2022년 1월 2일(일) 평일 오후 7:30, 주말·공휴일 오후 3:00, 6:00(매주 월요일 공연없음)
BNK부산은행조은극장 1관
입장료 | 전석 3만원
문 의 | BNK부산은행조은극장 1588-2757



지난 2014년 대학로에서 초연된 후 전국 28개 도시에서 흥행에 성공하며 많은 사랑을 받은 웰메이드 창작극 '수상한 흥신소' 두 번째 무대. 공감할 수 있는 소재와 탄탄한 구성, 시시각각 터지는 웃음으로 그동안 200만 이상 관람한 스테디셀러 연극으로 자리잡은 '수상한 흥신소'는 이번 2탄에서 더욱더 발랄하고 유쾌해진 로맨틱 코미디로 관객들과 만난다. 영혼을 보는 청년 오상우, 그는 영혼들의 이르지 못한 소원을 들어주는 서비스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어느 날 서비스센터 앞에 버려진 쓰레기 봉투의 범인을 찾기 위해 봉투를 뒤지던 그는 의문의 버킷리스트를 발견하게 되고 이후 그가 벌인 일로 견잡을 수 없는 사태가 벌어지고 마는데...

부두연극단 쓰러지는 모든것들

일 시 | 10월 1일 금요일 오후 7:30, 2일-3일 토-일요일 오후 4:00 액터스소극장
입장료 | 전석 2만원 (예매시 1만5천원, 15세 이상 관람가)
문 의 | 액터스소극장 010-5580-4364, 010-7450-3582



지난 1956년 영국 BBC방송에서 방송되었던 S베케트의 실험적인 라디오드라마를 영상, 음향 조명이 가미된 입체낭독극으로 제작한 부두연극단 '쓰러지는 모든것들'. 베케트 전문 연출가로 이름 높은 연출가 이성규가 연출하는 이번 작품은 쇠락과 소멸에 처하는 우리 인생의 덧없음을 수채화처럼 투명하게 느끼게 해주는 낭독무대이다.

- 작/S.베케트 • 연출/이성규
- 출연/안성혜, 장하근, 양진철, 방도용, 이서영, 김승완

영도문화예술회관 명작공연시리즈 10 음악극 카르멘

일 시 | 10월 14일 목요일 오후 7:30
영도문화예술회관 봉래호
입장료 | 전석 2만원(14세 이상 관람가)
문 의 | 영도문화예술회관 419-5571~4



비제의 오페라 '카르멘'이 아닌 프랑스 작가 메리메의 소설 '카르멘'을 원작으로, 비극적 사랑의 파멸을 생생한 음악극으로 제작한 '카르멘'. '카르멘'은 지난 2010년 초연된 후 그동안 다양한 무대를 통해 흥행성과 작품성을 두루 인정받아온 수작으로, 특히 우리가 흔히 접할 수 있는 일반적인 오페라 '카르멘'과는 달리 밀도 있는 신체의 움직임인 피지컬 무브먼트와 마임, 악기 연주와 노래 및 아카펠라, 춤, 가면극 등 다양한 장르가 하나로 조화를 이루며 카르멘과 돈 호세의 격정적이고 비극적인 사랑을 감각적으로 그려낸다.

부산시립극단 특별공연 스타프로젝트 '주목'

일 시 | 10월 7일(목)-23일(토) 평일 오후 7:30,
토요일 오후 5:00 **하늘바람소극장**
입장료 | 전석 2만원
(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20% 할인)
문 의 | (재)부산문화회관 607-6000



배우들이 주체가 되어 그들의 연기에 주목할 수 있는 부산시립극단 스타프로젝트

7일(목)-9일(토) 백조의 노래
부산시립극단 창단 멤버이자 30년 연기경력의 배우 이현주와 이제 연기자로서 출발선에 선 신예배우 안

예은이 연기호흡을 맞추는 '백조의 노래'. 노년의 무명배우가 화려한 조명이 꺼진 뒤 무대 위에서 지나간 세월과 배우로서의 회한을 고백하는 체홉의 단막극으로, 자신의 자리에서 묵묵히 삶을 살아가는 많은 이들에게 존경과 위로를 전한다.

- 각색/신윤아
- 연출/권지현
- 출연/이현주, 안예은

14일(목)-16일(토) 스트립티즈
부산시립극단을 이끌고 있는 든든한 중견 연기자 황창기, 김은희의 연기양상들로 펼쳐지는 폴란드의 부조리극 대표작가 슬라보미르 므로체크의 '스트립티즈'.

사회주의 체제로 넘어가는 당시 폴란드의 상황을 풍자하는 블랙코메디극으로, 이번 무대에서는 숨겨진 거대한 진실을 알고도 모른체 하거나 거기에 편승할 수 밖에 없는 '사회적 약자'로 살아가는 우리 현대인들의 삶을 반추해본다.

- 각색, 재구성, 연출, 영상사나리오/강태욱
- 출연/황창기, 김은희

21일(목)-23일(토) 그 자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나

지난해 열렸던 부산시립극단 제68회 정기공연 '체홉의 이야기'에서 단막극 '공포'를 연출하여 호평을 받았던 단원 이혁우가 다시 연출을 맡은 헨리 파넬의 작품으로, 두 자매사이에서 벌어지는 갈등으로 말미암아 파멸에 이르는 과정을 담은 작고 있다.

이번 무대에서는 염지선, 오희경, 김은옥, 서보기 등이 출연, 그동안 극단 무대에서 보기 힘들었던 여배우 중심의 팽팽한 연기대결이 펼쳐진다.

- 연출/이혁우
- 출연/염지선, 오희경, 김은옥, 서보기

구군문예회관 활성화 지원사업 부산의 노래

일 시 | 10월 26일 화요일 오후 7:30
영도문화예술회관 소공연장
입장료 | 무료
문 의 | 영도문화예술회관 419-5571~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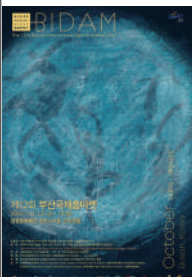
우리나라 대중가요사에서 인기를 끌었던 노래들 중 부산과 인연이 있는 노래를 대상으로 곡에 얽힌 뒷이야기와 노래를 콜라주 형식으로 표현한 '부산의 노래'.

올해는 1950년 한국 전쟁이 일어난 지 71주년이 되는 해로, 이번 무대는 민주화의 맨 앞에서 역사의 매 순간을 온 몸으로 끌어안았던 부산, 부산항, 부산 사람들에 대한 헌사, 헌가이다. 이번 무대에서는 총 3부로 나누어 서의 찬미(1926), 귀국선(1945), 전우야 잘 자라(1950), 군세어라 금순아(1951), 경성도야가까(1954), 이별의 부산정거장(1954), 해운대엘레지(1958), 잘 있거라 부산항(1961), 돌아와요 부산항에(1975) 등 1926년부터 1975년까지 대중가요를 들려준다.

무용

제12회 부산국제춤마켓

일 시 | 10월 15일(금)-10월 18일(월)
금정문화회관 금빛누리홀·은빛샘홀
입장료 | 전석 3만원(은빛샘홀 공연은 전석 2만원)
문 의 | 부산국제춤마켓 010-6775-8867
금정문화회관 519-5661



지역의 유일한 마켓형 축제인 제12회 부산국제춤마켓(Busan International Dance Market, BIDAM). 올해로 12회를 맞는 부산국제춤마켓은 신진 예술가 양성과 예술 교류 증진을 위한 지역 예술 플랫폼의 고두보를 확보하

기 위한 장이자 지역에서 국제공연예술마켓을 키워내는 가능성을 탐색하는 장이기도 하다. 2021년 올해 행사에서는 국내 18개 공연작품 및 2개의 국제공동제작 작품, 댄스필름, 강연형 공연 등 주요 행사는 금정문화회관 금빛누리홀과 은빛샘홀에서 선보이며, 해외공연 영상 및 미팅, 포럼 등은 공식 홈페이지(www.bidam.kr)와 Zoom, 유튜브 등 온라인을 통해 진행된다.

주요 일정

- 15일(금) 오후 6:30 금빛누리홀 로비 [오프닝] 신은주 무용단 '내안의 물고기'
- 15일(금) 오후 7:30 금빛누리홀 [포커스1] 멜랑콜리 댄스컴퍼니 '위버멘쉬', 아트 프로젝트 보라 '실리콘벨리'
- 16일(토) 오후 2:00 은빛샘홀 [BIDAM 시네마] 무용영화 상영
- 16일(토) 오후 4:00 은빛샘홀 [BIDAM 콘서트] 조희창과 함께하는 댄스클래식
- 16일(토) 오후 7:00 금빛누리홀 [BIDAM 커넥션&포커스2] 이슬라엘+부산, 미국+부산, 시나브로 가슴에 'ENERGY'
- 17일(일) 오후 2:00 은빛샘홀 대한민국 청춘 챌린지
- 17일(일) 오후 7:00 금빛누리홀 [포커스3] DAPcompany 'HOME', 이시현 '씨', 김진아 '살:sal', Crayon Dance Project '소소한 혁명'
- 18일(월) 오후 2:00 온라인상영 B 미팅(참가 아티스트 대상)
- 18일(월) 오후 6:00 온라인상영 라운드테이블(포럼) *온오프라인 진행

부산에스제이발레단 21년 La Bayadere

일 시 | 10월 24일 일요일 오후 4:00
해운대문화회관 해운홀
입장료 | 무료
문 의 | 부산에스제이발레단 010-5527-8220

지난 2018년 창단 후 클래식발레부터 아트 컬래버레이션(Art Collaboration)까지 꾸준한 창작활동은 물론 다양한 예술교육 프로그램을 통한 사회공헌 활동을 펼쳐온 부산에스제이발레단의 무대. 1부 클래식발레 갈라무대에 이어 2부에서는 프랑스 안무가 마리우스 피티파가 안무한 무희 니키아와 전사 솔로르에 대한 이야기를 담은 발레 '라 바야데르' 중 2막과 3막 공연을 펼친다.



콘서트

예감:예술로 감성을 전하다
장선희무용단 춤터 장선희 전통춤판

일 시 | 10월 27일 수요일 오후 7:30
부산예술회관 공연장
입장료 | 무료
문의 | 부산예술회관 631-1377



부산예술회관이 매월 마지막 주 수요일, 문화 향유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마련하는 문화가 있는 날 '예감:예술로 감성을 전하다' 10월 무대. 올해는 코로나19로 바뀐 일상과 시민들의 지친 마음을 위로하고자 보다 다양한 장르의 무대를 준비했다.

10월 무대에서는 우리 전통춤을 계승하고 보존하기 위해 한국무용 전공자들로 구성된 장선희무용단 춤터가 평소 보기 힘들었던 전통 춤판을 선보인다.

프로그램

만사일무, 도살풀이, 태평무, 지전춤, 검무, 승무 등

포레스텔라 콘서트
더 포레스텔라 2021

일 시 | 10월 16일 토요일 오후 6:00,
17일 일요일 오후 5:00 **KBS부산홀**
입장료 | R석 13만2천원, S석 11만원
A석 8만8천원, B석 6만6천원
문의 | (주)월드쇼마켓 1566-5490



크로스오버계의 아이돌이라 불리는 포레스텔라가 정규 앨범 3집 발매를 기념해 마련하는 전국 투어콘서트 부산무대. JTBC 프로그램 '팬텀싱어' 시즌2의 우승팀으로, 강형호, 고우림, 배두훈, 조민규로 구성된 포레스텔라는 타고난 감각과 넘치는 끼, 음악에 대한 열린 시각으로 클래식과 가요, 팝, 국악 장르를 넘나드는 다채로운 무대를 선보여왔다. 이번 무대에서는 3집 앨범 수록곡을 비롯해 JTBC '팬텀싱어 올스타전', '팬텀싱어2', KBS '블후의 명곡' 등을 통해 많은 사랑을 받았던 곡들을 엄선, 목소리가 줄 수 있는 최고의 감동을 선사한다.

영도문화예술회관 어울림 상설Series #27
Luz Negra 초청공연
추억속 한권의 가요 그리고 상송

일 시 | 10월 20일 수요일 오후 7:30
영도문화예술회관 소공연장
입장료 | 전석 1만원
문의 | 영도문화예술회관 419-5571~4



아코디언 밴드 루즈 네그라(Luz Negra) 초청공연으로 마련되는 영도문화예술회관 어울림 상설무대. 루즈 네그라는 세월 속에서 잊혀져 가는 악기 아코디언과 세월이 지나도 항상 우리 마음속 한권에 간직되어 있는 1950~60년대 옛 명곡들을 재해석, 그 시절 그리움과 따뜻한 마음을 무대에서 선보이고 있다. 이번 무대에서는 추억속 가요와 동시대에 유행했던 상송으로 그 시절의 향수와 레트로 감성을 관객들에게 전한다.

- 아코디언/이원주 • 콘트라베이스/유경훈
- 보컬/허유진 • 기타/안석호
- 드럼/김비오

제8회 해운대재즈페스티벌

일 시 | 10월 26일-29일 화-금요일 오후 7:30,
30일 토요일 오후 5:00
해운대문화회관 **해운홀**
입장료 | J석 4만원, R석 3만5천원
S석(2층) 2만5천원(학생 40% 할인)
문의 | 해운대문화회관 749-7651



다양한 장르의 재즈로 진행되는 부산 최고의 재즈 페스티벌 '제8회 해운대 재즈페스티벌'. 퓨전국악에서 블루스까지 세대를 아우르는 무대가 마련된 이번 페스티벌에서는 대한민국 블루스의 양대 산맥이자 블루스의 거장 '신촌블루스'와 '김목경밴드', JTBC '슈퍼밴드'에서 심사위원과 관객을 사로잡은 색소폰리스트 멜로우키친밴드, 전통음악과 대중음악, 그 경계를 허무는 '고래야, 재즈와 국악을 횡단하는 신박서클' 등 5명의 아티스트들이 출연한다.

일정

신촌블루스(26일), 멜로우키친(27일), 고래야밴드(28일), 신박서클(29일), 김목경밴드(30일)

행사

김옥균의 클래식 아카데미
클래식 살롱&월드뮤직

일 시 | 매주 화요일 오후 6:30,
목요일 오전 11:00 **영광도서 문화홀**
입장료 | 3개월 수강료 12만원(각 프로그램별)
문의 | 영광도서 070-4020-2540
김옥균 010-6367-0149



MBC 부산문화방송 'FM 가정음악실', '별이 빛나는 밤에' 등의 음악프로그램을 연출한 前 MBC PD이자 현재 클래식 음악해설가, 시인, 음악치료사로 활동하고 있는 김옥균의 해설로 진행되는 '김옥균의 클래식 아카데미'.

영광도서 8층 문화홀에서 열리는 이번 강좌는 매주 화요일에는 월드뮤직 감상회가, 목요일에는 클래식 음악 감상회가 개최된다.

월드뮤직 프로그램

체코판 인어공주의 슬픈 사랑 이야기_ 드보르작 오페라 '루살카'
라틴 클래식 음악의 매력_베를린 필하모닉 '발트 뷔네 라틴음악회' 공연 실황

뮤지컬의 세계 '미스 사이공' 공연 25주년 기념 영국 공연 실황
생상스 서거 100주년 기념 '프랑스의 모차르트' 생상스의 음악세계 & 프랑스음악 기행
클래식 살롱 프로그램
John Denver 특집_존 덴버 타계 24주년 기념 존 덴버 공연 실황
포르투갈 국민음악의 신비한 정서_파두 음악 특집 음악영화 시리즈_멜릴 스트리프 주연 '어바웃 리키' 한국인이 좋아하는 올드팝송 페스티벌(특별출연/DJ, 방송인 한강진)

제168회 알바트로스 시 낭송 콘서트
부산 시가람 시 낭송회(회장 손순희)
합동 시 낭송회

일 시 | 10월 16일 토요일 오후 3:00
영광도서 9층 문화홀
입장료 | 무료
문의 | 부산 알바트로스 시 낭송문학회 회장
010-6367-0149

• 특별출연/바리톤 이경훈

10월 오페라바움 영상감상회

일 시 | 매주 월요일 오후 2:00, 금요일 오후 1:30
오페라바움
입장료 | 전석 1만원(중급반 이상 1만5천원)
문의 | 오페라바움 722-9597



오페라 전문 음악감상실인 오페라바움이 마련하는 10월 영상감상회. 매주 월요일에는 교향곡, 협주곡 콘서트 실황을, 매주 금요일에는 이탈리아 벨칸토오페라 3인방 시리즈를 오페라바움 대표 심성섭의 상세한 해설로 감

상할 수 있다. 특히 오페라바움에서는 매주 이어지는 성악가의 땀방울과 작은 소리까지 놓치지 않는 최신 영상물을 통해 보다 더 쉽고 재미있게 오페라 감상을 즐길 수 있다.
1일(금) 로시니 '세빌리아의 이발사'
8일(금) 도니제티 '람메르무어의 루치아'
15일(금) 벨리니 '노르마'
22일(금) 로시니 '알제리의 이탈리아여인'
29일(금) 벨리니 '청교도'

10월 시네바움 아카데미

일 시 | 매주 화요일 오전 11:00, 5일(화), 19일(화)
오후 7:00, 21일(목) 오전 11:00 시네바움
입장료 | 무료(소수 정원제, 문자 예약 필수)
문의 | 시네바움 010-2774-3455

5일(화), 12일(화), 19일(화), 26일(화) 오전 11:00
윤산의 논어아카데미

5일(화) 오후 7:00 시네테라피_또 다른 시작 '다큐멘터리, 파리 오페라 발레의 별, 아네스(2014, 97min)&Paris Opera Ballet 쇼팽카멜리아의 여인'
• 강사/류준하(클래식 테라피스트)

19일(화) 오후 7:00 시네테라피_절망과 분노, 위기를 넘다 '산티아고 순례길 걷다가 살짝 게르니카로 벗어나기'
• 강사/이성훈(예술철학자)



21일(목) 오전 11:00 원양희 시인과 함께하는 낭송과 낭독 그리고 토크_원양희 시집 <사십계단, 울먹>(전망, 2021)
• 진행/김비주, 박노경, 황혜경

2021 부산인문프로젝트

맨발의 인문학 바닷가 걷기와 심의 문학

일 시 | 9월 29일(수), 10월 27일(수), 11월 3일(수)
오후 6:00 송정·일광·다대포 바닷가
입장료 | 무료(선착순 12명, 문자 예약 필수)
문의 | 시네바움 010-2774-3455



부산인문연대가 주최하고 시네바움이 주관하는 2021 부산인문학프로젝트 '부산, 인문바다에 빠지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 일상으로의 복귀를 위한 이번 '맨발의 인문학'에서는 김은정 맨발학교 교감, '맨

발일기'의 저자인 맨발의 인문학자 권택환 대구 교대 특수통합교육과 교수의 진행으로, 일상을 잠시 내려놓은채 부산의 바닷가를 걸으며 심의 미학에 빠져본다.

9월 29일 송정 바닷가에 이어 10월 27일에는 일광 바닷가, 11월 3일에는 다대포 바닷가에서 진행된다.

전시

부산박물관 2021년 제2회 신수유물 소개전 다시 그리는 왜관-초량화관 지도草梁和館之圖

일 시 | 6월 15일(화)-10월 17일(일)
부산박물관 부산관
문의 | 부산박물관 610-7111

BMA 소장품 하이라이트 우리는 모두가 위대한 혼자였다

일 시 | 7월 17일(토)-10월 3일(일)
부산시립미술관 3층 소전시실
문의 | 부산시립미술관 744-2602

임준영 사진전 늘, 그러하듯

일 시 | 7월 26일(월)-10월 16일(토)
BMW Photo Space
문의 | BMW Photo Space 792-1630

• 관람시간/오전 9:00-오후 6:00(토요일은 오후 3:00까지, 일공휴일 휴관)

금정문화회관 해외 문화예술 교류전 새로운 시작 라트비아

일 시 | 8월 24일(화)-10월 9일(토)
금정문화회관 제2, 3전시실
입장료 | 무료
문의 | 금정문화회관 519-5657



2021년 한국-라트비아 수교 30주년을 맞아 금정문화회관이 마련한 해외 교류전.

해외 문화예술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문화의 다양성을 체험하기 위해 마련한 이번 전시에서는 북유럽 발트해 연안에 위치한 세계에서 가장 자연친화적인 나라 라트비아의 건축, 전통의상, 일러스트 등 작품 120여 점이 소개된다.

• 관람시간/오전 10:00~오후 6:00(일요일 휴관)

고은사진미술관 기획전 사람의 그대

일 시 | 9월 11일(토)-12월 26일(일)
고은사진미술관
문의 | 고은사진미술관 746-005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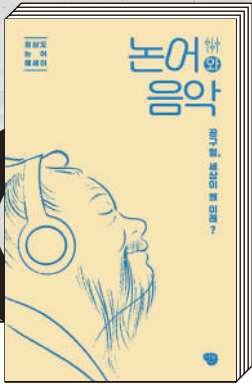
사진의 기록적 가치와 예술적 의미를 가장 솔직한 사진창작으로 변함없이 펼쳐고 있는 강운구 선생의 인물사진전.

'사람의 그대'는 지난 5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사진가 강운구 선생이 만난 인연의 발자취를 지속적으로

기록한 전시로, 문인, 화가 등 인물사진 163점이 전시된다.

부산시립미술관 기획전 오노프 ONOFF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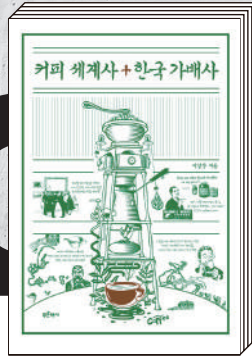
일 시 | 9월 15일(수)-2022년 2월 20일(일)
부산시립미술관 2층 H실
문의 | 부산시립미술관 744-2602



논어와 음악 공구형, 세상이 왜 이래?

정상도 지음 / 나무발전소
220p / 1만 4천원

유교와 공자를 생각하면 엄격하고 근엄한 이미지부터 떠오른다. 그러나 논어에 기록된 공자의 언행을 보면 음악을 좋아하는 공자를 발견할 수 있다. “공자가 제 나라에 있을 때 ‘소’ 음악을 듣고 석 달 동안 고기 맛을 잊었다고 한다. 그때, 이렇게 말했다. ‘음악이 이렇게 즐거운 경지에 이르러라고 생각하지 못했다.’”(‘논어’ 술이 7.13) 음악에 얼마나 심취했으면 이럴 수가 있을까 하는 궁금증이 드는 대목이다. “공자가 다른 사람과 함께 노래를 부를 때, 그가 노래를 잘하면 반드시 그에게 다시 부르게 한 다음에 함께 불렀다.”(‘논어’ 술이 7.31) 앵콜을 요청하고, 좋아하는 노래를 따라 부르는 우리와 무엇이 다른가 싶은 대목이다. 정상도 국제신문 수석 논설위원이 음악인 공자를 알려주는 책을 냈다. 논어에는 여러 사람들과 어울려 즐겁게 노래하는 공자의 모습이 남아 있다. 공자는 ‘예악(禮樂)’이라는 복합용어를 즐겨 사용했는데, 인간이 사회적 존재로서 서로 인정하고 존중하고 돕고 갈등을 조화롭게 극복하는 의미이다. 이 책은 지금까지의 논어 관련 에세이와 달리 가요, 팝송, 재즈와 국악, 클래식 등 시대와 국경을 불문한 다양한 장르의 음악과 세상일을 논어의 구절과 연결하고 있다.



커피 세계사+한국 가배사

이길상 지음 / 푸른역사
424p / 2만 원

한국학중앙연구원에서 교육학을 가르치는 이길상 교수가 쓴 커피역사책. 서구적 시각에서 다룬 기존의 커피사와는 달리 인문향이 흠뻑 배인 책이다. 특히 커피가 우리나라와 함께 해 온 역사를 소개하는 부분이 흥미롭다. 많은 사람들이 고종 임금 커피를 마신 최초의 조선인으로 알고 있지만, 고종보다 먼저 커피를 마셨을 것으로 추측되는 인물이 있다. 신학생 신분으로 마카오에 갔던 김대건 신부일 가능성이 크다. 김대건 신부 유학 당시는 커피가 크게 유행하던 시절이었다. 프랑스 선교사들과 함께 생활하던 김대건 신부와 신학생들이 커피를 마셔보지 않았을 가능성이 오히려 적은 것이다. 서양식 식사를 하고 커피를 마셨다는 것이 자연스러울 것이다. 또한 김대건 신부에게 철학을 가르쳤고, 후에 제4대 조선대목구장이 된 베르뇌 주교는 조선 땅에 처음으로 커피를 들인 장본인이다. 베르뇌 주교는 1860년 홍콩 주재 파리외방전교회 극동대표부에 보낸 서신에 커피를 주문했고, 1861년에 조선에 커피가 도착했다. 이것을 시발점으로 보면 한국 커피 역사는 160년에 이른다. 그리고 조선인으로서 커피를 처음 마신 사람들은 천주교 신자들이었다. 우리나라 커피의 역사를 읽는 재미가 크다.



벌거벗은 미술관

양정무 지음 / 창비
292p / 1만 8천원

고대부터 현대까지 아우르는 미술사를 인류 문명사적 관점에서 연구하는 미술사학자이자 ‘인문학의 꽃’으로 불리는 미술사를 대중화 해 온 저자가 동서고금에 걸친 미술 이야기를 들려준다. 미술에 대한 우리의 오래된 고정관념을 환기하며 미술작품을 통한 사유와 감성의 확대를 모색한 책이다. 저자가 오랫동안 미술작품을 마주할 때마다 고민해오던 문제들을 대중의 눈높이에 맞춰 집요하면서도 자상하게 풀어냈다. ‘장 고전은 없다’에서 고전이 허상임을 꼬집으며 첫 물꼬를 튼다. 석고상 그리기(데생)라는 특정한 방식의 훈련이 어쩌서 미술교육의 기본이 되었을까부터 시작한다. 특정 시기(기원전 6~4세기), 특정 지역(그리스)의 미술이 서구에서 수천년 동안 아름다움의 기준이 되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 과정을 들여다보면 순백색의 석고상은 백인종의 우수성에 대한 근거로 작용했고, 이상적 아름다움의 결정체로 여겨지는 그리스 조각은 군국주의적이고 남성중심적인 문화 속에서 탄생했다. 저자는 아름다운 미술에 어두운 그늘이 있음을 폭로하는 것에서 한발 더 나아가 미의 기준이 구축되어가는 과정을 통해 독자들이 미에 대해 품고 있는 생각을 재검토할 수 있도록 이끌어준다.

(재)부산문화회관, 부산국제교류재단 업무협약

(재)부산문화회관(대표이사 직무대행 박철호)이 지난 9월 15일 부산국제교류재단(사무총장 정종필)과 문화예술분야 국제교류사업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업무협약에 따라 (재)부산문화회관과 부산국제교류재단은 부산 자매우호도시 및 해외국가간 협력관계 강화 및 국제협력력을 기반으로 한 문화예술 콘텐츠 개발을 통해 시민문화 향유 기회를 확대하고 앞으로 더 나아가 K-문화의 우수성을 알리고 다양한 국제교류 협력사업 추진을 위한 네트워크 형성에 힘써나갈 예정이다.

한편, (재)부산문화회관과 부산국제교류재단은 지난 2016년부터 부산시 공공외교 핵심 프로젝트인 '유라시아 시민대장정'을 통해 본격적인 협력관계를 구축하며 교류 사업을 추진해왔으며, 특히

부산시립예술단은 4년 연속 개최된 '유라시아 시민대장정'의 피날레 무대를 장식하는 부산데이 행사에 참여하여 행사의 품격을 높인 바 있다.

양 기관은 이번 업무협약이 "공공외교의 플랫폼이 되어 세계시민들과 직접 소통하여 우리나라의 문화예술의 공감대를 확산시키고 영향력을 높이는 외교활동의 시발점이 될 것이다"며 "장기화되는 코로나19 국면 속에서 새로운 문화예술과 공연 콘텐츠를 함께 개발하고, 해외 자매도시들과 지속적인 교류를 도모하면서 문화관광 매력도시 부산의 새 비전을 구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10월 찾아가는 예술단

평소 공연장을 찾을 수 없는 문화 소외계층을 찾아가는 부산시립예술단 맞춤공연 '찾아가는 부산시립예술단'이 10월에도 다양한 곳을 찾아 시민들과 만난다.

- | | |
|-----------|---|
| 일정 | 10월 5일(화) 오전 10:00 부산시청 대강당 '시민의 날 기념식' 부산시립교향악단 |
| | 10월 9일(토) 오전 10:00 부산시청 대강당 '한글날 기념식' 부산시립소년소녀합창단 |
| | 10월 9일(토) 오후 2:30 국립부산과학관 부산시립교향악단 |
| | 10월 13일(수) 오후 2:00 부산진구 도시재생지원센터 개소식 축하공연 부산시립청소년교향악단 |
| | 10월 15일(금) 오전 9:40 용수초등학교 부산시립청소년교향악단 |
| | 10월 20일(수) 오후 3:00 분포고등학교 부산시립합창단 |
| | 10월 22일(금) 오전 11:00 유엔평화공원 '유엔의 날 기념식' 부산시립합창단 |
| | 10월 22일(금) 오후 1:00 동아중학교 부산시립청소년교향악단 |
| | 10월 25일(월) 오전 9:30 상리초등학교 부산시립청소년교향악단 |
| | 10월 28일(목) 오전 10:40 반안초등학교 부산시립극단 |
| | 10월 28일(목) 오후 1:30 삼여초등학교 부산시립청소년교향악단 |

2021년 3분기 문화예술아카데미 수강생 모집

수준 높은 강좌로 매년 시민들의 문화예술 향유와 지적 호기심을 충족시켜온 (재)부산문화회관 2021년도 3분기 문화예술아카데미가 10월 12일부터 새롭게 시작된다. 매 분기 각 분야의 수준높은 전문가들이 참여하여 새로운 커리큘럼을 선보이고 있는 인문·교양 강좌는 이번 학기에서도 수강생들의 다양한 관심사에 맞추어 보다 다채로운 프로그램으로 꾸며진다.

문화예술아카데미의 대표적인 인기강사인 이용숙은 이번 강좌에서 클래식음악 천년의 역사에서 살아남은 '클래식 명작 100선'을 매학기 주제별로 재조명한다. 이번 학기에서는 '음악의 가을'이라는 주제로 인생의 가을과 삶에 대한 사색을 다루는 클래식 음악과 오페라, 발레 명작들을 생생한 공연실황 영상과 더불어 관련 영화와 다큐멘터리로 감상할 수 있다.

미술사 주변의 흥미로운 이야기들을 통해 미술사를 공부하는 허나영 박사의 '거꾸로 보는 미술사:미술 속 펜트하우스'는 인간의 욕망을 표현한 예술들을 시대에 따른 미술의 주된 흐름과 비교하면서 채워질 수 없는 인간의 욕망에 대한 이야기를 색다르게 풀어낸다. 이밖에 지난 학기 강좌에 이어지는 전원경 작가의 '예술, 인간을 말하다', 서양미술사를 연대기별로 알아보는 미술비평가 장원 박사의 흥미로운 미술사 수업 'Artistic Fantastic 미술사:현대미술사', 음악칼럼니스트 유혁준의 '음악 이야기' 등도 수강생과의 만남을 기다리고 있다.

독일 라이프치히 대학에서 북 아트와 그래픽 디자인을 전공한 김효은 작가는 이번 학기에서 이미 낡아 헌 책이 되어버린 소중한 책을 또 다른 예술작품으로 되살려 나만의 책으로 재탄생시키는 'Creative 북바인딩:책 속의 책'과 '일러스트 드로잉:니트 양말, 따뜻한 수프 그리고 굴'이라는 독창적인 강좌로 수강생들을 만난다. 일

문의 (재)부산문화회관 607-6000, www.bscc.or.kr

기를 쓰듯 드로잉으로 나의 추억과 감정을 표현하는 김은주 작가의 '나만의 드로잉 그로잉', 사진작가 뿌리아 김의 '하이퀄리티를 위한 사진학', 부산시립극단 단원 김은희의 '마음으로부터의 연극' 등 기존의 인기강좌들도 계속 이어진다. 이밖에 초겨울로 접어드는 11월에는 소설가 함정임과 함께 '소설로 떠나는 일본 여행'과 음악칼럼니스트 황장원이 진행하는 '모차르트 오페라 스페셜' 특강도 마련되어 있다. '소설로 떠나는 일본 여행'은 소설 '설국'과 '인간실격'으로 세계 독자들의 사랑을 받는 가와바타 야스나리와 다자이 오사무의 소설 현장을 소설가 함정임의 안내로 여행할 수 있다.

해가 갈수록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실기강좌 역시 이번 분기에도 계속된다. 특히 부산시립예술단 단원과 지역의 우수한 강사들의 수준 높은 지도로 이뤄지는 가야금, 거문고, 첼로, 현대무용, 라인댄스, 한국무용, 발레, 해금 등은 다른 곳에서는 접하기 어려운 강좌들로 이번 분기에도 서두르지 않으면 신청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이번 학기에는 코로나19의 장기화에 따른 '위드(with) 코로나' 시대를 맞아 비대면 문화예술교육을 위한 온라인 강좌도 개설된다. 이번에 개설되는 온라인 강좌는 모두 5개 강좌로, '현대미술의 인플루언서', '사진도 예술이다', '일상기록, 펜 드로잉', '세계의 지휘자를 만나다', '나의 요람에서 무덤까지' 등 다양하면서도 흥미로운 강좌가 준비되어 있다. 모든 강좌는 온라인 화상 프로그램 '줌(ZOOM)'을 통해 실시간 라이브로 진행되며 질의응답, 채팅 등을 활용한 수강생들과의 적극적인 소통으로 진행된다.

이번 강좌의 수강신청은 (재)부산문화회관의 홈페이지 및 전화를 통해 선착순으로 받으며,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www.bscc.or.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2021년도 3분기 문화예술아카데미 수강생 모집



수강신청 및 방법: 홈페이지 www.bscc.or.kr(아카데미 > 강좌안내 및 접수), 9. 13(월) ~ 선착순

문의: 051)607-6000

온라인(ZOOM 수업)					
현대미술의 인플루언서	10. 26 ~ 11. 16	매주 화(4회)	19:30-21:00	온라인	20,000
사진도 예술이다	11. 4 ~ 11. 25	매주 목(4회)	19:30-21:00	온라인	20,000
일상기록, 펜 드로잉	11. 6 ~ 11. 27	매주 토(4회)	10:00-11:00	온라인	20,000
세계의 지휘자를 만나다 II	11. 23 ~ 12. 14	매주 화(4회)	19:30-20:40	온라인	20,000
나의 <요람에서 무덤까지>	12. 8 ~ 12. 15	매주 수(2회)	19:30-21:00	온라인	10,000
인문·교양					
모차르트 오페라 스페셜	11. 1 ~ 11. 22	매주 월(4회)	14:00-16:00	강의실	80,000
함정임의 무엇보다 소설을 : 소설로 떠나는 일본 여행	11. 8 ~ 11. 29	매주 월(4회)	19:00-21:00	강의실	80,000
마음으로부터 연극!	10. 18 ~ 12. 20	매주 월(10회)	19:00-21:00	연습실	120,000
나만의 드로잉 그로잉(초급)	10. 18 ~ 12. 20	매주 월(10회)	10:30-12:30	아트랩	180,000
나만의 드로잉 그로잉(응용)	10. 18 ~ 12. 20	매주 월(10회)	14:00-16:00	아트랩	180,000
일러스트 드로잉: 니트 양말, 따뜻한 수프 그리고 쿨	10. 12 ~ 12. 14	매주 화(10회)	19:00-21:00	미술실	180,000
이용숙의 클래식 명작 100선	10. 13 ~ 12. 15	매주 수(10회)	14:00-16:00	강의실	200,000
Creative 북바인딩 : 책 속의 책	10. 13 ~ 12. 15	매주 수(10회)	19:00-21:00	미술실	180,000
유혁준의 음악이야기	10. 14 ~ 12. 16	매주 목(10회)	14:00-16:00	강의실	200,000
Artistic Fantastic 미술사 : 현대미술사	10. 14 ~ 12. 16	매주 목(10회)	19:00-21:00	강의실	150,000
전원경의 '예술, 인간을 말하다'	10. 15 ~ 12. 17	매주 금(10회)	14:00-16:00	강의실	200,000
거꾸로 보는 미술사 : 미술 속 펜트하우스	10. 16 ~ 12. 18	매주 토(10회)	10:30-12:30	강의실	150,000
하이퀄리티를 위한 사진학(응용)	10. 16 ~ 12. 18	매주 토(10회)	10:00-12:00	강의실	150,000
하이퀄리티를 위한 사진학(초급)	10. 16 ~ 12. 18	매주 토(10회)	15:00-17:00	강의실	150,000
실기(악기·무용)					
프리미엄 발레	10. 18 ~ 12. 20	매주 월(10회)	10:30-11:50	연습실	100,000
바이올린 A	10. 18 ~ 12. 20	매주 월(10회)	17:30-19:00	레슨실	120,000
바이올린 B	10. 18 ~ 12. 20	매주 월(10회)	19:30-21:00	레슨실	120,000
거문고 A	10. 18 ~ 12. 20	매주 월(10회)	19:30-21:00	레슨실	140,000
라인댄스(초급)	10. 12 ~ 12. 14	매주 화(10회)	10:30-11:50	연습실	100,000
한국무용(기초반)	10. 12 ~ 12. 14	매주 화(10회)	15:00-16:20	연습실	100,000
사물놀이	10. 12 ~ 12. 14	매주 화(10회)	17:30-19:00	연습실	120,000
해금(중급)	10. 12 ~ 12. 14	매주 화(10회)	19:30-21:00	레슨실	120,000
가야금 A	10. 12 ~ 12. 14	매주 화(10회)	17:30-19:00	레슨실	140,000
가야금 B	10. 12 ~ 12. 14	매주 화(10회)	19:30-21:00	레슨실	140,000
슬림 업 스트레칭 발레	10. 13 ~ 12. 15	매주 수(10회)	10:30-11:50	연습실	100,000
한국무용(양태옥류 진도복놀이)	10. 13 ~ 12. 15	매주 수(10회)	15:00-16:20	연습실	100,000
지휘자클래스	10. 13 ~ 12. 15	매주 수(10회)	19:00-21:00	강의실	360,000
거문고 B	10. 13 ~ 12. 15	매주 수(10회)	19:30-21:00	레슨실	140,000
라인댄스(중급)	10. 14 ~ 12. 16	매주 목(10회)	10:30-11:50	연습실	100,000
한국무용(엄옥자류 통영살풀이)	10. 14 ~ 12. 16	매주 목(10회)	15:00-16:20	연습실	100,000
해금(초급)	10. 14 ~ 12. 16	매주 목(10회)	17:30-19:00	레슨실	120,000
춤추는 현대무용	10. 14 ~ 12. 16	매주 목(10회)	19:30-20:50	연습실	100,000
클래식기타(입문)	10. 15 ~ 12. 17	매주 금(10회)	10:30-12:00	레슨실	120,000
클래식기타(중급)	10. 15 ~ 12. 17	매주 금(10회)	14:00-15:30	레슨실	120,000
클래식기타(초급)	10. 15 ~ 12. 17	매주 금(10회)	16:00-17:30	레슨실	120,000
첼로 A	10. 16 ~ 12. 18	매주 토(10회)	11:00-12:30	레슨실	240,000
첼로 B	10. 16 ~ 12. 18	매주 토(10회)	13:00-14:30	레슨실	240,000

※강의 일정은 내부 사정에 의해 변동될 수 있습니다.

2021-22

2021-22 BSCC
SEASON PROGRAM

(재)부산문화회관·부산시립예술단
2021-22 시즌 프로그램

b s c c s e a s o n p r o g r a m

부산을 품다 _ 세상을 잇다 _ 예술로 함께 하다

(재)부산문화회관 2021-22 시즌 프로그램

※ 문화 부산문화회관 / 시민 부산시민회관

연극/뮤지컬

라이브 스크린으로 즐기는 영국 연극계 화제작
NT-Live <워 호스 War Horse>

문화 | 중극장 4.24.(토) 3:00pm
All Seats 20,000원

※ NT-Live는 공연실황을 녹화하여 상영하는 작품입니다.



전설의 리틀농구단

문화 | 중극장 10.9.(토) 14:00pm, 18:00pm
R 60,000원 S 50,000원



가해자와 피해자의 숨막히는 심리게임
<흑백다방>

시민 | 소극장 10.23.(토)~10.24.(일) 3:00pm
R 40,000원 S 30,000원 A 20,000원



라이브 스크린으로 즐기는 영국 연극계 화제작
NT-Live <리어왕 King Lear>

문화 | 중극장 10.23.(토) 3:00pm
All Seats 20,000원

※ NT-Live는 공연실황을 녹화하여 상영하는 작품입니다.



알어버린 두 손의 천재음악가
뮤지컬 <라흐마니노프>

문화 | 중극장 11.5.(금)~11.6.(토)
금 7:30pm 토 3:00pm
R 50,000원 S 30,000원 A 20,000원



스승의 삶을 хол친 제자의 딜레마
<단편소설집> [일정 연기]

시민 | 소극장 12.17.(금)~12.18.(토)
금 7:30pm 토 3:00pm
R 40,000원 S 30,000원 A 20,000원



무용/발레

2021 BSCC 제작공연 시리즈 I

이정운 안무 신작 <MOTI/어디로부터>

문화 | 대극장 9.3.(금)~9.5.(일)
금 8:00pm 토·일 5:00pm
R 50,000원 S 30,000원 A 20,000원



2021 BSCC 제작공연 시리즈 II

(재)부산문화회관 & 파리 테아트르 드 라 빌 / 리옹댄스비엔날레 공동제작

안은미컴퍼니 <A-드래곤> [일정 연기]

문화 | 중극장 11.26.(금)~11.27.(토)
금 7:30pm 토 3:00pm
R 50,000원 S 30,000원 A 20,000원



한국 발레 대표 국립발레단의 12월 선물
국립발레단 <호두까기인형>

시민 | 대극장 12.1.(수)~12.2.(목) 7:30pm
V 80,000원 R 60,000원 S 40,000원



음악/클래식

한국을 대표하는 형제 피아니스트의 첫 듀오무대

피아니스트 임동민&임동혁 듀오 리사이클

문화 | 대극장 3.6.(토) 5:00pm
R 90,000원 S 70,000원 A 50,000원 B 30,000원



빈 필과 베를린 필의 매력적 만남

비엔나 & 베를린 챔버 오케스트라 [취소]

문화 | 대극장 6.22.(화) 7:30pm
V 100,000원 R 70,000원 S 50,000원 A 30,000원



조성진 피아노 리사이클

시민 | 대극장 9.16.(목) 7:30pm
R 110,000원 S 90,000원 A 70,000원 B 50,000원



클라라 주미강&김선욱 듀오 리사이클

문화 | 대극장 11.1.(월) 7:30pm
R 70,000원 S 50,000원 A 30,000원



성악과 기악의 정점에서 만나는 바로크 음악
조수미 & 이 무지치(I Musici)

문화 | 대극장 12.18.(토) 5:00pm
V 150,000원 R 120,000원 S 90,000원 A 70,000원



한 해를 보내고 새해를 맞이하는
리차드 용재오닐 리사이클

시민 | 대극장 12.26.(일) 5:00pm
R 70,000원 S 50,000원 A 30,000원



오페라

BSCC Cine Opera Choice - 베르디 완전정복 I
메트로폴리탄 오페라 <라 트라비아타>

문화 | 중극장 5.1.(토) 3:00pm
All Seats 20,000원
※ BSCC Cine Opera Choice는 공연실황을 녹화하여 상영하는 작품입니다.



BSCC Cine Opera Choice - 베르디 완전정복 II
브리겐츠 오페라 페스티벌 <리골레토>

문화 | 중극장 6.12.(토) 3:00pm
All Seats 20,000원
※ BSCC Cine Opera Choice는 공연실황을 녹화하여 상영하는 작품입니다.



BSCC Cine Opera Choice - 베르디 완전정복 III
라 스칼라 <아이다>

문화 | 중극장 9.4.(토) 3:00pm
All Seats 20,000원
※ BSCC Cine Opera Choice는 공연실황을 녹화하여 상영하는 작품입니다.



2021 BSCC 제작공연 시리즈III
<피가로의 결혼>

문화 | 대극장 10.15.(금)~10.17.(일)
금 7:30pm 토·일 5:00pm
V 100,000원 R 70,000원 S 50,000원 A 30,000원
※ 패키지 제외



이탈리아 모데나코무날레극장
콘서트 오페라 <청교도>

시민 | 대극장 11.10.(수) 7:30pm
R 70,000원 S 50,000원 A 30,000원



BSCC Cine Opera Choice - 베르디 완전정복IV
베를린국립오페라 <맥베스>

문화 | 중극장 12.4.(토) 3:00pm
All Seats 20,000원
※ BSCC Cine Opera Choice는 공연실황을 녹화하여 상영하는 작품입니다.



국악

전국팔도 핫한 탈꾼들의 제대로 보여주는 탈춤판
천하제일탈공작소<가장무도>

문화 | 중극장 4.3.(토) 5:00pm
R 30,000원 S 20,000원



압도적인 감흥, 세상 어디에도 없던 음악
<잠비나이 부산 콘서트>

시민 | 소극장 4.30.(금) 7:30pm
R 30,000원 S 20,000원



다원예술

브로드웨이를 매료시킨 미스터리 퍼포먼스
<스냅 SNAP>

문화 | 중극장 5.20.(목) 2:00pm 7:30pm
R 30,000원 S 20,000원



콘서트

한국인이 사랑하는 피아니스트
2021 유기 구라모토 콘서트

시민 | 대극장 5.28.(금) 7:30pm
R 70,000원 S 50,000원 A 30,000원
※ 패키지 제외



감동을 넘어선 마법의 시간
2021 디즈니 인 콘서트

시민 | 대극장 8.28.(토) 5:00pm
V 100,000원 R 80,000원 S 60,000원 A 40,000원
※ 패키지 제외



그때 그 시절 우리들의 영원한 히어로
썸머 나이트 콘서트 [취소]

시민 | 대극장 12.16.(목) 7:30pm
R 70,000원 S 50,000원 A 30,000원



BSCC 인문학* 콘서트 : 향연

포스트 코로나 시대와 행복의 조건
문화심리학자 김정운

문화 | 중극장 3.26.(금) 11:00am
All Seats 20,000원
공연 부산시립합창단



어디서 살 것인가?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공간)
건축가 유현준

문화 | 중극장 4.30.(금) 11:00am
All Seats 20,000원
공연 부산시립합창단



진정성의 시대
빅데이터 전문가 송길영

문화 | 중극장 5.28.(금) 11:00am
All Seats 20,000원
공연 부산시립청소년교향악단



명작의 조건과 장인정신
미술사학자 유홍준

문화 | 중극장 7.30.(일) 11:00am
All Seats 20,000원
공연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부산시립무용단



영원한 광대 김명곤의 풍류정담(風流情談)
공연예술인 김명곤

문화 | 중극장 9.24.(금) 11:00am
All Seats 20,000원
공연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부산시립무용단



뇌과학에 묻다, 예술의 미래는?
뇌과학자 김대식

문화 | 중극장 10.29.(금) 11:00am
All Seats 20,000원
공연 부산시립교향악단



가족·어린이·청소년

공연장 예술진로교육 프로그램
스쿨 온 스테이지 School on Stage

문화 | 중극장 5.26.(수) 11.17.(수)
10:00am 2:00pm
All Seats 10,000원



온가족과 함께하는 판타스틱 모험의 세계
<신비아파트> 뮤지컬 시즌 4

시민 | 대극장 6.19.(토)~6.20.(일)
토 11:00am 2:00pm 4:30pm
일 11:00am 2:00pm
1층 60,000원 2층 50,000원
※ 패키지 제외



백희나 작가의 원작을 넘어선 감동
뮤지컬 <알사탕>

문화 | 중극장 7.10.(토)~7.11.(일)
7.16.(금)~7.18.(일) 금 4:00pm
토일 11:00am 2:00pm 4:00pm
1층 50,000원 2층 40,000원
※ 패키지 제외



생존경쟁 끝자락에서 마주하는 우정
<XXL레오타드 안나수이 손겨울> [취소]

문화 | 중극장 9.9.(목)~9.10.(금)
목 7:30pm 금 2:00pm(단체관람) 7:30pm
R 30,000원 S 20,000원



문화가 있는 날

당신을 웃게 하는 또 다른 감동, 스크린으로 만나다
(재)부산문화회관 <문화가 있는 날>

시민 | 소극장 4.28.(수), 5.26.(수), 6.30.(수),
7.28.(수), 9.29.(수), 10.27.(수) 11.24.(수),
12.29.(수) 7:30pm
All Seats Free



지역프로젝트

부산 시민들의 유쾌한 문화놀이터
2021 시민뜨락축제 [일정 연기]

시민 | 야외무대 상반기(4~5월)
하반기(9~10월) 12:20pm
All Seats Free



비대면 시대, 온라인으로 즐기는 배시시한 콘텐츠
2021 배시시 프로덕션 온택트

배시시(BSCC)TV 2021년 하반기
BSCC 온라인 플랫폼 Free Streaming



새로운 시선, 차세대 예술
2021 부산신진예술페스티벌

문화 | 시민 8.14.(토)~8.22.(일)
평일 7:30pm, 주말·공휴일 5:00pm
All Seats 20,000원



실내악의 향연, 음악의 온기를 전하다
2022 (재)부산문화회관 챔버 페스티벌

문화 | 중극장&챔버홀 2022.1.18.(화)~1.30.(일)
평일 7:30pm 주말 5:00pm



※ 코로나19 상황으로 인해 공연 일정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부산시립예술단 2021 시즌 프로그램

※ **문화** 부산문화회관 / **시민** 부산시민회관

부산시립교향악단_정기연주회

제571회 정기연주회 부산시향의 신년음악회

문화 | 시민 1.14.(목)~1.15.(금) 7:30pm
R 20,000원 S 15,000원 A 10,000원 B 5,000원
지휘 최수열 | 피아노 이경숙&김규연



제572회 정기연주회 선후배

문화 | 중극장 3.12.(금) 7:30pm
R 20,000원 S 15,000원 A 10,000원 B 5,000원
지휘 최수열 | 첼로 정재윤 | 바이올린 김덕우



제573회 정기연주회 슈트라우스 어게인!

시민 | 대극장 4.2.(금) 7:30pm
R 20,000원 S 15,000원 A 10,000원 B 5,000원
지휘 최수열 | 피아노 임윤찬 | 작곡 김택수(2021 올해의 예술가)



제574회 정기연주회 부산시향의 말러 [하반기 연기]

문화 | 대극장 4.30.(금) 7:30pm
R 20,000원 S 15,000원 A 10,000원 B 5,000원
객원지휘 이병욱



제575회 정기연주회 열정

시민 | 대극장 5.27.(목) 7:30pm
R 20,000원 S 15,000원 A 10,000원 B 5,000원
지휘 최수열 | 클라리넷 김한



제576회 정기연주회 비제의 교향곡 제1번

문화 | 중극장 6.18.(금) 7:30pm
R 20,000원 S 15,000원 A 10,000원 B 5,000원
지휘 이민형 | 피아노 이윤수



제577회 정기연주회 프랑스식 뉘앙스 [취소]

문화 | 대극장 7.16.(금) 7:30pm
R 20,000원 S 15,000원 A 10,000원 B 5,000원
객원지휘 아드리앙 페뤼송



제578회 정기연주회 합창

문화 | 대극장 9.16.(목) 7:30pm
R 20,000원 S 15,000원 A 10,000원 B 5,000원
지휘 최수열 | 소프라노 박은주 | 메조소프라노 백재은
테너 국윤중 | 베이스 장세종 | 합창 부산시립합창단



제579회 정기연주회 스키

시민 | 대극장 10.15.(금) 7:30pm
R 20,000원 S 15,000원 A 10,000원 B 5,000원
지휘 최수열 | 바이올린 조진주



제580회 정기연주회 보헤미안

문화 | 대극장 11.4.(목) 7:30pm
R 20,000원 S 15,000원 A 10,000원 B 5,000원
지휘 이민형 | 피아노 홍민수



제581회 정기연주회 모차이즘

문화 | 대극장 11.26.(금) 7:30pm
R 20,000원 S 15,000원 A 10,000원 B 5,000원
객원지휘&피아노 김대진



제582회 정기연주회 시작 아니면 끝

문화 | 중극장 12.16.(목) 7:30pm
R 20,000원 S 15,000원 A 10,000원 B 5,000원
지휘 최수열 | 피아노 최희연
작곡 김택수(2021 올해의 예술가)



부산시립교향악단_기획연주회

부산시향의 미완성음악회 I

문화 | 대극장 1.12.(화) 7:30pm
All Seats 5,000원



제76회 청소년협주곡의 밤

시민 | 대극장 2.18.(목) 7:30pm
All Seats 5,000원



부산시향의 미완성음악회 II

문화 | 중극장 3.10.(수) 7:30pm
All Seats 5,000원



부산시향의
미완성음악회III
시민 | 대극장 3.30.(화) 7:30pm
All Seats 5,000원



부산시향의
실내악공장 I
문화 | 챔버홀 4.16.(금) 7:30pm
All Seats 10,000원



부산시향의
미완성음악회IV
시민 | 대극장 5.25.(화) 7:30pm
All Seats 5,000원



부산시향의
실내악공장 II
문화 | 챔버홀 7.2.(금) 7:30pm
All Seats 10,000원



부산시향의
클래식은 내친구 [취소]
문화 | 대극장 8.10.(화) 3:30pm 7:30pm
All Seats 10,000원



부산시향의
심야음악회 I [취소]
문화 | 중극장 8.27.(금) 9:00pm
All Seats 10,000원



제77회
청소년협주곡의 밤
문화 | 중극장 9.30.(목) 7:30pm
All Seats 5,000원



부산시향의
미완성음악회V
시민 | 대극장 10.13.(수) 7:30pm
All Seats 5,000원



부산시향의
실내악공장III
문화 | 챔버홀 10.21.(목) 7:30pm
All Seats 10,000원



부산시향의
우리아이음악회
문화 | 대극장 11.11.(목)~11.12.(금) 11:00am
All Seats 5,000원



부산시향의
심야음악회 II
문화 | 중극장 12.3.(금) 9:00pm
All Seats 10,000원



부산시향의
미완성음악회VI
문화 | 중극장 12.14.(화) 7:30pm
All Seats 5,000원



부산시립합창단_정기연주회

제181회 정기연주회
뮤지컬 칸타타 '아! 나의 조국!'
문화 | 대극장 5.13.(목)~5.14.(금) 7:30pm
R 20,000원 S 10,000원
시놉시스, 작곡 이진실 | 지휘 이기선



제182회 정기연주회 / 대규모 합창음악회
위로의 메세지
문화 | 대극장 6.24.(목) 7:30pm
R 20,000원 S 10,000원
지휘 이기선 | 바리톤 고성현 | 연주 부산시립교향악단
합창 부산시립합창단, 춘천시립합창단



제183회 정기연주회
해설이 있는 현대 합창의 밤 III
문화 | 대극장 10.7.(목) 7:30pm
All Seats 10,000원
지휘 이기선



제184회 정기연주회
**정적연주기법에 의한
헨델의 메시아 대연주회**
시민 | 대극장 12.9.(목) 7:30pm
All Seats 10,000원
지휘 이기선 | 반주 카메라타안티카(고음악 전문 연주 오케스트라)
소프라노 강혜정 | 알토 양송미 | 테너 조성환 | 베이스 박흥우



부산시립합창단_특별연주회

유명지휘자 초청연주회 1
새봄을 꿈꾸며
문화 | 대극장 3.4.(목) 7:30pm
All Seats 10,000원
객원지휘 이상길



가요합창음악회
2021 Summer Fantasy '시간(時間)'

문화 | 대극장 7.22.(목) 8:00pm
All Seats 10,000원
지휘 임희준 | 연주 이삼열 밴드 외



합창으로 하나되는 부산
제33회 부산합창제 [취소]

문화 | 대극장 10.25.(월)~10.28(목) 6:00pm
All Seats Free
출연 부산시립합창단 외 부산지역 아마추어 합창단



유명지휘자 초청연주회 2
Healing for you

문화 | 대극장 11.9.(화) 7:30pm
All Seats 10,000원
객원지휘 이수은



부산시립무용단_정기공연

제83회 정기공연
한국춤 명품 컬렉션 '본색'

문화 | 대극장 5.27.(목)~5.28.(금) 8:00pm
R 20,000원 S 10,000원
안무 이정윤



제84회 정기공연
소생

문화 | 대극장 12.10.(금) 8:00pm
12.11.(토) 5:00pm
R 20,000원 S 10,000원
안무 이정윤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_정기연주회

제209회 정기연주회
명품 재창작 관현악

문화 | 대극장 3.18.(목) 7:30pm
1층 10,000원 2층 5,000원
지휘 김종욱



제210회 정기연주회
전통음악의 밤

문화 | 중극장 6.10.(목) 7:30pm
1층 10,000원 2층 5,000원
집박 김수일



제211회 정기연주회
국악칸타타

문화 | 대극장 9.8.(수)~9.9.(목) 7:30pm
1층 10,000원 2층 5,000원
지휘 김종욱 | 작곡 김은혜 | 작시 이청산



제212회 정기연주회
명인·명창·명기의 무대

문화 | 중극장 10.21.(목) 7:30pm
1층 10,000원 2층 5,000원
지휘 김종욱
판소리 박성희, 정선희 | 태평소 김경수 | 가야금 송영남, 하지희
※ 대통령상 수상자 무대



제213회 정기연주회
2021 송년음악회

문화 | 대극장 12.28.(화) 7:30pm
1층 10,000원 2층 5,000원
지휘 김종욱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_특별연주회

협주곡의 밤

문화 | 대극장 4.22.(목)~4.23.(금) 7:30pm
1층 10,000원 2층 5,000원
지휘 김종욱
해금 서은영, 안은경, 김준희, 윤해승(22일)
가야금 광수은, 오해향, 윤경선, 최미란(23일)



신축다례연(辛丑茶禮宴)

문화 | 대극장 5.7.(금) 7:30pm
1층 10,000원 2층 5,000원
지휘 김정수 | 행다시연 (사)한국차인연합회 부산지연
차용무 부산시립무용단 | 시조 이아미



스타 프로젝트
그대를 그리웁다

문화 | 중극장 7.8.(목) 7:30pm
1층 10,000원 2층 5,000원



팔빙수 같이 시원한 콘서트 [취소]

시민 | 대극장 8.11.(수) 7:30pm
1층 10,000원 2층 5,000원
지휘 김종욱
가야금 김혜진 | 소프라노 남순천, 김나영
사물놀이 전학수, 이주헌, 최오성, 박재현



제46회
청소년 협주곡의 밤

문화 | 대극장 11.24.(수) 7:30pm



부산시립극단_정기공연

제69회 정기공연
a point of CONTACT

문화 | 중극장 4.9.(금)~4.11.(일)
평일 7:30pm 주말 5:00pm
R 20,000원 S 5,000원
작·연출 김지용



제70회 정기공연

벚꽃 동산

문화 | 중극장 7.1.(목)~7.3.(토)

평일 7:30pm 토 5:00pm

R 20,000원 S 10,000원

원작 안톤 파블로비치 체홉 | 객원연출 강성우



부산시립예술단 연합공연

찰스 디킨즈 '크리스마스 캐럴'

문화 | 대극장 12.23.(목)~12.24.(금) 7:30pm

R 30,000원 S 20,000원 A 10,000원

원작 찰스 디킨즈 | 각색/작사/연출 김지용

지휘 이기선 | 연주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 부산시립청소년교향악단

출연 부산시립극단, 부산시립합창단, 부산시립무용단, 부산시립소년소녀합창단



부산시립극단_특별공연

어린이 뮤지컬 아카데미 제1기

어린이 뮤지컬 '피터팬'

미정

원작 제임스 매튜 베리 | 대본, 작사 강보람

작곡 전현미 | 연출 김지용



안데르센

'미운오리새끼'

문화 | 사랑채 9.28.(화)~10.23.(토) 11:00am

(일요일 공연 없음) ※ 평일 단체, 토요일 일반

All Seats 10,000원

원작 안데르센 | 연출 김지용



부산시립청소년교향악단_정기연주회

제64회 정기연주회

화려한 전성기, CLIMAX

문화 | 대극장 3.19.(금) 7:30pm

All Seats 2,000원

지휘 이명근 | 협연 피아윤



제65회 정기연주회

브람스를 좋아하세요?

문화 | 대극장 9.14.(화) 7:30pm

All Seats 2,000원

객원 지휘 강석희



제66회 정기연주회 및 2021년 송년음악회

겨울...차이콥스키

문화 | 대극장 12.2.(목) 7:30pm

All Seats 2,000원

지휘 이명근



부산시립청소년교향악단_특별연주회

2021 솔로리스트들의 축제

문화 | 중극장 5.21.(금) 7:30pm

All Seats 2,000원

지휘 이명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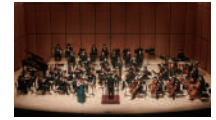


점점 Poco a poco

문화 | 대극장 10.6.(수) 7:30pm

All Seats 2,000원

지휘 이명근



청소년 실내악의 밤

문화 | 챔버홀 10.23.(토)~10.24.(일) 5:00pm

All Seats 2,000원

지휘 이명근



부산시립소년소녀합창단_정기연주회

제158회 정기연주회

제비던

문화 | 대극장 5.29.(토) 7:00pm

All Seats 2,000원

지휘 김수현



제159회 정기연주회

양탄자타고 음악여행 II [취소]

문화 | 대극장 9.11.(토) 5:00pm

All Seats 2,000원

지휘 김수현



제160회 정기연주회

Santa, Jazz Unplugged

문화 | 대극장 12.17.(금) 7:30pm

All Seats 2,000원

지휘 김수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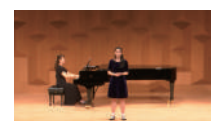
부산시립소년소녀합창단_특별연주회

향상음악회

문화 | 챔버홀 2.19.(금)~2.20.(토)

금 7:30pm 토 5:00pm

All Seats Free



제34회 부산청소년합창제 [취소]

문화 | 대극장 11.5.(금)~11.6.(토)

금 7:30pm 토 5:00pm

All Seats Free



※ 코로나19 상황으로 인해 공연 일정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Package Ticket

2021-22
BSCC

프리미엄 패키지(40%) [판매종료]

■ V+R 320,000 192,000 R 300,000 180,000 S 210,000 126,000

- 프리미엄 1. 피아니스트 임동민 & 임동혁 듀오 리사이틀
- 프리미엄 2. 낭만희극 <십이야(十二夜)>
- 프리미엄 3. 안은미컴퍼니 <A-드래곤>
- 프리미엄 4. 뮤지컬 <라흐마니노프>
- 프리미엄 5. 콘서트 오페라 <이고르공>

* 최고등급 V+R 교차 예매 가능

연극/뮤지컬 패키지(30%)

■ R 170,000 119,000 S 120,000 84,000 A 80,000 56,000

- 연극/뮤지컬 1. 낭만희극 <십이야(十二夜)>
- 연극/뮤지컬 2. 연극 <흑백다방>
- 연극/뮤지컬 3. 뮤지컬 <라흐마니노프>
- 연극/뮤지컬 4. 연극 <단편소설집>

발레/무용 패키지(30%) [판매종료]

■ V+R 240,000 168,000 R 200,000 140,000 S 120,000 84,000

- 발레/무용 1. 에이프만 발레<카라마조프가의 형제들> & <안나 카레리나> (작품 중 택 1)
- 발레/무용 2. 상트 페테르부르크 국립 아이스발레단 <호두까기인형>
- 발레/무용 3. 이정윤 안무신작 <MOTI/어디로부터>
- 발레/무용 4. 안은미컴퍼니 <A-드래곤>

* 최고 등급 V+R 교차 예매 가능

클래식/오페라 패키지(30%) [판매종료]

■ V+R 310,000 217,000 R 260,000 182,000 S 190,000 133,000

- 클래식/오페라 1. 피아니스트 임동민 & 임동혁 듀오 리사이틀
- 클래식/오페라 2. 프레데리크 기 피아노 리사이틀
- 클래식/오페라 3. 비엔나 & 베를린 챔버 오케스트라
- 클래식/오페라 4. 콘서트 오페라 <이고르공>

* 최고 등급 V+R 교차 예매 가능

NT Live 패키지 [판매종료]

■ 40,000 28,000

- NT Live 1. 워 호스 War Horse
- NT Live 2. 리어왕 King Lear

<인문학+ 콘서트> 패키지

- 인문학+ 콘서트 6편 동시 구매 시 40% 할인 [판매종료]
- 인문학+ 콘서트 4편 이상 동시 구매 시 30% 할인 [판매종료]
- 인문학+ 콘서트 2편 이상 동시 구매 시 20% 할인

Season Program

<시네 오페라 초이스> 패키지

- '시네 오페라 초이스' 4편 동시 구매 시 40% 할인 **[판매종료]**
- '시네 오페라 초이스' 3편 동시 구매 시 30% 할인 **[판매종료]**
- '시네 오페라 초이스' 2편 동시 구매 시 20% 할인

자유 패키지

- 부산문화회관/시민회관 기획공연 중 5편 동시 구매 시 30% 할인
- 부산문화회관/시민회관 기획공연 중 3편 동시 구매 시 20% 할인
- * NT-Live, 인문학* 콘서트, 시네 오페라 초이스, 유키 구라모토 콘서트, 2021 디즈니 인 콘서트, 신비아파트 시즌4, 알사탕, 피카로의 결혼, 조수미&이무지치, 2021 제야음악회 공연은 패키지에서 제외
- * 자유 패키지는 동일 등급에 한해 구입 가능

패키지리켓 오픈: 2021. 1. 19.(화) 오후 2시

패키지 구매 시 유의사항

- 패키지 예매는 (재)부산문화회관 홈페이지와 고객센터에서 가능합니다.
 - 홈페이지 온라인예매: www.bscc.or.kr
 - 고객센터 전화예매: 051-607-6000
- 모든 패키지는 동일 좌석등급으로 선택 가능합니다. (동일공연 중복선택 불가)
- 모든 패키지는 묶음구성이므로, 공연별 편당 취소는 불가능합니다.
- 모든 패키지는 구성공연의 첫 공연 시작 이후 취소 및 변경이 불가능합니다.
 - 패키지 취소는 첫 공연 전날 오후 5시까지, 전화 취소만 가능합니다.
 - 단, 첫 공연이 일요일 또는 월요일일 경우, 그 전 주 금요일 5시까지 취소 가능합니다.
- 패키지 구성 공연 중 일부 취소가 발생할 경우, 해당 공연은 패키지 할인율을 적용해 환불됩니다.
- 패키지 구성공연의 상황에 따라 패키지 예매가 조기매진될 수 있습니다.

오시는 길

부산문화회관



지하철 2호선 대연동역 하차,
5번 출구로에서 유인 교차로 방향으로
도보 10분



• 시내버스 51번, 68번, 134번, 138번
• 마을버스 남구9번, 남구10번



공연 시간 **1시간 전 / 30분 전** 2회 운행
(※ 공연 시작시간에 따라 운행시간 변경,
낮 공연 운행 없음)

부산시민회관



1호선 범일역 하차, 2번 출구(도보 10분 소요)
2호선 문현역 하차, 3번 출구(도보 3분 소요)



• 시내버스 2번, 68번, 11번, 80번, 99번, 83-1번, 63번, 57번, 138번, 23번, 83번, 10번, 108번, 81번, 43번, 52번, 5-1번, 22번, 40번, 134번, 27번, 26번, 41번, 82번, 101번, 42번, 1583번, 24번
• 마을버스 남구3번, 남구5번
• 좌석버스 1000번, 1003번, 1004번

공연문의 및 전화예매

- 가능시간
평일 09:00~18:00
- (재)부산문화회관 고객센터
051-607-6000
ARS ① 한국어 문의
ARS ② 외국어 문의

(재)부산문화회관 후원회

MEMBER OF THE ASSOCIATION FOR THE BUSAN CULTURAL CENTER

회장

변원탄 의료법인 양산병원 이사장

명예회장

최수기 (주)휴넷 회장

부회장

박정삼 백송건설 회장
도용복 (주)사라토가 회장
김정기 (주)경동건설 대표이사
임현경 신주레약국
임현숙 (사)아름다운 사람들 이사장

사무처장

김홍재 (전)연제구의장

이사회원

강서룡 효승테크 대표이사
곽국민 (주)파크랜드 대표이사
권한상 부경대학교 교수
김기호 (주)이디에스 보안물류 대표이사
김성우 (재)해뜨락 요양병원 이사장
김신호 (주)덕신체인 대표이사
김암우 세무법인 중추 대표이사
김충석 국제로타리3661 부산지구 총재
류용주 삼신교통(주) 회장
박영기 에스더블유팜 대표이사
박장호 (주)피에스제이 대표이사
서현석 한국국무산업 대표이사
손명찬 서원건설산업(주) 대표이사
윤철원 (주)정우 대표이사
이수영 (주)유환 대표이사
이진영 돌고래마취통증의학과의원 원장
임성국 하이원해운항공 대표이사
임정덕 예술과부산 대표이사

장문호

(주)천영스틸 대표이사

장세비

우리은행 부산금융센터 및
부산영업 그룹장

정문흠

(주)태영버스 대표이사

정연택

디씨엠(주) 대표

정용환

서번산업엔지니어링(주) 대표이사

조기종

조기종치과의원 원장

일반회원

강득용 (주)프리미엄 에셋 대표이사
김말순 인창요양병원 대표이사
김영수 세종월드건설 대표이사
김영욱 김&정 세무회계사무소 대표이사
김종부 다올테크 대표이사
김종식 주식회사 JJK 회장
김 철 춘해병원 의무원장
김형우 (주)천마 대표이사
김희규 효성의약품(주) 대표이사
도재철 (주)좋은세상 대표이사
문민우
박성복
박성환 대동병원 이사장
박혜빈 세종기획 이사
박흥근 구포성심병원 이사장
성원기 삼강종합건설(주)
양은진 세무법인 인성
이경철 세무법인 프로텍 세무사
이에리카정애 르네상스피부과 원장
이현숙 이현숙 정신건강의학과 원장
임은자
정민섭 정민섭 산부인과 원장
정의화 (전)국회의장
조성락 속편한내과 원장
조종래 라이프온(주) 대표이사
하정태 주식회사 일신케미칼 사장
한원우 법률사무소 담헌 변호사



보람 있는 후원, 명예로운 모임

(재)부산문화회관 후원회 가입안내

GUIDE A MEMBER OF THE ASSOCIATION FOR THE BUSAN CULTURAL CENTER

■ 기본 예우



후원회 전용 룸 이용



대극장 좌석 네이밍



예술의 초대
소식지 발송



연(분기 또는 반기)
후원회원 대상 음악회 개최



후원 회원명단 게재
(후원회 홈페이지, 월간지 등)



부산시립예술단 공연 무료 관람 제공
(동반 1인 포함 / 사전 신청자에 한함)



후원회 멤버십 카드 발급



회원패 증정



무료 주차혜택 제공
(본인 차량에 한함)

■ 회원별 예우

단위 : 만 원

구분	가입비	연회비 (익년도부터)	법인/ 개인	기획공연 및 전시 무료 초대		아카데미	좌석 네이밍 (대극장)
				기획공연(연간)	전시		
부회장	500 이상	200	법인/ 개인	- 기획공연 8매 - 기획공연 및 예술단공연 입장료 할인(30~50%)	본인·배우자 무료	본인·배우자 무료	2개 좌석
이사 회원	300	100		- 기획공연 6매 - 기획공연 및 예술단공연 입장료 할인(30~50%)	본인 무료, 동반 1인 50% 할인	본인 50% 할인	
일반 회원	100	50	개인	- 기획공연 4매 - 기획공연 및 예술단공연 입장료 할인(30%)	본인 무료, 동반 1인 50% 할인	본인 10% 할인	1개 좌석

- ※ 법인회원은 300만원부터 가능하고, 후원회원 예우는 개인 및 법인의 대표와 배우자에 한함.
- ※ 공연(기획공연, 예술단공연) 무료초대는 반드시 사전 예약을 하여야 하며, 조기매진 시 초대권 제공 불가함.
- ※ 일부 공연의 경우 공동주최 등의 사유로 예우사항(할인율 등)이 일부 조정될 수 있음.
- ※ 전시, 아카데미(1강좌에 한함)의 경우 반드시 사전 신청자에 한하며 내부 사정에 따라 예우사항 등은 조정 될 수 있음.

가입문의 : (재)부산문화회관 홍보팀(051-607-6123)

법인 가족과 나누는 특별한 시간, 더 큰 문화의 감동을 선사합니다

(재)부산문화회관 법인회원

BSCC Business Membership

법인회원을 위한 비즈니스 멤버십은 문화 혜택과 더불어 회관의 홍보 채널을 제공합니다. 한 장의 카드로 혜택을 모으고, 문화를 즐기고, 기쁨을 나눕니다. 법인이라면 기업의 품격을 높여줄 재단법인 부산문화회관 비즈니스 멤버십에 가입하세요.

비즈니스 멤버십 주요 혜택

- 01 **부담은 줄이고 문화는 풍성하게**
공연과 전시(20~50%), 아카데미 수강(10%), 회관 주차장(50%) 등을 할인된 가격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제공되는 프로그램 북 교환권으로 유료 판매하는 공연 프로그램 북을 교환해 공연을 더욱 풍성하게 즐기세요. ※ 선예매 서비스 제공
- 02 **멤버십 전용 카드 및 이벤트 제공**
회원카드에 기업 로고를 표기해드립니다. 법인회원 멤버십을 위한 회원 전용 초청 이벤트로 예상치 못한 초대와 즐거움까지 함께 누리보세요.
- 03 **최고의 혜택과 홍보를 한 번에**
회관의 온·오프라인 홍보 채널을 이용해 기업을 홍보할 수 있습니다. 월간 <예술의 초대>, 회관 내 DID, 회관 홈페이지 및 SNS를 통해 기업을 홍보하세요.

비즈니스 멤버십 등급별 혜택

등급 (가입기간 1년)		루비 레드 (Ruby Red)	에메랄드 그린 (Emerald Green)	사파이어 블루 (Sapphire Blue)
연회비(발급 카드)		500만 원(50매)	300만 원(30매)	100만 원(10매)
공통혜택		회원카드 기업 로고 표기 공연 및 전시할인(20~50%) 아카데미 수강료 할인(10%) 월간 예술정보지 <예술의 초대> 발송 회원 라운지 무료 이용(회원카드제시 시) 회원 대상 초청 이벤트 실시 문화회관 주차장 무료 이용(회원카드 제시 시) 제휴업체 할인(업체 사정상 변경될 수 있음)		
등급별 추가 혜택	기획공연 유료 프로그램 북 교환권	90매	60매	30매
	회관 홈페이지 배너 광고	6개월	3개월	1개월
	월간 예술정보지 <예술의 초대> 광고	2회	1회	-
	회관 내 DID 법인 홍보	6개월	3개월	1개월
	회관 공식 SNS 홍보(유튜브,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트위터, 카카오톡스토리, 블로그)	6개월	3개월	1개월

문의 : (재)부산문화회관 고객개발팀(051-607-6114~7, www.bscc.or.kr)

일상에 문화를 더하다, 문화생활의 필수품 (재)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회원가입

가입신청 홈페이지(www.bscc.or.kr) 또는 전화 051)607-6000
 단체가입 할인 20명 이상(10%), 30명 이상(20%), 50명 이상(30%)

공통혜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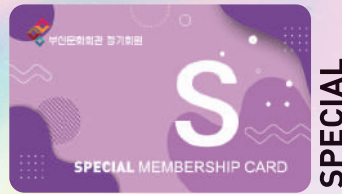
- 가입기간(1년) · 정기회원 카드 발급(10일 이내) · 선 예매 서비스제공(일부공연 제외)
- 월간 예술정보지 '예술의 초대' 우송(1년) · 공연정보(SMS) 제공(대관공연 제외)
- 아카데미 수강료 할인(10%~) · 부산문화회관 주차요금 50% 할인(입차 시 회원카드 제시)
- 정기회원 라운지 무료 이용(회원카드 제시 시 음료 등 제공)
- 부산시내 외부공연 및 대관공연 입장료 할인(주최 측 협의에 한함)



연 회 비 : 10만원
초 대 권 : 8매(부산문화회관·부산시민회관 기획공연 4매, 부산시립예술단 공연 4매)
할인매수 : 6매(공연당)

특별혜택

- 부산문화회관·부산시민회관 지정된 기획공연 및 부산시립예술단(5개 단체) 공연 초대권 각 4매 증정
- 지정된 기획공연, 지정된 객석 수에 따라 선착순 예약 마감
 - 지정된 기획공연, 지정된 좌석 중에서 예약 가능
 - 초대권은 가입한 날로부터 1년 이내 사용(전화 사전예약)
 - 부산문화회관·부산시민회관 기획공연(전시) 및 부산시립예술단 공연 입장료 할인(10~50%)
 - 부산문화회관 무료주차권 10매
- ※ 지정된 기획공연은 (재)부산문화회관 홈페이지, 월간 예술정보지 <예술의 초대>를 통해 따로 공지 (조기마감)
- ※ 부산시립예술단: 교향악단, 국악관현악단, 합창단, 무용단, 극단



연 회 비 : 5만원
초 대 권 : 4매(부산시립예술단 공연 4매)
할인매수 : 4매(공연당)

특별혜택

- 부산시립예술단(5개 단체) 공연 초대권 4매 증정
- 초대권은 가입한 날로부터 1년 이내 사용(전화 사전예약)
 - 부산문화회관·부산시민회관 기획공연(전시) 및 부산시립예술단공연 입장료 할인(10~30%)
 - 부산문화회관 무료주차권 6매



연 회 비 : 3만원
초 대 권 : 2매(부산시립예술단 공연 2매)
할인매수 : 2매(공연당)

특별혜택

- 부산시립예술단(5개 단체) 가입단체 공연 초대권 2매 증정
- 초대권은 가입한 날로부터 1년 이내 사용(전화 사전예약)
 - 부산문화회관·부산시민회관 기획공연(전시) 및 부산시립예술단공연 입장료 할인(10~30%)
 - 부산문화회관 무료주차권 4매
- ※ 가입단체 초대권 증정, 비가입단체는 예술단 공연 입장료의 할인이율 달라질 수 있음.

(재)부산문화회관 유료회원을 위한 선 예매 서비스 제공

(재)부산문화회관에서는 2021년부터 유료회원에게 보다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선 예매 제도를 도입합니다. 선 예매는 일반 예매에 앞서 유료회원에게 사전 예매기간을 제공함으로써 회원들이 보다 좋은 좌석을 미리 예매할 수 있습니다. 대상공연은 부산문화회관 기획공연 및 부산시립예술단 공연(일부 공연 제외)입니다. 부산문화회관은 앞으로도 유료회원을 위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가입 문의 : (재)부산문화회관 고객센터 TEL. 051)607-6000 FAX. 051)607-6119 * 평일 09:00~18:00(토·일·공휴일 제외)

특별한혜택

(재)부산문화회관
VIP회원에게만 드리는

Busan Cultural Center

VIP

다양한 할인혜택으로 문화생활의 필수품으로 자리 잡은 (재)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제도는 높은 할인율과 초대권 증정 등 다양한 혜택으로 보다 많은 관람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특히 (재)부산문화회관 VIP 회원에 가입하시면 지정 기획공연 중 초대권 4매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초대권 사용이 가능한 공연은 월간 예술정보지 <예술의 초대>나 부산문화회관 홈페이지(www.bscc.or.kr)를 통해 공지되며, 공지된 공연 중 원하는 공연을 선택하셔서 전화로 사전 예약하시면 됩니다. 아래 공연은 2021년 예약이 가능한 기획공연으로 공연예매 시작과 함께 전화로 예약가능하며 선착순 마감입니다.

한국을 대표하는 형제 피아니스트의 첫 듀오 무대 피아니스트 임동민 & 임동혁 듀오 리사이틀

3월 6일(토) 오후 5:00
부산문화회관 대극장(선착순 R석 20매) **종료**

라이브 스크린으로 즐기는 영국 연극계 화제작 NT-Live <워 호스(War Horse)>, <리어왕 (King Lear)>

4월 24일(토), 10월 23일(토) 오후 3:00
부산문화회관 중극장(회차별 선착순 20매)

뉴에이지의 거장, 피아노의 음유시인 2021 유키 구라모토 콘서트

5월 28일(금) 오후 7:30
부산시민회관 대극장(선착순 R석 20매) **종료**

프랑스를 대표하는 베토벤 스페셜리스트 프레데리크 기(Frédéric Guy) 리사이틀

6월 15일(화) 오후 7:30
부산문화회관 중극장(선착순 R석 20매) **취소**

빈필과 베를린필의 매혹적 만남 비엔나 & 베를린 챔버 오케스트라

6월 22일(화) 오후 7:30
부산문화회관 대극장(선착순 R석 20매) **취소**

은반 위에 펼쳐지는 한여름의 크리스마스 상트페테르부르크 국립 아이스발레단 호두까기 인형

7월 31일(토) 오후 2:00, 5:00, 8월 1일(일) 오후 2:00
부산문화회관 대극장(회당 선착순 R석 20매) **취소**

감동을 넘어선 마법의 시간 2021 디즈니 인 콘서트

8월 28일(토) 오후 5:00
부산시민회관 대극장(선착순 R석 20매) **종료**

새로운 시선, 차세대 예술 2021 부산신진예술페스티벌

8월 14일(토)~15일(일) 오후 5:00, 17일(화) 오후 7:30,
19일(목)~20일(금) 오후 7:30, 21일(토)~22일(일) 오후 5:00
부산문화회관 및 부산시민회관(회차별 선착순 R석 30매) **종료**

(재)부산문화회관
VIP회원에게만 드리는
특별한 혜택

2021 BSCC 제작공연 시리즈 I

이정윤 안무 신작 <MOTI/어디로부터>

9월 3일(금) 오후 8:00, 4일(토)~5일(일) 오후 5:00
부산문화회관 대극장(회차별 선착순 R석 30매) **종료**

생존경쟁 끝자락에서 마주하는 우정
XXL레오타드 안나수이 손거울

9월 9일(목)~10일(금) 오후 7:30
부산문화회관 중극장(회차별 선착순 R석 20매) **취소**

꿈꾸는 청춘들의 치열한 농구 한판
창작뮤지컬 <전설의 리틀 농구단>

10월 9일(토) 14:00, 18:00
부산문화회관 중극장(오후 2:00 공연에 한해 선착순 S석 20매)

가해자와 피해자의 숨막히는 심리게임
흑백다방

10월 23일(토)~10월 24일(일) 오후 3:00
부산시민회관 소극장(회차별 선착순 R석 20매)

얼어버린 두 손의 천재음악가
뮤지컬 <라흐마니노프>

11월 5일(금) 오후 7:30, 6일(토) 오후 3:00
부산문화회관 중극장(회차별 선착순 R석 20매) **종료**

2021 BSCC 제작공연 시리즈 II

(재)부산문화회관&파리 테아트르 드 라 빌
리옹댄스비엔날레 공동제작
안은미컴퍼니 <A-드래곤>

11월 26일(금) 오후 7:30, 27일(토) 오후 3:00
부산문화회관 중극장(회차별 선착순 R석 20매) **2022년 연기**

콘서트 오페라 <청교도>

11월 10일(수) 오후 5:30
부산시민회관 대극장(선착순 S석 20매)

국립발레단 <호두까기인형>

12월 1일(수)~2일(목) 오후 7:30
부산시민회관 대극장(회차별 선착순 R석 20매)

성악과 기악의 정점에서 만나는 바로크 음악
조수미 & 이 무지치

12월 18일(토) 오후 5:00
부산문화회관 대극장(선착순 R석 10매)

리처드 용재오닐 리사이틀

12월 26일(일) 오후 5:00
부산시민회관 대극장(선착순 S석 20매)

* 1인 1~2매에 한해 예약 가능하며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
* 공연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코로나19로 인한 해외 아티스트들의 입국상 어려움으로
해외초청공연이 부득이 취소되고 있습니다. 양해바랍니다.

문의 | 고객개발팀(051-607-6116)

부산문화회관

플러스 **무료** 회원 가입 캠페인



일상을 컬러 **플** 하게
문화를 파워 **플** 하게



(재)부산문화회관에서는

품격 높은 문화도시부산의 대표적 문화공간으로 거듭나기 위해 **플러스 회원 가입 캠페인**을 실시합니다. 온라인 무료 회원인 플러스 회원으로 가입하시면 문자를 통한 공연 알림뿐만 아니라 이메일을 통해 공연 정보가 담긴 뉴스레터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플러스 회원 가입으로 설렘과 감동의 순간을 함께하고 푸짐한 경품 혜택도 누리세요!**

대상

캠페인 기간 중 가입한 회원

가입기간

2021년 7월 1일(목) — 12월 31일(금)

참여방법

(재)부산문화회관 홈페이지(www.bscc.or.kr) 또는 모바일

당첨자 발표

2022년 1월중, 당첨자 개별공지

경품내용

선물1	20명	부산문화회관 VIP회원권(10만원 상당)
선물2	30명	부산문화회관 스페셜회원권(5만원 상당)
선물3	50명	부산문화회관 예술단회원권(3만원 상당)
선물4	100명	신세계 모바일 상품권(2만원/모바일)
선물5	100명	해리스 카페 아메리카노 쿠폰(5천원/모바일)
선물6	100명	부산문화회관 월간지 <예술의초대> 1년 구독권
선물7	100명	부산문화회관 무료주차권 5매

플러스 회원 가입 신청서



QR코드로
간편가입

이름

아이디

홈페이지 회원가입을 위해 필요합니다.

전화번호

홈페이지 로그인 시 최초 비밀번호로 설정됩니다.

이메일

주소

이벤트 당첨 시 기재해 주신 주소로 경품 발송됩니다.

SMS/이메일 수신동의

플러스 무료 회원의 혜택인 공연 문자 알림과 뉴스레터 수신을 위하여 SMS/이메일 수신동의는 필수입니다.

정보제공 활용동의

제공해주시는 개인정보는 (재)부산문화회관의 회원 가입 및 공연정보 등을 제공하고 경품 추첨을 위한 용도로만 사용됩니다. 정보제공에 동의하지 않으신 경우 플러스 회원 가입이 불가능하며, 경품 추첨에 제한이 있습니다.

귀하의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것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함



지휘
김종욱



가야금
송영남



25현 가야금
하지희

名人

名技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
명인·명창·명기의
무대

김병호류 가야금산조
25현 가야금 협주곡 "바람과 바다"
판소리 협주곡 "지룡, 만경창피를 가르다"
태평소산조 협주곡 "Sol"
판소리 협주곡 "수궁가" 중 '가자 가자 어서 가자'



판소리
정선희



태평소
김경수

名唱



판소리
박성희

2021. 10. 21 목
오후 7:30
부산문화회관 중극장

주최 부산문화회관
티켓 R석(1층) 10,000원
S석(2층) 5,000원
예매 www.bscc.or.kr
문의 607-6000(ARS 1번)

부산시립합창단 제183회 정기연주회 및 해설이 있는 현대 합창시리즈 III

현대 합창 거장들의 합창세계



지휘 이기선
(부산시립합창단 예술감독)

William Schuman
Prelude for Voices

Sydney Guillaume
Kalinda

Ola Gjeilo
The Lake Isle

Samuel Barber
A Stopwatch and
an Ordnance Map

Ola Gjeilo
Tundra

arr. Ethan Sperry
Jai Ho

Dan Davison
Ritmo

정남규
등대

손정훈
다툼이

이순교
술취한 모란꽃

박선영
재즈로 풀어본 아리랑

진한서
정선 아리랑

2021. 10. 7목 오후 7:30 부산문화회관 대극장

제579회 정기연주회

MUSSORGSKY & STRAVINSKY

스키

2021. 10. 14^{THU} 11:00AM

예술감독 최수열 & 바이올리니스트 조진주의 토크가 있는 마티네 콘서트

2021. 10. 15^{FRI} 7:30PM

부산시민회관 대극장
Busan Citizen's Hall

라벨 · 잔의 부채를 위한 팡파레 [14일, 15일]
Ravel · Fanfare for L'éventail de Jeanne

스트라빈스키 · 바이올린 협주곡 [14일, 15일]
Stravinsky · Violin Concerto

무소르그스키 - 라벨 · 전람회의 그림 [15일]
Mussorgsky - Ravel · Pictures at an Exhibition

연주 부산시립교향악단 Busan Philharmonic Orchestra

지휘 최수열 Soo-Yeoul Choi, conducto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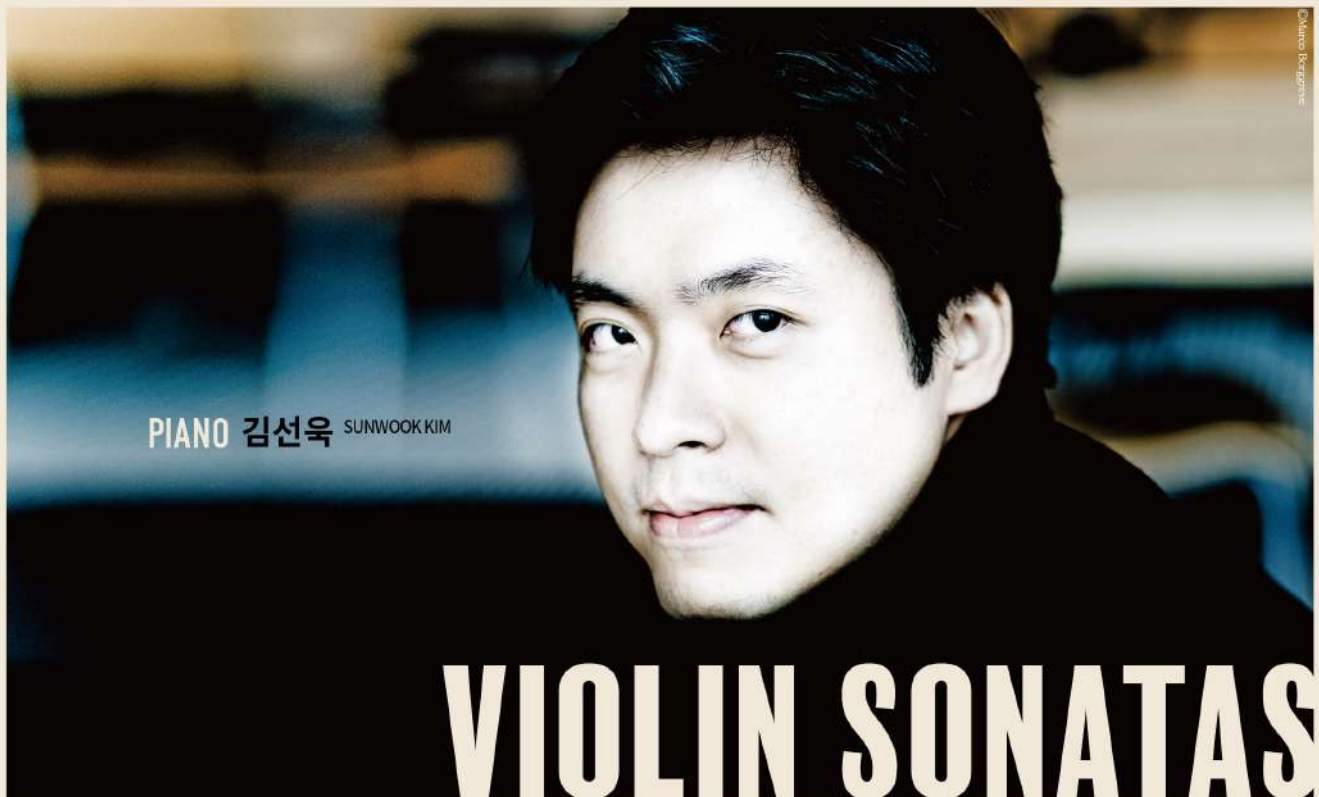
바이올린 조진주 Jinjoo Cho, violin



VIOLIN 클라라 주미 강 CLARA-JUMI KANG

BEETHOVEN

클라라 주미 강 & 김선욱 듀오 리사이틀



PIANO 김선욱 SUNWOOK KIM

VIOLIN SONATAS

2021. 11. 01 | 월 | 오후 7 : 30 부산문화회관 대극장



동아시아문화도시 2021 부산
Culture City of East Asia 2021 Busan

동아시아 문화도시

2021



희망의 메시지 on LIVE

2021. 10. 8(금) - 9(토)

부산문화회관 대극장 YouTube 생중계 및 무료입장

주요공연 안내

10. 8(금) 19:30	연주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 부산시립무용단
	지휘	김종욱_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 수석지휘자
	안무	이정윤_부산시립무용단 예술감독
	출연	국수호·배정혜(한국무용가), 김주원(발레리나) 사물광대(사물놀이), 젊은소리 쟁이
10. 9(토) 17:00	연주	부산시립합창단, UKO 오케스트라
	지휘	이기선_부산시립합창단 예술감독
	출연	Sop. 김순영·오신영, Ten. 윤정수 피아니스트 하순원

COUPON



30% Discount

갤러리안경(전 지점)

이 쿠폰과 문화회관 정기회원카드를
제시하시면 할인 받으실 수 있습니다.

COUPON



20% Discount

노벨안경콘택트

이 쿠폰과 문화회관 정기회원카드를
제시하시면 할인 받으실 수 있습니다.

COUPON



10% Discount

밥을 짓고, 국을 담다

이 쿠폰과 문화회관 정기회원카드를
제시하시면 할인 받으실 수 있습니다.

예술의 초대
The Monthly Magazine of the Busan Cultural Center



Busan Cultural Center

배시시(BSCC)TV

(재)부산문화회관 공식 유튜브채널

(재)부산문화회관 공식 유튜브 채널 '배시시(BSCC)TV'입니다.

'배시시' 이름처럼 많은 분들의 입가에 배시시 미소를 짓게 할
다양한 이야기들을 담아 전달합니다.

'구독'을 누르시면 부산의 문화 소식을 쉽고 편하게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많은 구독 부탁드립니다.

검색

유튜브 검색창에 '배시시tv'를 검색해보세요.

COUPON



20% Discount

해리스커피

이 쿠폰과 문화회관 정기회원카드를
제시하시면 할인 받으실 수 있습니다.

COUPON



20% Discount

BNK부산은행 조은극장

- 쿠폰 소지자에 한해 1인 2매까지 할인
됩니다.
- 예매 후 티켓 수령 시 본 쿠폰과 문화회관
정기회원카드를 제시하여야 합니다.

COUPON



1만원 씬머니
(\$100 이상 구매 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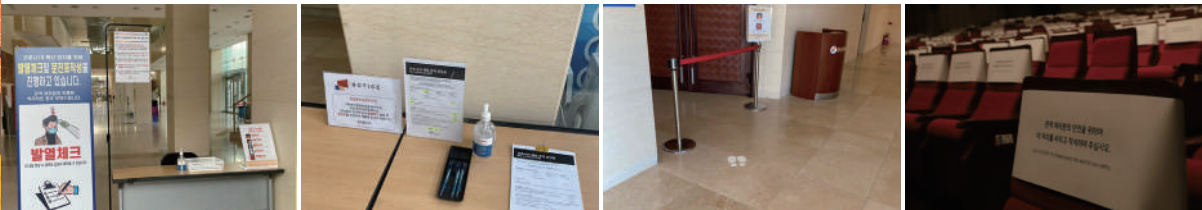
신세계면세점 부산점

쿠폰 소지회원 출국당 1월 1회,
당사 규정에 따라 증정합니다.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확산 방지를 위한
(재) 부산문화회관 공연장

이용수칙

안전한 공연관람을 위한 공연장 이용수칙을 안내드리오니
관객 여러분의 양해와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립니다.



- ✓ 공연장 입장 전 발열체크 및 문진표 작성에 협조 부탁드립니다.
- ✓ 마스크 미착용 시 공연장 입장이 제한되오니 개인 마스크를 필히 착용 후 방문해주세요.
- ✓ 티켓을 직접 절취하신 후 티켓의 왼쪽 부분(또는 작은 쪽 부분)을 수표함에 직접 넣어주세요.
- ✓ 코로나19 감염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한 '거리두기 객석'에 맞게 지정된 좌석에 착석바랍니다.



신세계면세점 부산점

증정 기간 : 2021. 10. 31까지
증정 장소 : B1 고객 서비스 데스크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센텀4로 15
1661-8778



BNK부산은행 조은극장

입장권 20% 할인

부산광역시 중구 구덕로34번길 4
1588-275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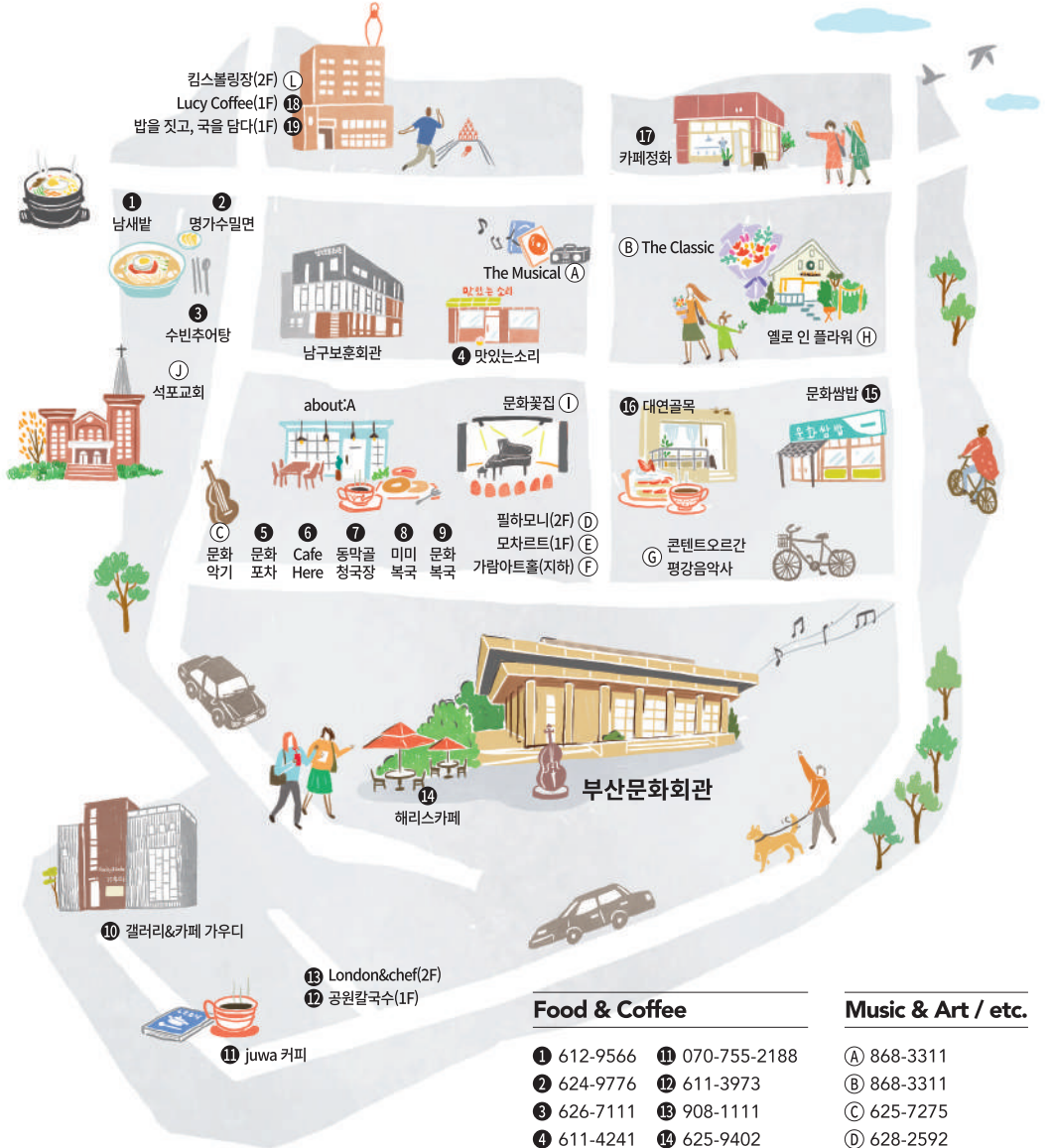


해리스커피

음료 20% 할인(정기회원 카드 제시 시)

부산문화회관 내
1577-2307

Surrounding map of
the BUSAN CULTURAL CENTER



Food & Coffee

- ① 612-9566 ⑪ 070-755-2188
- ② 624-9776 ⑫ 611-3973
- ③ 626-7111 ⑬ 908-1111
- ④ 611-4241 ⑭ 625-9402
- ⑤ 626-4448 ⑮ 626-2292
- ⑥ 622-7412 ⑯ 010-3996-6498
- ⑦ 611-3589 ⑰ 623-0772
- ⑧ 628-8009 ⑱ 628-3832
- ⑨ 621-7040 ⑲ 714-3559
- ⑩ 621-5788

Music & Art / etc.

- Ⓐ 868-3311
- Ⓑ 868-3311
- Ⓒ 625-7275
- Ⓓ 628-2592
- Ⓔ 622-1456
- Ⓕ 621-6669
- Ⓖ 626-7900
- Ⓘ 080-337-3370
- Ⓙ 622-9722
- Ⓚ 625-8704

COUPON



밥을 짓고, 국을 담다

정식 10% 할인(정기회원 카드 제시 시)

대연스포츠펀터 킹스볼링장 1층
051)714-3559

COUPON



노벨안경콘택트

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전 상품
20% 할인(일부품목 제외)

부산광역시 남구 유엔평화로 152-2
051)626-8263

COUPON



갤러리안경(전 지점)

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대상
30% 할인(일부품목 제외)

부산광역시 금정구 부산대학교로 50
051)513-45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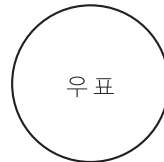
우 편 엽 서

보내는 사람

이름

주소

□ □ □ □ □



받는 사람

이름

주소

□ □ □ □ □



독자의견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보내주세요.

The Monthly Magazine
of the Busan Cultural Center

1. 이번 호에서 유익했던 기사는?

.....
.....

2. 앞으로 다루었으면 하는 내용은?

.....
.....

3. 개선해야 할 점은?

.....
.....



2021

10

OCTOBER



I N V I T A T I O N T O T H E A R T S

모데나꼬무날레극장 공동제작 콘서트 오페라

I PURITANI

청교도



2021. 11. 10 | 수 | 19 : 30
부산시민회관 대극장

주최 부산문화회관 주관 SOL'OPERA

티켓 V석 9만원 / R석 7만원 / S석 5만원 / A석 3만원

예매 및 문의 부산문화회관 홈페이지 051.607.6000 (ARS 1번)